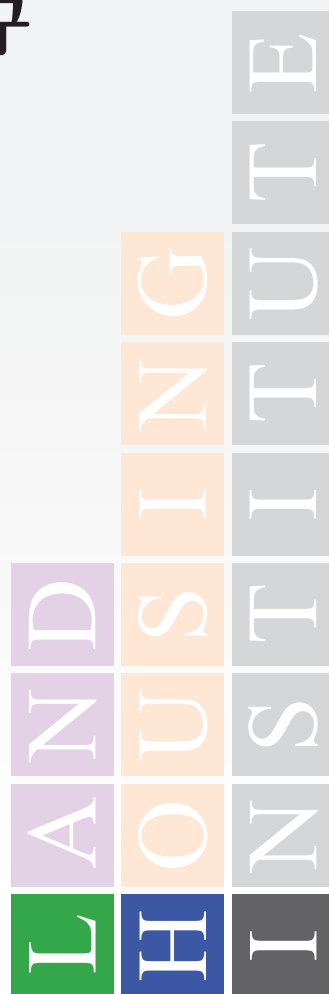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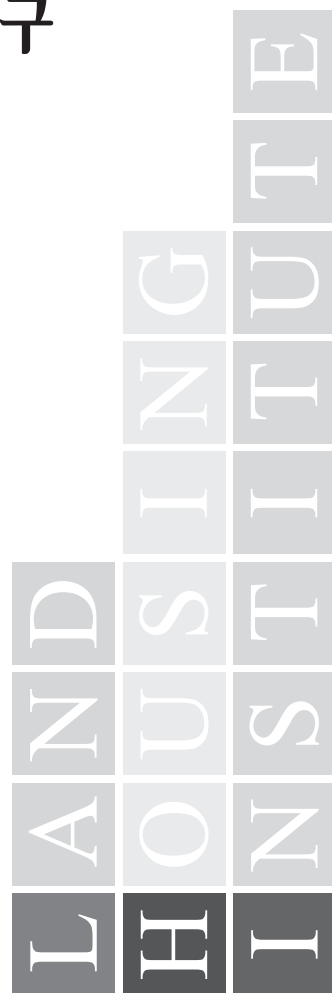
국내외 니즈에 기반한 LH 해외산업단지 추진전략 연구

정연우 / 송영일 / 이상현 / 이승은



국내외 니즈에 기반한 LH 해외산업단지 추진전략 연구

정연우 / 송영일 / 이상현 / 이승은



연구기획 2023-003호

국내외 니즈에 기반한 LH 해외산업단지 추진전략 연구

지은이 정연우·송영일·이상헌·이승은

발행인 김홍배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편 집 정연우

주소 (우)34047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전화/전송 042) 866-8668 / 866-8692

전자우편 ywjeong@lh.or.kr

홈페이지 <http://lhi.lh.or.kr>

- 이 출판물은 우리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검토한 기초자료로서 공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구기획 2023-003

국내외 니즈에 기반한 LH 해외산업단지 추진전략 연구
Strategies for Promoting LH Overseas Industrial Complexes
based on Domestic and Foreign Needs

참여연구진

연구총괄

정연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송영일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상헌 LH 토지주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이승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외부원고 집필

유종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문위원

연구심의위원(가나다순)

고준호 한양대학교 교수

김형석 LH 산업단지처 차장

김희봉 LH 글로벌사업처 차장

성장환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안병곤 LH 글로벌사업처 단장

임재빈 충남대학교 교수

장인석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자문위원(가나다순)

고세범 한아도시연구소 본부장

김동수 산업연구원 실장

이동우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임종훈 정도유아이티 부사장

정다운 오씨에스도시건축사사무소 이사

한형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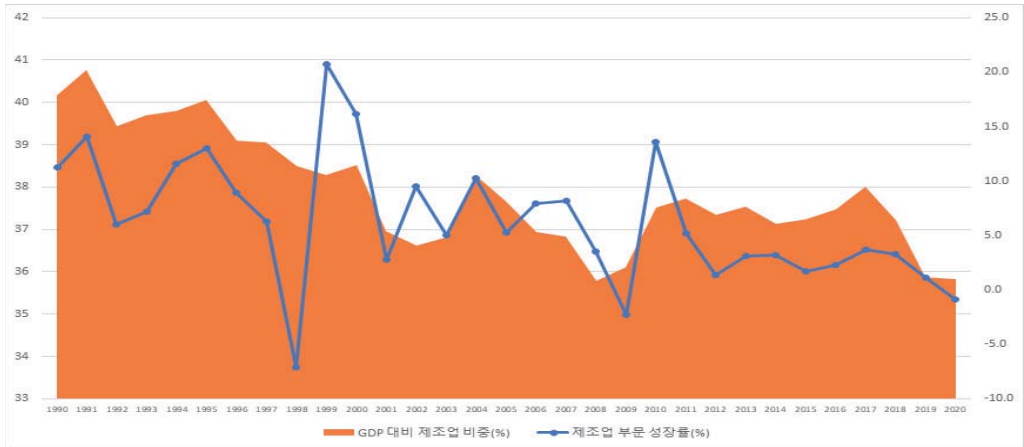
□ 연구배경 및 목적

- 최근, 미·중 무역분쟁,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본격화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의 가속화 전망
 -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 리쇼어링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은 수출유발효과와 수입전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선별적인 정책 추진 필요
- 국내에서 성장한계는 뚜렷하나 해외진출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LH 해외산업단지에 입주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함께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한 한국과 중점협력국가 간의 개발협력 방안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는 일정 부분 국내투자 및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
- 따라서 향후 제조업의 성장한계를 고려할 때 해외진출이 바람직한 기업 및 업종은 그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이들 기업이 이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함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분석, 중점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간 연계를 통해 LH의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모색하였음

□ 제조업 부문 산업현황 및 해외진출현황

- 한국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전통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기술개발 투자, 고급 기술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으로 구조적 변화를 겪음
 -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 성장률도 1999년(20.7%) 정점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

[GDP 대비 제조업 비중과 제조업 성장률 추이(1990~2020)]



- 제조업 부문의 질적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부가가치율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의약·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 고위기술산업군에서는 증가 추세
-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현황으로 우선,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부문 현지 신규법인수는 총 34,510개로 조사되었으며, 2006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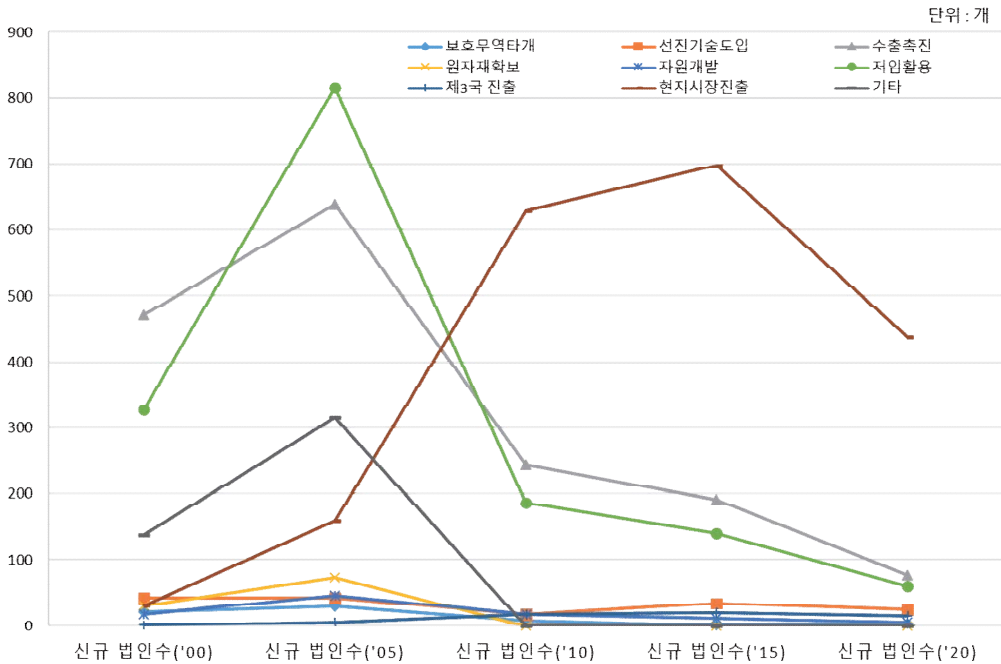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현황(신규법인수)]

(단위: 개)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평균 증가건수			
	'00	'05	'10	'15	'20	'90~'20	'00~'05	'06~'10	'11~'15	'16~'20
제조업	1,078	2,122	1,120	1,095	623	34,510	208.8	-200.4	-5.0	-94.4

- 제조업 업종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30년 동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가장 많은 신규법인(5,510개)이 진출, 다음으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832개)'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214개)'이 뒤를 잇고 있음
- 신규법인수와는 달리, 동기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은 총 176,823백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지난 30년간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 목적을 살펴보면,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한 신규법인이 9,78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지시장 진출(9,526개), 저임활용(9,15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투자목적별 신규법인수]



-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한국 제조업 부문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중국으로 신규법인수 약 1.8만 개에 달하며, 다음으로는 베트남(4,217개), 미국(2,948개), 인도네시아(1,16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05년 이후 중국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베트남도 2010년대 이후 단기간 증가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
- 한편,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 필요성에 대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본 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부창출과 해당 산업의 발전 등 기본적인 효과부터 생산성 및 고용증가 등 국내 경제에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 다만, 경쟁우위 산업이 국내에 충분한 투자기회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해외투자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

□ 글로벌 산업구조·공급망 변화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산과정을 분절화하여 제품기획, 제조, 유통에 이르는 과정이 세계 각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으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확장세가 둔화되기 시작
-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상황에서
- 코로나19의 대유행은 각국 정부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생산시설 폐쇄, 지역봉쇄 조치에 따른 산업활동 마비로 인한 물적·인적교류 위축,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을 초래
- 미·중 갈등,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피해도 우려
-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중 85.5% 이상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였고, 그 중 물류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국내기업대상 공급망 문제 관련 설문조사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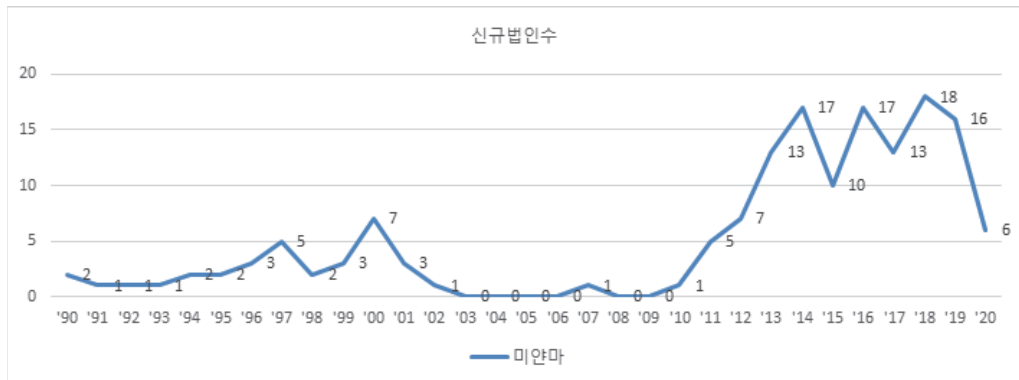
- 한편, 글로벌 생산거점 중 하나인 중국을 비롯하여 신흥국의 임금 상승, 중국에서의 외국기업 인센티브 철회,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에서 누렸던 각종 혜택을 다수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
- 이에 기업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보다 저렴한 곳으로의 이동, 거대 소비시장 역내로 이동, 본국으로의 회귀를 고민
- 중국·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 정부에서는 공급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리쇼어링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전개

-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3D프린터, 스마트 팩토리 등이 도입되면서 제품의 생산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생산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산기지의 중요요소는 인건비에서 판매전략 위 주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이는 곧 생산거점의 이동으로 나타나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은 악화될 것으로 예측

□ 중점국가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제조업 투자유치 분야

- 미얀마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한국에서 미얀마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157개이며, 201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미얀마)]



- 2020년 기준으로 미얀마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52개가 진출해있으며, 이들을 제조업 중분류별로 세분해 보면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25건으로 절반 정도 차지
-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2021년 국가 비상사태 이후 투자유치 실적이 악화되자 2021년 11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서는 농업, 식품가공업과 자급자족체계 구축을 위한 제조업, 그 외에 전기차 및 헬스케어 산업이 포함된 8대 투자유치 우선순위 분야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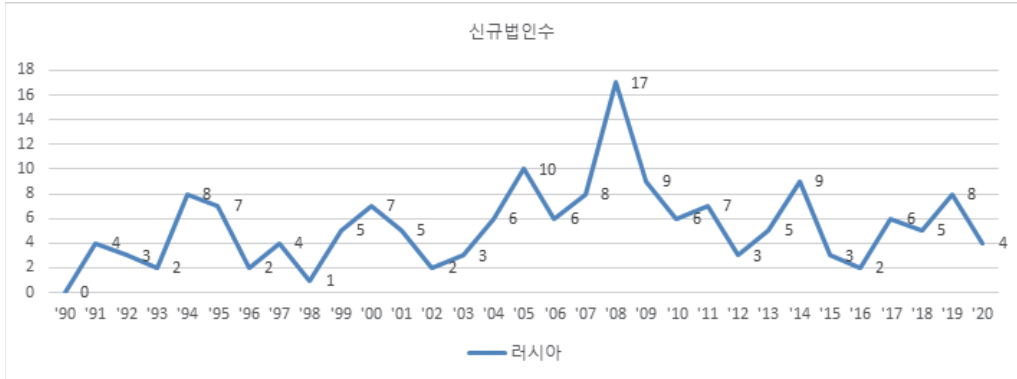
- 베트남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4,219개이며, 201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대폭 증가하다가
최근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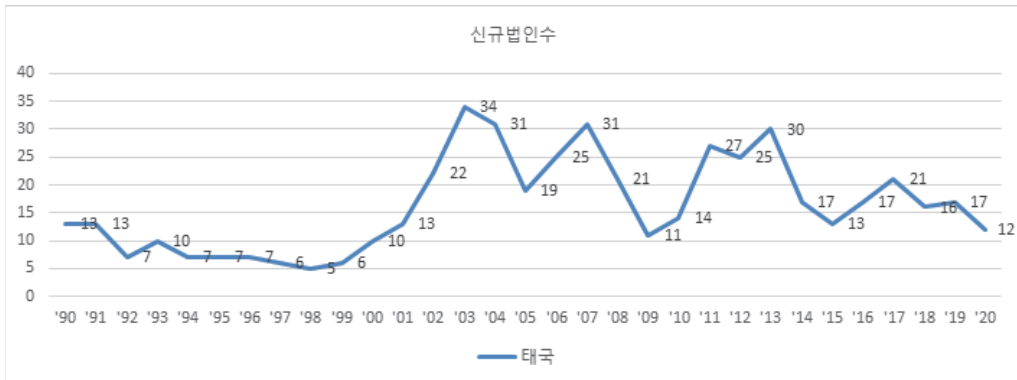
- 2020년 기준으로 베트남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1,320개가 진출해있으며, 제
조업 중분류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33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
-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2020년 개정된 베트남 투자법에서는 인센
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첨단기술,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기술들을 포
함하여 전자제품,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
- 러시아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한국에서 러시아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167개이며,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18개가 진출해있으며, 제조
업 중분류로는 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
레일러 제조업 등에 진출
-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연해주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산업은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제작 산업, 탄화수소의 운송 및 처리,
관광 여행, 농업·어류 가공·양식업, 주택건설·건축자재 생산, 고급 교통 프로
젝트(고속도로, 고속철도, 지역항공) 등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러시아)]



- 태국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한국에서 태국으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507개이며,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최근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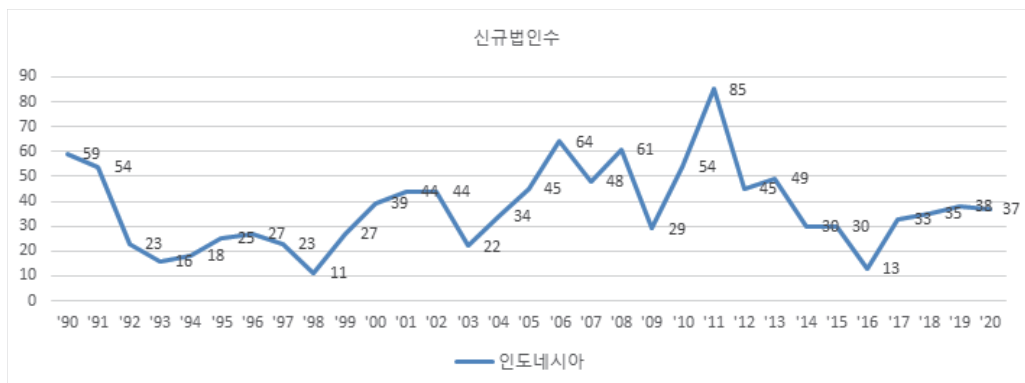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태국)]



- 2020년 기준으로 태국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66개가 진출해있으며, 제조업 중분류로는 전기장비 제조업(11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0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0건)에 주로 진출
-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Thailand 4.0의 일환으로 1, 2, 3차산업 전반에 ICT를 접목·육성을 위해 단·중기적으로 자동차, 전자, 의료 및 관광, 농업, 식품 등 5개 산업을 육성하는 First S-Curve를 구상하고,

- 장기적으로 디지털, 로봇, 바이오 및 화학, 의료허브, 항공 및 물류, 방산, 교육 등 7개 산업군의 신규 육성을 추진하는 New S-Curve를 구상하고 있으며, 상기 12대 미래산업에 투자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1,162개이며,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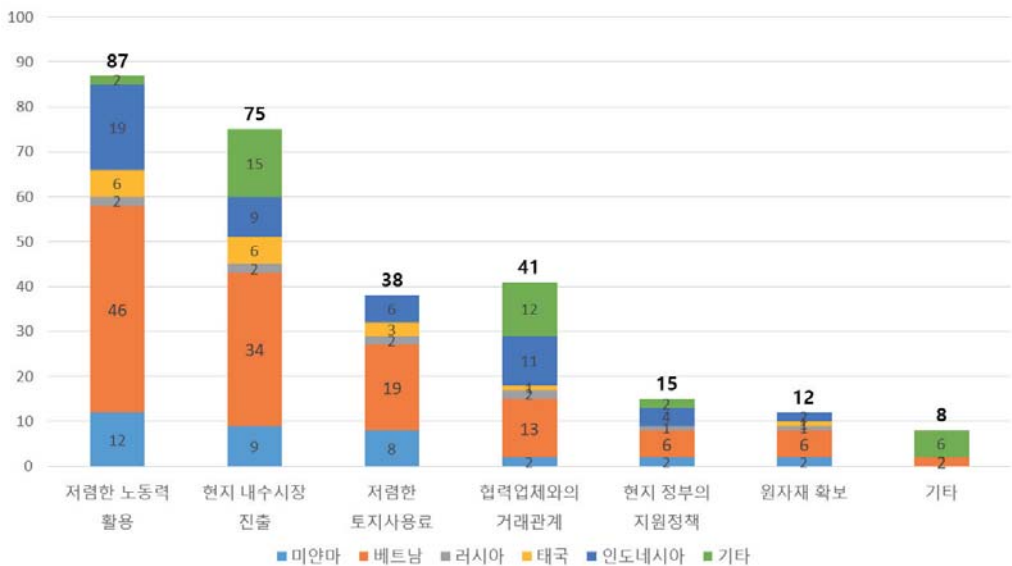
- 2020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191개가 진출해있으며, 제조업 중분류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6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3건), 섬유제품 제조업(21건)에 주로 진출
-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음료, 섬유 및 봉제, 자동차, 화학, 전자의 5대 중점분야 제조업 육성을 통한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차원의 산업 로드맵인 Making Indonesia 4.0을 발표하여 해당 부문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의향 및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

- L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단지에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해외이전 및 확장 의향이 있는 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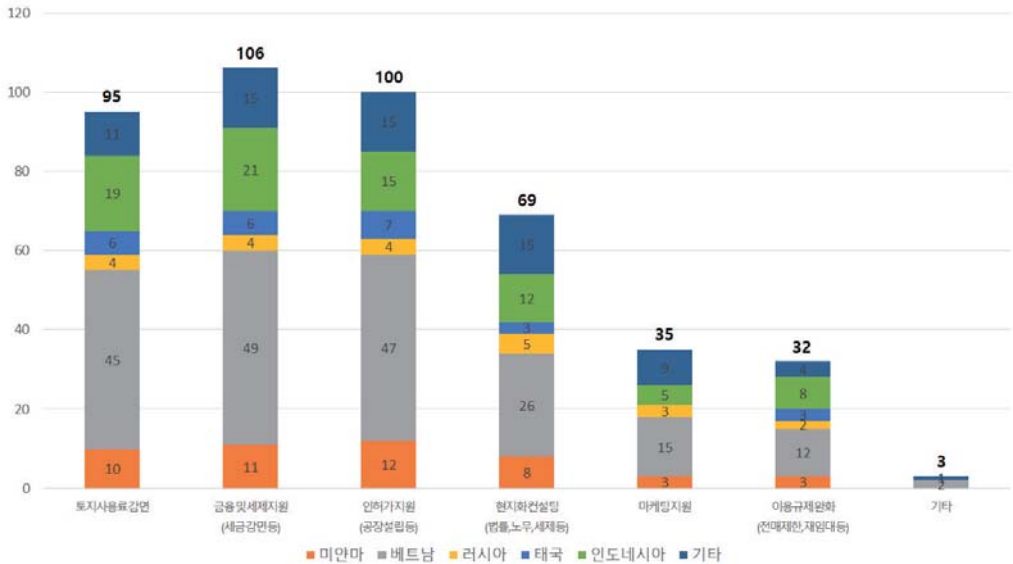
- 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진출대상 국가로는 '베트남'이 68개 업체(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27개 업체), 미얀마(15개 업체), 태국(9개 업체), 러시아(6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해외이전 또는 확장을 원하는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87건(5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75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41건), 저렴한 토지사용료(38건) 등으로 응답

[해외 이전 또는 확장하려는 이유(복수응답)]



-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형태는 '현지 공장신설'이 115개 업체(75.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국내공장 이전(12개 업체), 국외공장 이전 또는 확장(9개 업체) 순으로 나타남
- 해외산업단지 입주형태는 '토지분양 또는 50년 장기임대'에 대한 수요가 70개 업체(4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임대형 공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47개, 10년 미만 단기임대를 희망하는 업체가 23개로 조사
- 한편, 입주시 선호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세금감면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이 10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장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 지원(100건), 토지사용료 감면(95건), 법률·노무·세제 등 현지화 컨설팅(69건) 순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선호 인센티브(복수응답)]



- 입주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인프라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전력’이 117개 업체(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물류시설(83개 업체), 통신(66개 업체) 등으로 나타남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희망업종과 진출국가의 유치업종 및 기진출한 업종간 연계를 고려한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으로 ①기진출 업종과의 연계, ②고위 및 중고위산업 관련 기업진출 지원, ③미진출 업종 진출시 정부 지원방안 마련, ④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유치분야 진출, ⑤국가별 특화전략 도출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모색
- 첫째, 기진출 업종과의 연계방안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업 업종이 기진출해 있음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업종 외에 다양한 업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특히, 전자 및 섬유 등과 같은 전통업종을 중심으로 유치함으로써 기진출한 업체들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음
- 둘째, 중점대상국들은 저위기술 뿐만 아니라 고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유치 또한 희망하고 있어 고위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희망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필요

- 셋째, 미얀마와 러시아처럼 해당 국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진출 경험이 없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진출하고자 할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넷째, 최근 많은 국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이 기술적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업 부문에 대한 진출을 도모하고,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로 대표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분야의 진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
- 다섯째, 이상으로 살펴본 중점국가별 특성을 바탕으로 L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단지의 국가별 특화전략을 다음과 같이 도출

[중점국가별 해외산업단지 특화전략]

구분	주요업종	전략
미얀마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첨단장비 등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
	• 1차 금속 제조업	• 오염방지시설 구비
	• 식품품 제조업	• 식품관련 물류시설 구비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가구 제조업	• 유사 업종간 상호 연계방안 마련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기진출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유사 업종간 상호 연계방안 마련)
베트남	• 고위 산업군	• 첨단장비 등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
	• 유관 산업군	•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내 용지 블록화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계획 및 물류시설 조성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진출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진출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함께 입주시킴으로서 상호연계 도모 •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계획 및 물류시설 조성
러시아	• 식품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식품관련 물류시설 구비 •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내 용지 블록화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내 용지 블록화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
태국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처리시설 및 산업재해 예방시설 구비

인도네시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계획 및 물류시설 조성
	• 식품품 제조업	• 식품관련 물류시설 구비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진출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화학물질 처리시설 및 산업재해 예방시설 구비 •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계획 및 물류시설 조성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정책 및 지원방안

- 정부에서 시행 중인 해외진출지원제도를 소개하는 '경제외교 활용포털'에서는 해외 진출지원사업을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신성장분야 해외진출 지원, 해외투자 진출 지원, 무역·투자 금융 지원,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해외 취·창업 지원, 해외 진출 애로해소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
- 각 지원사업은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법무부, 외교부, 해외건설협회 등의 전문기관이 맡아 추진 중
- 현재 경제외교 활용포털에는 총 142개의 해외진출지원사업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 중 46개 사업이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
- 46개 사업은 분야에 따라 교육, 금융, 법률, 인력, 인증, 정보제공, 컨설팅, 행정, 인프라, 종합지원, 기타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 3곳과 정부산하기관 등 총 14개 기관에서 각 지원사업을 담당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지원사업]

구분		지원사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교육	해외 취·창업 지원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 온·오프라인 마케팅, 외환금융, Biz 외국어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연수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KOTRA
금융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지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차관조건을 우대해주고 전용차관제도 운영	한국수출입은행
	무역·투자 금융 지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환위험 관리 보험(환변동 보험)	국내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외화금액을 원화로 사전에 확정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기술보증기금 한국무역보험공사

		이행성 보증 및 채무 보증 지원	수출 및 수주에 필요한 이행성 보증과 채무보증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위험을 경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기업 혹은 해외 현지법인에게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
		해외투자보험 (투자금융)	국내외 금융기관이 해외 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이행성보증서(AP, P, Bid, W Bond 등)를 발행한 금융기관이 입계 될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보험공사
		전대금융 활용	해외 현지은행을 통해 한국기업의 수출수입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진출	해외투자진출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설명회 개최, 해외 법령 정보 제공등을 지원	법무부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해외진출(예정) 중소기업의 콘텐츠 및 파생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해외 진출 K-브랜드 피해 예방,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지재권 분쟁과 관련된 애로 해결을 지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해외 11개국 17개 IP-DESK에서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확보, 보호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KOTRA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IP-DESK 미소재 국가)	IP-DESK가 소재하지 않는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지재권 보호 강화를 지원	KOTRA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재권 보호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공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진출 애로해소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및 해외 현지 사업 운영과정에서 겪는 법적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현지 법률 자문을 제공	외교부
인력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K-Move 센터 운영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해외 무역관에 K-Move 센터를 설치, 운영	KOTRA
	해외취.창업 지원	해외취업 월드잡플러스(WorldJob+)	해외진출 정보, 해외취업연수, 알선 등 구직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외국기업 해외진출기업 등 한국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구인기업과 한국 구직 청년 간의 1:1 면접 기회를 제공	KOTRA
		해외취업 연수지원 (K-Move 스쿨)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거쳐 해외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취업초기 현지 적응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민간 해외취업 알선 지원	국외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취업 알선기관이 알선을 진행할 때의 알선수수료를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증	해외진출 애로해소	인증표준 정보지원센터(1381)	국내외 인증표준에 대한 상담부터 획득까지 기업이 필요한 인증표준 정보 제공 및 상담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등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환경표지(마크) 해외인증 지원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해외의 환경표지(마크)를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정보 제공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경제외교 활용포털	경제외교 관련 정보 제공	KOTRA
		무역투자 종합정보	KOTRA 해외시장 뉴스, 트레이드 내비	한국무역 협회 /KOTRA
		해외시장 조사	해외무역을 통해 해외 잠재 파트너를 발굴하고 시장 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KOTRA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빅데이터 기반 품목별 유망시장 추천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가 HS코드 6단위 기준 해외 유망 시장을 추천하고, 국가별 수출입 통계정보를 제공	KOTRA
		빅데이터 기반 잠재 파트너 추천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기반으로 KOTRA가 확보한 해외기업DB를 통해 국내기업과 품목 연관도가 높은 잠재 파트너 정보를 제공	KOTRA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법인 설립 지원	해외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알선	KOTRA
컨설팅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무역투자 상담	무역투자상담센터(Trade Doctor), 이동 KOTRA, TradeSOS 무역실무·무역어로 상담	한국무역 협회 /KOTRA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투자 진출 컨설팅	국가별·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들이 해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한국수출입 은행 /KOTRA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KOTRA
행정	해외진출 애로해소	해외 통관애로 해소	수출입 기업의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 통관애로 해결을 지원	관세청
인프라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KOTRA 해외무역관이 물류인프라를 지원	KOTRA
종합 지원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컨퍼런스 참가, 글로벌 기업 연계, 디지털 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KOTRA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화주·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투자 진출 지원	글로벌 M&A 지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 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 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M&A를 지원	KOTRA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진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DNA 분야 융합 제품·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해외 현지 조인트벤처 설립·운영을 지원	본투글로벌 센터
		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ICT 분야 혁신기술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본투글로벌 센터
기타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KOTRA 해외무역관이 개별 기업의 해외 세일즈 및 해외투자 환경조사를 위한 현지출장 활동을 지원	KOTRA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외국어 통번역 지원	중소 수출업체가 원활하게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국 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한국무역 협회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17개 국가에 24개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	KOTRA

<출처 : 경제외교 활용포털(<https://president.globalwindow.org>)>

- LH 해외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①해외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② 진출 희망기업 수요를 반영한 해외산업단지 계획 수립, ③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④(가칭)해외산단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⑤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출 희망기업 홍보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
- 첫째,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
 - KIND,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금융·인프라·산업단지운영 전문 공공기관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축
 - 이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입주기업 지원 가능
- 둘째, 해외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특성과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터플랜에 반영함으로써 수요 맞춤형 해외산업단지를 조성
 - 이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 및 인접 국가에 기진출한 기업들을 포함하여 입주의향과 지원사항 등을 조사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수요도 확보하고, 기진출 기업들과 신규 진출희망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
- 셋째, 「경제외교 활용포털」을 통해 다양한 해외진출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의 제공처가 너무 산재되어 있고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 역시 상이함에 따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활용하는데 어려움
 - LH 차원에서 민간기업이 해외진출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부터 특정 국가로 진출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통일된 채

널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구득 가능

- 넷째,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원활한 해외이전 과정뿐만 아니라 진출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
 - 이를 위해 해외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들의 운영·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며, 「(가칭)해외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
 -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 및 행정절차 지원, 국내외 금융 및 보증 지원, 현지화 및 법제도 관련 전문 컨설팅, 현지 전문 인력풀 제공 등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
 - 이와 더불어 워크센터와 회의실,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사례]



- 다섯째,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자체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
 - 이에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다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필요
 - 초청 연수 프로그램에 국내의 선진 산업단지를 견학하고 더불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홍보 프로그램을 추가·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도움

□ 해외진출기업 이전부지 활용사례 및 활용방안

- 우선,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사례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등을 살펴봄
- 첫째,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노후산업단지 내 공장이전 또는 유희부지에 정부예산을 미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민관 공동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사업
 - 2021년 12월 말까지 55개 사업에 정부예산 약 8천 6백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4조 6천억 원의 민간투자 유치
 - 환경개선펀드를 통해 건축된 주요 건축시설은 지식산업센터, 호텔·컨벤션, 업종 집적화시설, 복합문화센터, 오피스텔, 근로자주택, 업무시설, 저장시설 등

[환경개선펀드 활용 사례(대구 성서산단)]



- 둘째,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휴폐업 공장 등을 매입하여 재개발하고, 이를 창업·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사업
 - 지원규모는 1개 센터 당 최대 70억 원이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소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음
 - 리모델링 유형은 일반공장과 지식산업센터이며, 유치업종은 일반공장의 경우 기계조립, 금속가공,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전기전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례(경북 왜관산업단)]



- 셋째,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은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
 - 공공은 산업단지 내 용도별 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지원을 통해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민간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 민간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휴폐업공장,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
 - 2021년 말까지 총 38개 사업에 2조 7천억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주요 건축물은 지식산업센터, 근로자주택(기숙사), 오피스텔, 연구시설, 문화·컨벤션시설 등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사례(인천 남동공단)]



- 다음으로,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 이전부지 입지와 분포 유형에 따라 ‘도심입자군집’, ‘외곽입자군집’, ‘도심입자분산’, ‘외곽입자분산’ 등 네 가지 유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음

[이전부지 입지 및 분포에 따른 활용방안]



- 첫째, ‘도심입자-군집’ 유형의 경우, 기업 이전부지가 군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산업단지 활성화구역사업 추진
 -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면적의 1/2 이상 확보가 필요하며, LH는 협의매수 및 토지 비축 또는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토지확보 가능
 -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LH는 산업단지재생리츠 등의 사업방식을 활용하여 이전부지를 개발함으로써 사업리스크를 저감하고 분산할 수 있는 장점
- 둘째, ‘외곽입자-군집’ 유형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시행에 참여하기보다는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정부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
 - 노후산업단지 내에서 이전부지 또는 휴·폐업부지가 군집하여 다수 발생할 경우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될 경우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받을 수 있음
 - LH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 이전부지가 ‘산업단지 상상허브’ 등 정부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모

- 사업에 선정되면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LH가 직접 사업에 참여
- 셋째, ‘도심입자-분산’ 유형의 경우, 재생사업지구를 통해 면적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
 - 도심입지 기업 이전부지에 대해 LH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민간주도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민간 또는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고도화 대행사업과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가능
 - 위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해외 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을 가점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외곽입자-분산’ 유형의 경우, LH는 기업 이전부지가 정부의 다양한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역할을 수행
 - 이 유형에 적용가능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이전기업의 부지를 지자체에서 매입할 수 있음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해외 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을 가점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주제어 산업구조, 글로벌 가치사슬, 해외산업단지, 추진전략

차 례

제1장 서 론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2.1 연구범위	4
2.2 연구방법	5
제2장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11
1. 제조업 부문 산업현황 및 해외진출현황	11
1.1 제조업 부문 산업현황	11
1.2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현황	15
1.3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필요성	23
2. 글로벌 산업구조공급망 변화 및 주요국 정책현황	26
2.1 글로벌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공급망 변화	26
2.2 여건 변화에 따른 리쇼어링 대두	30
2.3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및 현황	33
제3장 중점국가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제조업 투자유치 분야	47
1. 중점국가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	47
1.1 미얀마	47
1.2 베트남	51
1.3 러시아	54
1.4 태국	57
1.5 인도네시아	60

2. 중점국가별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	64
2.1 미얀마	64
2.2 베트남	65
2.3 러시아	68
2.4 태국	70
2.5 인도네시아	72

제4장 여건변화에 따른 LH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 77

1.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의 해외진출 의향	77
1.1 노후산업단지 현황	77
1.2 설문조사 개요	81
1.3 설문조사 결과	82
1.4 유사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99
2. 중점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간 연계	104
2.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희망업종	104
2.2 해외진출 희망업종의 중점국가별 연계방안	109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113
3.1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113
3.2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	119
4. 해외진출기업 이전부지 활용방안	125
4.1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 활용사례	125
4.2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 활용방안	132

제5장 결 론..... 141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141
2. 향후 연구과제	150

참고문헌	155
------------	-----

부 록	161
-----------	-----

1. 설문지	161
2. 제조업 세부 업종별 해외이전 또는 확장 이유	165

표 차례

[표 2-1] 제조업 부문 종사자수 추이(2000~2019)	13
[표 2-2]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현황(신규법인수)	15
[표 2-3] 제조업 중분류별 해외투자현황(신규법인수)	16
[표 2-4]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현황(투자금액)	17
[표 2-5] 제조업 중분류별 해외투자현황(투자금액)	17
[표 2-6]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목적별 신규법인수 및 투자금액	18
[표 2-7]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투자금액	20
[표 2-8]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해외투자목적	20
[표 2-9] 제조업 부문 국가별 해외투자현황(신규법인수)	21
[표 2-10] 제조업 부문 국가별 해외투자현황(투자금액)	22
[표 2-11] 행정명령 이후 1년 간 6개 주요부문 성과	29
[표 2-12]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을 위한 청사진' 주요 내용	34
[표 2-13]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생겨난 미국 내 기업과 일자리수	35
[표 2-14] 유럽국가의 리쇼어링 패턴 구분	37
[표 2-15]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법」 상 기업지원 내용	39
[표 2-16] 유턴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제도	41
[표 2-17] 한국 유턴기업의 복귀지역	43
[표 3-1] 미얀마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규법인수)	47
[표 3-2] 미얀마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투자금액)	48
[표 3-3] 미얀마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고건수)	49
[표 3-4]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수록항목(KOTRA)	50
[표 3-5] 미얀마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진출형태)	50
[표 3-6] 미얀마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투자형태)	51

[표 3-7] 베트남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규법인수)	51
[표 3-8] 베트남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투자금액)	52
[표 3-9] 베트남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고건수)	53
[표 3-10] 베트남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진출형태)	54
[표 3-11] 베트남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투자형태)	54
[표 3-12] 러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규법인수)	54
[표 3-13] 러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투자금액)	55
[표 3-14] 러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고건수)	56
[표 3-15] 러시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진출형태)	57
[표 3-16] 러시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투자형태)	57
[표 3-17] 태국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규법인수)	57
[표 3-18] 태국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투자금액)	58
[표 3-19] 태국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고건수)	59
[표 3-20] 태국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진출형태)	60
[표 3-21] 태국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투자형태)	60
[표 3-22]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규법인수)	60
[표 3-23]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투자금액)	61
[표 3-24]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고건수)	62
[표 3-25]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진출형태)	63
[표 3-26]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투자형태)	63
[표 3-27] 미얀마 제조업 부문 주요 투자유치 분야	64
[표 3-28] 미얀마 8대 투자유치 우선순위 분야	65
[표 3-29] Decision 879/QD-TTg에 의거한 우선순위 산업	65
[표 3-30] 베트남의 FDI 기업 시기별 전략 유치산업(2018-2030)	66
[표 3-31] 베트남 투자법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 분야	67
[표 3-32] 베트남 성별 산업단지 프로젝트 주요 투자유치 분야	68
[표 3-33] OKVED 경제활동유형 분류코드에 따른 사업분야	69

[표 3-34] 태국 12대 미래산업	71
[표 3-35] 태국 주요 투자유치 분야	71
[표 3-36] 인도네시아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	72
[표 3-37]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내용 및 유망산업	73
[표 4-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현황	77
[표 4-2] 2021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현황	78
[표 4-3]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현황	79
[표 4-4] LH 참여 노후산업단지의 일반 현황	79
[표 4-5] LH 참여 노후산업단지의 구역별 면적 현황	80
[표 4-6] LH 참여 노후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	80
[표 4-7]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82
[표 4-8] 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지역	83
[표 4-9] 해외 이전 또는 확장하려는 이유(복수응답)	84
[표 4-10] 이전 또는 확장 희망 시기	86
[표 4-11] 이전 또는 확장 희망 형태	87
[표 4-12] 해외 이전 또는 확장 필요 토지면적	88
[표 4-13] 국가별업종별 평균 필요 토지면적	90
[표 4-14] 희망하는 해외산업단지 입주형태	91
[표 4-15] 선호하는 인센티브(복수응답)	93
[표 4-16] 해외산업단지 입주 중요 산업인프라(1순위)	94
[표 4-17] 해외산업단지 입주 중요 산업인프라(1+2순위)	95
[표 4-18] 국내복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 이유(복수응답)	96
[표 4-19] 희망하는 국내복귀 유형	97
[표 4-20] 희망하는 국내복귀 지역	97
[표 4-21] 국내복귀시 필요한 지원정책(1순위)	98
[표 4-22] 국내복귀시 필요한 지원정책(1+2+3순위)	99
[표 4-23]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사항(1+2순위)	100

[표 4-24]	해외투자 실태 및 계획	102
[표 4-25]	투자희망 대상국 비중	102
[표 4-26]	미얀마 해외진출 희망업종 매칭 결과	104
[표 4-27]	베트남 해외진출 희망업종 매칭 결과	105
[표 4-28]	러시아 해외진출 희망업종 매칭 결과	106
[표 4-29]	태국 해외진출 희망업종 매칭 결과	107
[표 4-30]	인도네시아 해외진출 희망업종 매칭 결과	108
[표 4-31]	중점국가별 해외산업단지 특화전략	112
[표 4-32]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지원사업	113
[표 4-33]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초기 아파트형 공장	126
[표 4-34]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유형	128
[표 4-35]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현황('19~'21)	129
[표 4-36]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유형	130
[표 4-37]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대상지	131
[표 4-38]	부처별 기업 이전부지 활용 지원사업	133
[표 4-39]	산업단지재생리츠 참여자별 역할	136
[표 4-40]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공모사업 가점항목 개선	138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	7
[그림 2-1] GDP 대비 제조업 비중과 제조업 성장률 추이(1990~2020)	11
[그림 2-2] 제조업 부문 사업체수 추이(1993~2019)	12
[그림 2-3] 제조업 산업군별 사업체수 비중(2019년)	12
[그림 2-4] 제조업 산업군별 부가가치율 추이(1991~2019)	14
[그림 2-5] 제조업 산업군별 매출액 추이(1991~2019)	14
[그림 2-6]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목적별 투자현황(2000~2020)	19
[그림 2-7] 경제협력협약체별 참여국 현황	27
[그림 2-8] 글로벌 공급망 리더 대상 공급망 탄력성 설문조사 결과	28
[그림 2-9] 국내기업대상 공급망 문제 관련 설문조사 주요내용	30
[그림 2-10] 신흥국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GVC의 변화	31
[그림 2-11] 중국 제조업 부문 임금 상승과 생산성의 증가	32
[그림 2-12] 미국 리쇼어링 지수	36
[그림 2-13] 유럽 국가의 리쇼어링 현황(2014~2018)	38
[그림 2-14] 유럽 국가의 제조업 부문 리쇼어링 현황과 일자리 창출	38
[그림 2-15] 한국의 리쇼어링 현황(2020년 8월 기준)	42
[그림 3-1]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미얀마)	47
[그림 3-2]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 추세(미얀마)	48
[그림 3-3] 2020년 제조업 중분류별 신고건수 현황(미얀마)	49
[그림 3-4]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베트남)	51
[그림 3-5]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 추세(베트남)	52
[그림 3-6] 2020년 제조업 중분류별 신고건수 현황(베트남)	53
[그림 3-7]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러시아)	55

[그림 3-8]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 추세(러시아)	55
[그림 3-9] 2020년 제조업 중분류별 신고건수 현황(러시아)	56
[그림 3-10]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태국)	58
[그림 3-11]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 추세(태국)	58
[그림 3-12] 2020년 제조업 중분류별 신고건수 현황(태국)	59
[그림 3-13]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인도네시아)	61
[그림 3-14]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 추세(인도네시아)	61
[그림 3-15] 2020년 제조업 중분류별 신고건수 현황(인도네시아)	62
[그림 4-1] LH 참여 노후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비중 현황	81
[그림 4-2] 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지역	83
[그림 4-3] 해외 이전 또는 확장하려는 이유(복수응답)	84
[그림 4-4] 세부 업종별 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지역	85
[그림 4-5] 이전 또는 확장 희망 시기	86
[그림 4-6] 이전 또는 확장 희망 형태	86
[그림 4-7] 국가별 필요한	88
[그림 4-8] 이전 또는 확장시 필요한	88
[그림 4-9] 세부 업종별 필요 토지면적(평)	89
[그림 4-10] 희망하는 해외산업단지 입주형태	91
[그림 4-11]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선호 인센티브(복수응답)	92
[그림 4-12]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중요 산업인프라 (1순위)	94
[그림 4-13]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중요 산업인프라 (1+2순위)	94
[그림 4-14] 국내복귀 또는	96
[그림 4-15] 국내복귀 또는 타 지역으로	96
[그림 4-16] 희망하는 국내복귀 유형	97
[그림 4-17] 희망하는 국내복귀 지역	97
[그림 4-18] 국내복귀시 필요한 지원정책(1순위)	98
[그림 4-19] 국내복귀시 필요한 지원정책	98

[그림 4-20]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사항(1+2순위)	99
[그림 4-21]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101
[그림 4-22] 기업규모별 해외투자 사유	103
[그림 4-23] 한-미안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Team Korea 구성	120
[그림 4-24]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예시	122
[그림 4-25]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사례	124
[그림 4-26] 구로공단(서울디지털산업단지) 변화 모습	125
[그림 4-27]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초기 아파트형공장 사례	126
[그림 4-28]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구조	127
[그림 4-29] 환경개선펀드 활용 사례(대구 성서산단)	128
[그림 4-30]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례(경북 왜관산단)	129
[그림 4-31]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130
[그림 4-32]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사례(인천 남동공단)	131
[그림 4-33]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조감도 사례	132
[그림 4-34] 이전부지 입지 및 분포에 따른 활용방안 구상	133
[그림 4-35] 이전부지 입지 및 분포에 따른 활용방안	135
[그림 4-36] 서대구일반산단 활성화구역 산업단지재생리츠 개발 사례	132
[그림 4-37]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범부처 지원패키지	132

제 1 장 서 론

LAND
HOUSING
INSTITUTE

&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전체 GDP에서 제조업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약 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부가가치율은 2000년 이후 40% 이하로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위기술산업군을 제외한 중고위기술산업군·중저위기술산업군·저위기술산업군의 부가가치율은 점차 감소 국면을 보인다.

제조업은 과거 한국의 고도경제성장을 견인하였으나 최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점차 하락하고 있어, 제조업을 위시한 산업공동화 우려에 대한 현실화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글로벌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ESG 경영 등 최근의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산업구조 변화로 국내 제조업 부문의 성장기여도는 현재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미·중 무역분쟁,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도입 본격화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재편의 가속화가 전망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기업의 U턴을 지원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도 2020년에 U턴법 개정으로 리쇼어링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 리쇼어링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은 수출유발효과와 수입전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선별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진출 희망기업과 업종을 조사하여, 해외진출이 적합한 기업을 대상으로 그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리쇼어링 일변도의 정책 추진보다는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경제 재구조화를 연계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LH는 글로벌 생산거점 마련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

하기 위해 해외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과 운영을 추진 중인데, 특히 한국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싼남방국기를 중심으로 생산거점 다원화를 위한 신규 국가 및 지역의 산업단지개발을 추진 중이다. 현재 추진 또는 검토 중인 해외산업단지 중 사업진행 단계 3개¹⁾ 사업지구와 타당성검토 단계 3개²⁾ 사업지구에서 정부간협력(G2G)에 기반한 해외사업의 가시적인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전술한 것처럼 국내에서의 성장한계는 뚜렷하나 해외진출시 성장이 기대되는 적합 업종의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L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단지에 입주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에 대응한 한국과 중점협력국가 간의 개발협력 방안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는 일정 부분 국내투자 및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제조업의 성장한계를 고려할 때 해외진출이 바람직한 기업 및 업종은 그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이들 기업이 이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중점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간 연계를 모색하며, 이를 토대로 LH의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2.1 연구범위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크게 1)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분석, 2) 중점국가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제조업 유치분야 분석, 3) 여건변화에 따른 LH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 수립으로 구분된다. 각 부문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1) 베트남 흥옌성 경제협력 산업단지 1단계,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러시아 연해주 경제협력 산업단지
 - 2) 베트남 흥옌성 경제협력 산업단지 2단계·후옌성 쩌마이랑코 경제구역, 인도네시아 브카시 산업도시

1)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분석

- 제조업 부문 산업현황 및 해외진출현황
 - 제조업 부문 산업현황 및 해외진출현황,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필요성
- 글로벌 산업구조 · 공급망 변화 및 주요국 정책현황
 - 글로벌 산업구조 및 공급망 변화,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및 현황

2) 중점국가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제조업 투자유치 분야 분석

- 중점국가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
 -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내 한국기업 진출현황
- 중점국가별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
 -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

3) 여건변화에 따른 LH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 수립

-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의 해외진출 의향
 - 노후산업단지 현황, 설문조사 개요 및 결과
- 중점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간 연계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희망업종, 해외진출 희망업종의 중점국가별 연계방안
-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
- 해외진출기업 이전부지 활용방안
 -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 활용사례,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 활용방안

2.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고찰,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상세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

업구조 변화와 중점국가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제조업 투자유치 분야 등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LH 해외산업단지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1) 유관기관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검토를 통한 기초 분석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해외건설협회(해외건설종합정보시스템), 산업연구원(산업통계분석시스템),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해외직접투자통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의 연구발간물 및 통계자료 수집을 통해 국내 제조업 부문 전망,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 및 리쇼어링 현황 등을 검토·분석한다.

2) 중점국가 산업정책 담당부처 및 국제기구를 통한 상세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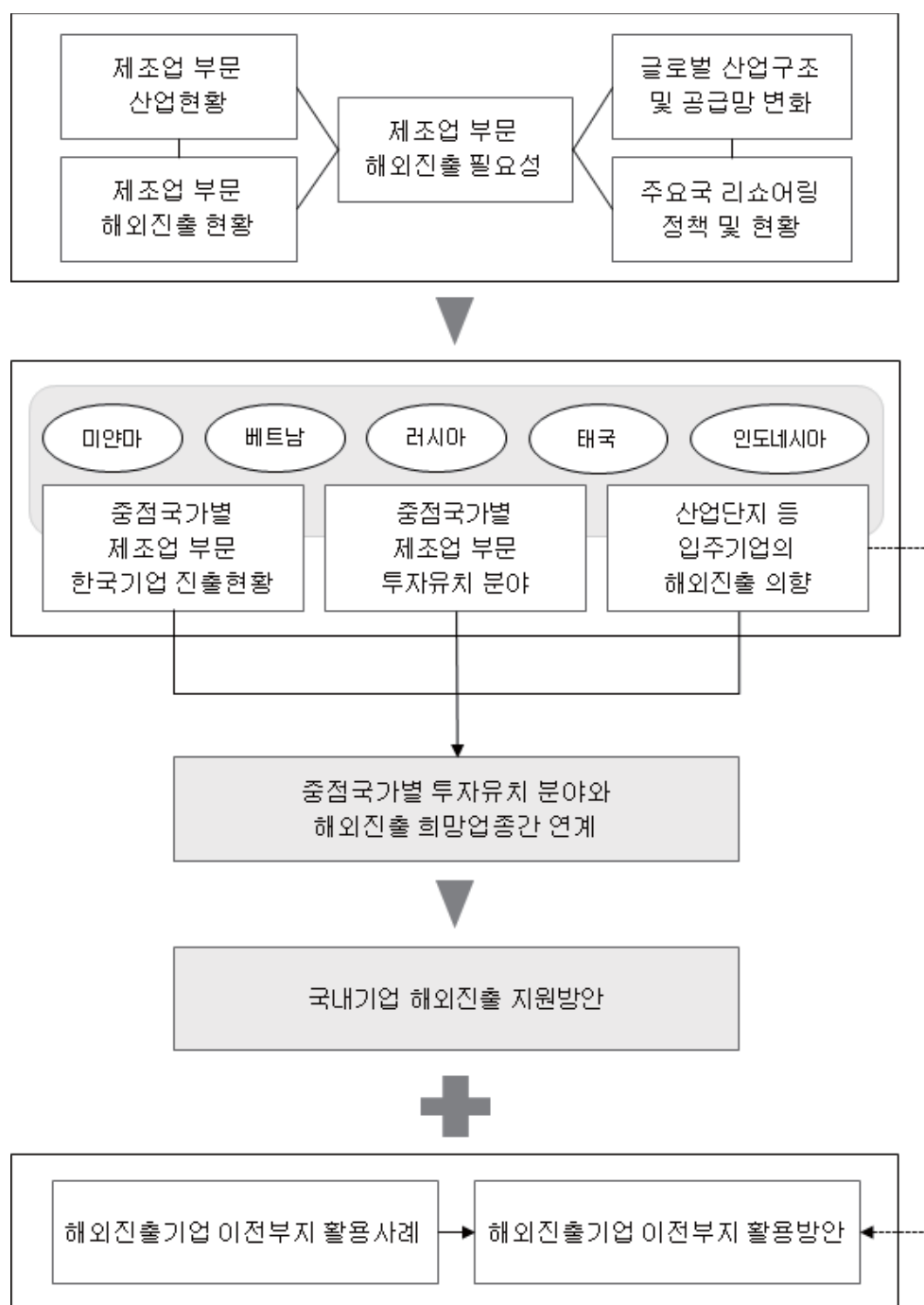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 및 경제·산업 관련 국제기구(세계은행, OECD, IMF, UNCTAD, UNIDO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리쇼어링 정책,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동향 등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LH의 해외산업단지 중점대상국가(베트남, 미얀마,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의 제조업 부문 주요 투자유치 분야를 조사한다.

3) 국내외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지원 분야 전문가 대상 의견청취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외건설협회, KIND, 국토연구원 등 국내 유관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등 향후의 산업구조 변화, 중점국가별 해외진출 적합업종 도출방안,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4)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해외진출 희망업종 도출 및 LH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요구사항,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정책지원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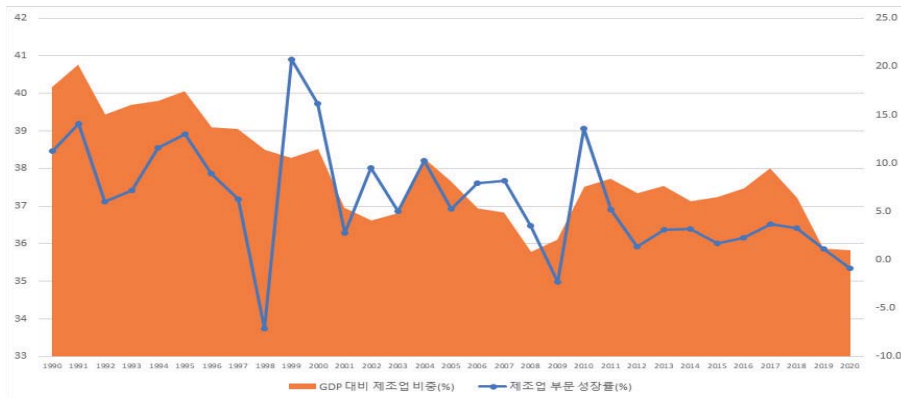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제2장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1. 제조업 부문 산업현황 및 해외진출현황

1.1 제조업 부문 산업현황

한국의 제조업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경제 및 산업구조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전통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기술개발 투자,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산업(고위기술산업군)이 성장하게 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른바 제조업 부문의 탈제조업화(deindustrialization)가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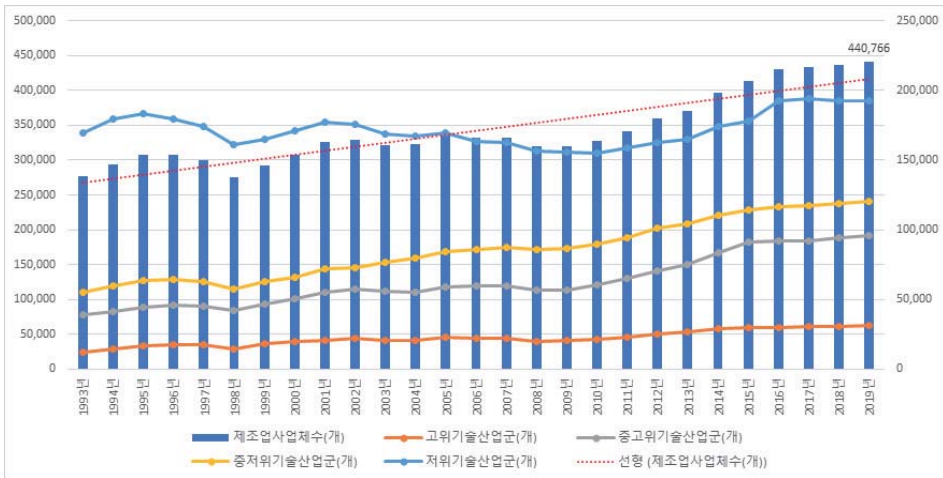


[그림 2-1] GDP 대비 제조업 비중과 제조업 성장률 추이(1990~2020)

<출처 : 통계청, ISTANS(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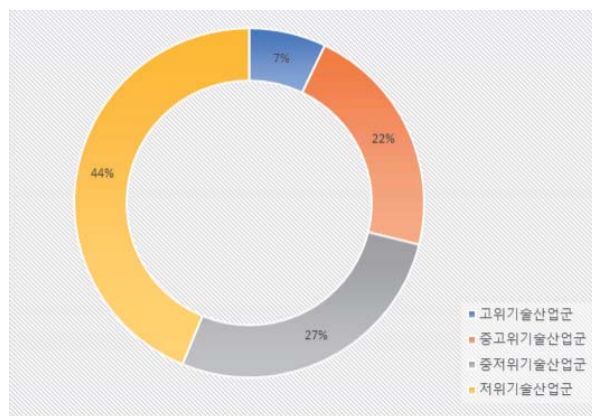
이러한 현상은 산업 관련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그림 2-1]과 같이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 성장률도 1999년

(20.7%) 정점 이후 하락과 반등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한편, 2019년 기준 1인 이상 제조업 부문 사업체수는 약 44만 개로 통계가 제공되는 1993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음식료, 담배, 섬유, 의류제조 등 저위기술산업군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제조업 부문 사업체 중 대부분이 저위기술산업군 및 중저위기술산업군(석유정제, 고무, 플라스틱, 시멘트, 철강 등)이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 제조업 부문 사업체수 추이(1993~2019)

<출처 : ISTANS(산업연구원)>



[그림 2-3] 제조업 산업군별 사업체수 비중(2019년)

<출처 : ISTANS(산업연구원)>

2019년 기준 제조업 부문 종사자수는 약 412만 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약 2,819만 명의 1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2-1]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제조업 부문 종사자수의 비율은 13~14%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제조업 부문 종사자수 추이(2000~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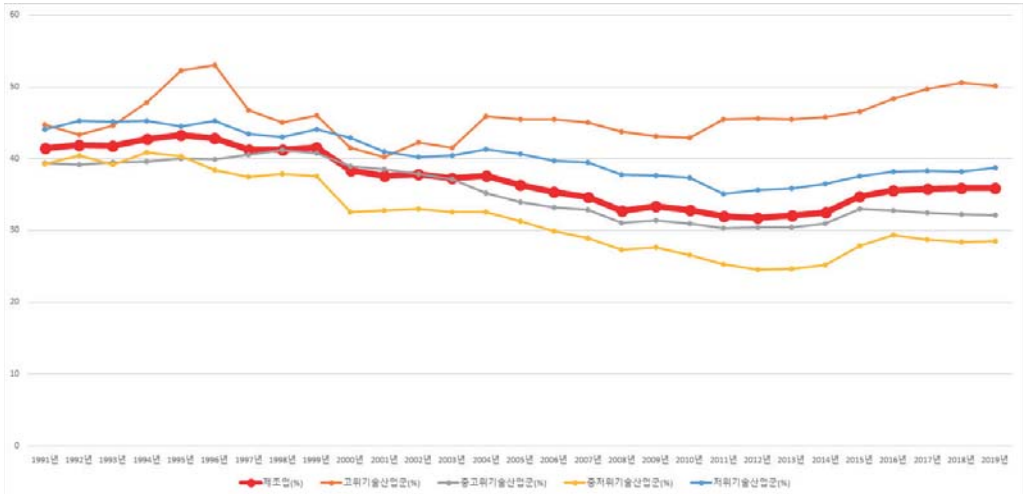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경제활동인구 (천명)	22,151	22,511	22,982	23,043	23,544	23,718	24,024	24,351	24,551	24,582
제조업 부문 종사자(천명)	3,260	3,339	3,314	3,334	3,348	3,385	3,341	3,335	3,277	3,269
비율(%)	14.7	14.8	14.4	14.5	14.2	14.3	13.9	13.7	13.3	13.3
구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경제활동인구 (천명)	24,956	25,389	25,781	26,108	26,836	27,153	27,418	27,748	27,895	28,186
제조업 부문 종사자(천명)	3,418	3,587	3,715	3,802	3,957	4,043	4,097	4,104	4,106	4,123
비율(%)	13.7	14.1	14.4	14.6	14.7	14.9	14.9	14.8	14.7	14.6

<출처 : 통계청, ISTANS(산업연구원)>

한편, 제조업 부문의 질적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부가가치와 매출액 추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총생산액 대비 부가가치의 비율을 의미하는 부가가치율을 살펴보면, [그림 2-4]에 보는 바와 같이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의약,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등을 포함한 고위기술산업군의 부가가치율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인 제조업의 부가가치는 고위기술산업군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군과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고위기술산업군의 부가가치 증대방안을 통해 전체적인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상승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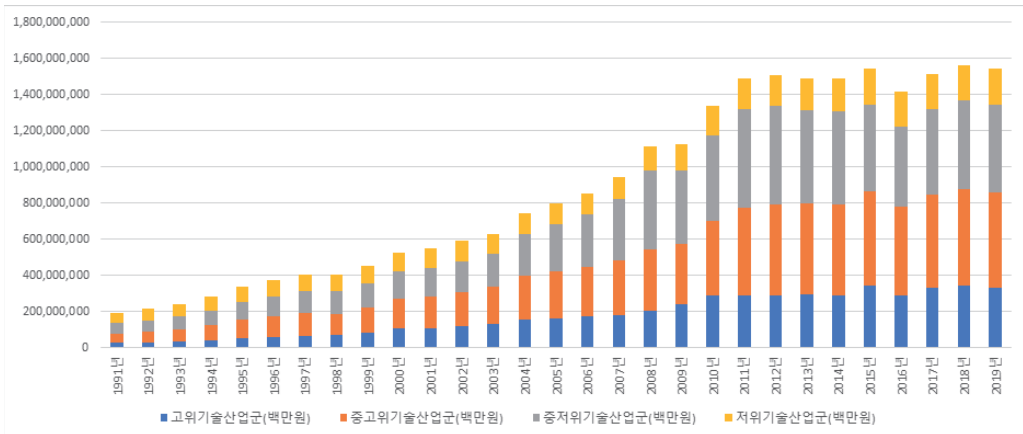
다음으로 매출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제조업 부문 매출액은 약 1,542조 원으로 2010년대 이후 정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와 비교하면 제조업 부문이 급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5 참조). 이러한 제조업 부문의 매출성장은 전통적 강세 분야인 석유화학 및 정제, 자동차, 철강분야가 포함된 중고위기술산업군 및 중저위기술산업군이 주도하고 있는데, 이들 산업군은 전체 매출액의 각각 34.0%와 3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제조업 분야인 고위기술산업군도 비약

적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2018년에는 약 347조 원을 기록하여 역대 최대 매출실적을 기록한 바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제조업 부문 전체 매출액의 21.7%인 약 335조 원을 기록하였다.



[그림 2-4] 제조업 산업군별 부가가치율 추이(1991~2019)

<출처 : ISTANS(산업연구원)>



[그림 2-5] 제조업 산업군별 매출액 추이(1991~2019)

<출처 : ISTANS(산업연구원)>

1.2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현황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현황은 현지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등의 지표로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 현황으로는 투자목적별 현황, 주투자자규모별(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등) 현황, 국가별 현황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신규법인수 및 투자금액 현황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부문 현지 신규법인수는 총 34,510개로, 2000년~2005년 기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신규법인수는 연평균 약 20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6년 2,264개를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 이전보다 절반 수준의 신규법인수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대 들어서는 평균 약 1,000여 개의 신규법인이 설립되었다.

[표 2-2]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현황(신규법인수)

(단위: 개)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평균 증가건수			
	'00	'05	'10	'15	'20	'90~'20	'00~'05	'06~'10	'11~'15	'16~'20
제조업	1,078	2,122	1,120	1,095	623	34,510	208.8	-200.4	-5.0	-94.4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이를 세분화하여 업종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3]과 같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신규법인수를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가장 많은 신규법인(5,510개)이 진출하였으며,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832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214개)’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은 2006년~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44.8개가 감소하는 등 다른 업종에 비해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표 2-3] 제조업 중분류별 해외투자현황(신규법인수)

(단위: 개)

제조업 중분류	신규법인수						평균증가건수				
	'00	'05	'10	'15	'20	'90 ~ '20	'00 ~ '05	'06 ~ '10	'11 ~ '15	'16 ~ '20	
합계	1,078	2,122	1,120	1,095	623	34,510	208.8	-200.4	-5.0	-94.4	
1차 금속 제조업	29	41	42	32	10	922	2.4	0.2	-2.0	-4.4	
가구 제조업	8	41	7	7	4	432	6.6	-6.8	-	-0.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53	47	32	20	11	911	-1.2	-3.0	-2.4	-1.8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	53	47	72	35	1,166	9.0	-1.2	5.0	-7.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54	100	65	57	30	1,869	9.2	-7.0	-1.6	-5.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6	172	139	145	94	3,214	25.2	-6.6	1.2	-10.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	8	18	7	9	335	-0.2	2.0	-2.2	0.4	
기타 제품 제조업	144	145	53	40	11	2,312	0.2	-18.4	-2.6	-5.8	
담배 제조업	1	1	1	-	-	11	-	-	-0.2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21	30	8	3	2	480	1.8	-4.4	-1.0	-0.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8	50	20	9	15	836	6.4	-6.0	-2.2	1.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2	4	2	74	-	0.4	0.4	-0.4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48	133	51	39	23	1,946	17.0	-16.4	-2.4	-3.2	
식료품 제조업	77	153	40	30	15	1,912	15.2	-22.6	-2.0	-3.0	
음료 제조업	-	5	4	3	2	62	1.0	-0.2	-0.2	-0.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8	67	47	57	42	1,334	5.8	-4.0	2.0	-3.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5	18	21	29	27	416	0.6	0.6	1.6	-0.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86	302	78	62	18	3,832	23.2	-44.8	-3.2	-8.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	10	6	4	4	201	1.4	-0.8	-0.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	130	82	118	56	2,209	21.0	-9.6	7.2	-12.4	
전기장비 제조업	24	94	76	81	50	1,579	14.0	-3.6	1.0	-6.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90	330	199	185	100	5,510	28.0	-26.2	-2.8	-17.0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	3	7	4	0	113	0.2	0.8	-0.6	-0.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9	21	15	8	2	411	2.4	-1.2	-1.4	-1.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0	168	60	79	61	2,423	19.6	-21.6	3.8	-3.6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다음으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은 총 176,823 백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3년 남유럽발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현지법인 투자금액은 대폭 감소했지만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현황(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업종대분류	투자금액						평균 증가건수				
	'00	'05	'10	'15	'20	'90~'20	'00~'05	'06~'10	'11~'15	'16~'20	
제조업	1,641	4,208	7,672	7,837	12,987	176,823	515	693	34	1,027	

<출처: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표 2-5] 제조업 중분류별 해외투자현황(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제조업 중분류	투자금액						평균증가건수				
	'00	'05	'10	'15	'20	'90 ~ '20	'00 ~ '05	'06 ~ '10	'11 ~ '15	'16 ~ '20	
합계	1,641	4,208	7,672	7,837	12,987	176,823	515	693	34	1,027	
1차 금속 제조업	110	405	442	574	621	12,358	59	7	26	9	
가구 제조업	2	14	11	8	70	508	3	-1	-1	1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3	110	90	141	199	2,689	15	-4	10	1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2	200	401	294	691	7,361	34	40	-21	79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99	125	157	187	354	5,461	5	6	6	3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1	136	457	616	387	8,920	17	64	32	-46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1	72	239	121	73	6,007	10	33	-24	-10	
기타 제품 제조업	81	78	116	84	45	2,930	0	8	-6	-8	
담배 제조업	0	0	71	1	0	473	0	14	-14	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7	10	96	16	18	593	1	17	-16	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82	124	131	49	141	2,855	-12	2	-16	18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1	1	2	32	-	0	0	0	
섬유제품 제조업 ; 의복제외	63	184	192	115	230	4,680	24	2	-15	23	
식품 제조업	65	190	162	277	576	8,040	25	-6	23	60	
음료 제조업	-	28	125	37	53	1,251	6	19	-18	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60	53	252	204	2,560	6	-1	40	-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7	26	35	178	441	2,439	2	2	29	5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93	241	179	329	307	5,770	30	-12	30	-5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	8	4	2	10	134	2	-1	0	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	927	805	1,940	2,046	28,268	183	-24	227	21	
전기장비 제조업	33	114	238	534	2,377	12,215	16	25	59	36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48	936	1,786	1,239	3,110	43,980	98	170	-109	374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	10	174	22	2	933	2	33	-30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4	10	39	31	27	698	-1	6	-2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248	200	1,668	789	1,003	15,668	-10	294	-176	43	

<출처: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이를 세분화하여 업종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표 2-5]와 같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현지법인 투자금액을 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43,980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28,268백만 달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15,668백만 달러)', '1차 금속 제조업(12,358백만 달러)'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2) 투자목적별기업규모별 투자현황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부문 투자목적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30년간의 신규법인수 기준 투자목적은 살펴보면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한 신규법인이 9,78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지시장 진출(9,526개), 저임활용(9,154개)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투자금액 기준 투자목적은 살펴보면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약 798억 달러로 가장 높았으며, 수출촉진(약 393억 달러), 저임활용(약 178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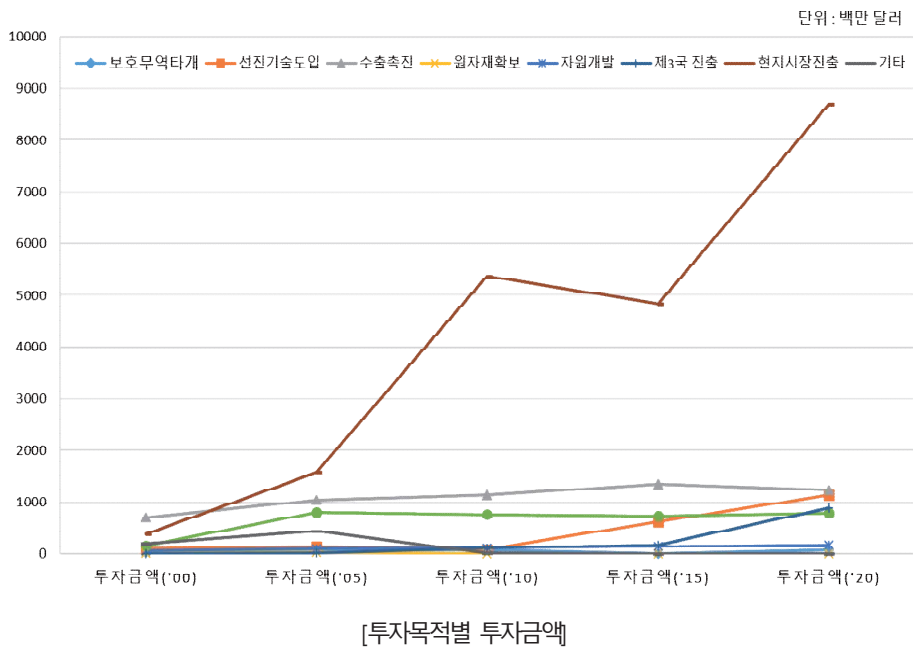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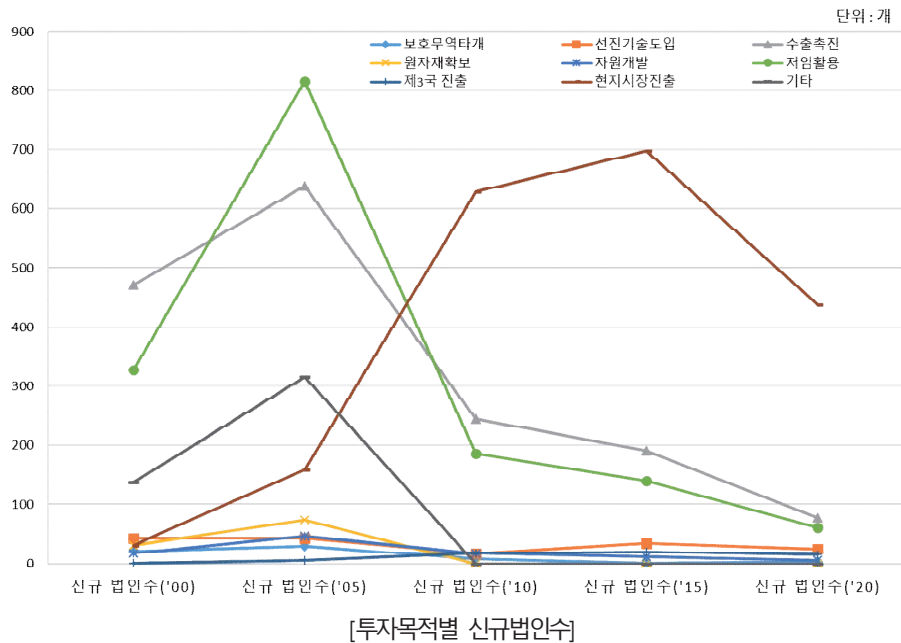
이와 같은 투자목적별 투자현황을 종합하면, 한국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은 개발도상국 등 저임활용이 가능한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촉진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후술할 국가별 투자현황과 연관된다.

[표 2-6]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목적별 신규법인수 및 투자금액

(단위: 개, 백만 달러)

구분	'00		'05		'10		'15		'20		'90~'20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합계	1,078	1,643	2,122	4,211	1,120	7,671	1,095	7,839	623	12,986	33,887	163,837
보호무역타개	21	26	29	76	8	67	1	5	3	78	426	1,883
선진기술도입	42	98	42	144	18	91	34	618	25	1,132	782	10,454
수출촉진	471	696	638	1,036	244	1,135	191	1,345	77	1,234	9,786	39,294
원자재확보	31	18	73	32	-	2	-	-	-	-	659	462
자원개발	18	60	46	95	17	117	11	136	5	168	911	2,941
저임활용	327	159	815	807	186	760	140	725	60	789	9,154	17,843
제3국 진출	1	3	5	10	18	117	20	174	15	887	264	7,518
현지시장진출	30	386	159	1,578	629	5,365	698	4,835	438	8,697	9,526	79,802
기타	137	197	315	433	-	17	-	-	-	1	2,379	3,640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2-6]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목적별 투자현황(2000~2020)

<출처: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다음으로 기업규모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투자금액 기준 투자현황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를 보였으나 개인기업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비영리단체 등 기타기업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7]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투자금액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투자금액					
	'00	'05	'10	'15	'20	'90~'20
합계	1,643	4,209	7,671	7,838	12,987	176,733
대기업	1,132	2,796	6,190	5,797	10,262	133,209
중소기업	454	1,148	1,326	1,777	2,501	38,772
개인기업	12	84	26	16	11	807
개인	45	181	106	106	89	2,894
기타(비영리단체등)	-	-	23	142	124	1,051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이와 연계하여 2020년 기준 기업규모별 투자목적은 살펴보면,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개인 모두 현지시장 진출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새로운 시장개척을 목적으로 한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8] 참조).

[표 2-8] 제조업 부문 기업규모별 해외투자목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기업		개인		기타 (비영리단체등)		합계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신규 법인수	투자 금액
합계	95	10,262	400	2,501	13	11	111	89	4	124	623	12,987
보호무역타개	2	69	1	9	-	-	-	-	-	-	3	78
선진기술도입	8	912	11	205	-	-	4	6	2	9	25	1,132
수출촉진	7	721	60	502	3	1	7	10	-	-	77	1,234
원자재확보	-	-	-	-	-	-	-	-	-	-	-	-
자원개발	-	153	3	14	-	-	2	2	-	-	5	169
저임활용	9	372	37	404	2	1	12	12	-	-	60	789
제3국 진출	4	604	7	171	-	-	3	0	1	112	15	887
현지시장진출	65	7,431	281	1,195	8	9	83	59	1	3	438	8,697
기타	-	-	-	1	-	-	-	-	-	-	-	1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3) 국가별 해외진출현황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한국 제조업 부문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중국으로, 신규법인수는 약 1.8만 개에 이르렀다. 그 다음으로는 베트남(4,217개), 미국(2,948개), 인도네시아(1,163개)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이들 상위 4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신규법인수 1천 개 이하로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4개국을 제외한 16개국 중 일본, 필리핀, 홍콩, 인도, 태국이 약 500~700여 개로 차상위 그룹을 형성하였고, 말레이시아, 멕시코, 독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은 300여 개 이하로 하위그룹에 속해 있다.

[표 2-9] 제조업 부문 국가별 해외투자현황(신규법인수)

(단위 : 개)

순위	국가	지역	신규법인수						평균증가건수				
			'00	'05	'10	'15	'20	'90~'20	'00~'05	'06~'10	'11~'15	'16~'20	
1	중국	아시아	680	1,539	492	329	111	18,438	171.8	-209.4	-32.6	-43.6	
2	베트남	아시아	24	137	114	348	179	4,217	22.6	-4.6	46.8	-33.8	
3	미국	북미	160	115	130	97	91	2,948	-9	3	-6.6	-1.2	
4	인도네시아	아시아	39	45	54	30	37	1,163	1.2	1.8	-4.8	1.4	
5	일본	아시아	20	25	44	37	15	742	1	3.8	-1.4	-4.4	
6	필리핀	아시아	14	16	23	8	3	724	0.4	1.4	-3	-1	
7	홍콩	아시아	18	26	35	17	7	667	1.6	1.8	-3	-1	
8	인도	아시아	3	23	22	23	36	643	4	-0.2	0.2	2.6	
9	태국	아시아	10	19	14	13	12	507	1.8	-1	-0.2	-0.2	
10	말레이시아	아시아	11	11	8	10	8	342	-	-0.6	0.4	-0.4	
11	멕시코	중남미	7	7	8	41	8	253	-	0.2	6.6	-6.6	
12	독일	유럽	6	3	9	12	5	204	-0.6	1.2	0.3	-1.4	
13	캄보디아	아시아	1	11	10	7	3	200	2	-0.2	-0.6	-0.8	
14	방글라데시	아시아	3	3	9	4	2	191	-	1.2	-1	-0.4	
15	러시아	유럽	7	10	6	3	4	167	0.6	-0.8	-0.6	0.2	
16	대만	아시아	4	16	7	6	5	160	2.4	-1.8	-0.2	-0.2	
17	캐나다	북미	6	7	6	9	4	142	0.2	-0.2	0.6	-1	
18	오스트레일리아	대양주	4	5	6	3	4	133	0.2	0.2	-0.6	0.2	
19	스리랑카	아시아	6	4	1	2	1	116	-0.4	-0.6	0.2	-0.2	
20	영국	유럽	2	7	6	3	3	112	1	-0.2	-0.6	-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기간별로 살펴보면, 2000년~2005년 기간 동안 중국으로의 진출은 연평균 약 172개로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고, 다음으로 베트남으로의 진출이 연평균 약 23개로,

2000년 이후에는 중국, 베트남 등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저임활용을 기대할 수 있는 인접국가로의 진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중국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베트남도 2010년대 이후 단기간 증가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0년간 현지법인 투자금액 기준으로, 중국으로의 투자금액은 약 606억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약 257억 달러), 베트남(약 172억 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20년간(2000년~2020년) 투자금액 증감추세는 '16년부터 '20년까지 중국과 미국이 각각 연평균 320억 달러, 294억 달러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는 2000년 이후 투자금액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표 2-10] 제조업 부문 국가별 해외투자현황(투자금액)

(단위 : 백만 달러)

순위	국가	지역	투자금액							평균증가액				
			'00	'05	'10	'15	'20	'90~'20	'00~'05	'06~'10	'11~'15	'16~'20		
1	중국	아시아	593	2,353	2,828	2,399	4,001	60,646	352	95	85.9	320.5		
2	미국	북미	566	460	464	876	2,348	25,728	-21.2	0.8	82.4	294.4		
3	베트남	아시아	34	191	476	1,149	1,725	17,234	31.4	56.9	134.8	115		
4	홍콩	아시아	36	189	555	138	387	7,587	30.5	73.3	-83.5	49.9		
5	인도네시아	아시아	74	90	185	259	573	6,053	3.3	18.9	14.8	62.7		
6	인도	아시아	8	82	155	231	377	5,649	14.9	14.6	15.2	29.1		
7	멕시코	중남미	11	26	39	905	143	3,188	3	2.6	173.3	-152.5		
8	말레이시아	아시아	3	7	1,356	38	31	3,058	0.9	269.7	-263.5	-1.4		
9	필리핀	아시아	61	22	154	41	68	3,023	-7.9	26.4	-22.6	5.5		
10	독일	유럽	3	4	11	154	261	2,126	0.4	1.3	28.6	21.3		
11	태국	아시아	21	47	33	67	56	1,724	5.2	-2.7	6.7	-2.1		
12	러시아	유럽	3	20	302	59	32	1,621	3.5	56.4	-48.5	-5.4		
13	일본	아시아	8	13	34	383	62	1,569	0.9	4.2	69.7	-64.2		
14	영국	유럽	16	8	88	48	31	1,302	-1.6	16.1	-8	-3.4		
15	캐나다	북미	9	2	23	67	78	1,130	-1.3	4.2	8.9	2.2		
16	오스트레일리아	대양주	23	43	5	17	195	867	4.1	-7.6	2.5	35.6		
17	캄보디아	아시아	1	11	16	11	11	460	2.1	1	-1.1	-0.1		
18	대만	아시아	5	52	8	31	2	368	9.3	-8.7	4.6	-5.7		
19	방글라데시	아시아	2	2	8	4	23	283	0.1	1.2	-0.9	3.8		
20	스리랑카	아시아	2	1	0.3	0.3	0	152	-0.2	-0.2	-	-0.1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1.3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필요성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이를 우회하기 위해 시장규모가 큰 국가에 진출하여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통산업의 쇠퇴와 새로운 고부가 산업의 등장에 따라 시장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고부가 산업의 경우 수요자에 대한 시장 접근성이 더욱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환경 하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원가절감, 해외시장 개척 등을 위해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생존 전략으로 해외진출을 통해 해외에서는 생산 및 원자재 조달을 담당하고, 국내기업은 R&D, 디자인, 시제품 생산 등의 고부가 가치 체제로 재편하는 산업 구조조정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2006년 12월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해외진출의 경제적 효과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유동성의 과잉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휴자본의 이동에 따른 자본생산성 제고, 비용절감에 따른 제조업·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자본의 유입 없이 해외진출만 가속화 되는 경우에는 자본공급 부족으로 인한 국내 금융체계에의 타격과 국내 일자리 감소 및 임금 불평등 문제, 국내 산업공동화 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의 해외진출시 예상되는 국내 경제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아직 부족한 단계로,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기본적으로 산업·경제적 측면에서 국부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며, 특히 산업경쟁력을 상실하거나 국내 사업여건상 투자를 줄이고 경제적 자원을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비교열위 분야의 해외투자는 국내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해외진출 희망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집적시키는 것은 입지적 측면에서 볼 때 개별입지 보다 기업 상호간 시너지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측면에서 해외진출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산업공동화를 촉진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오히려 국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경우가 다수 관측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자동차 산업은 1980년대 이후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선진국에 생산거점을 이전했는데 이는 일본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영체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 일본의 자동차 수출은 오히려 확대된 사례가 있다. 또한, 2005년 미국 국립경제조사국(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에서 1982년~1999년 동안 2천여 개의 미국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직접투자와 국내 경제활동에 대한 상관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외투자가 10% 증가할 때 국내투자는 2.2%, 고용비용은 4.0% 증가했으며, 현지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국내 모기업의 수출 및 R&D가 5.0% 증가하는 등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경제활동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Mankiw and Swagel(2006)³⁾은 오프쇼어링(Off-shoring)에 대한 기존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 해외 아웃소싱은 특정분야에서 부분적으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고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하며, 해외 아웃소싱은 일반적인 국제무역과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해외 아웃소싱이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4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해외투자가 국내 모기업에 미친 영향은 국내생산 확대가 36.9%로 국내생산 축소 또는 중단(21.1%) 보다 높게 나타나 기업의 해외진출이 국내생산을 대체하기 보다는 동반상승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경희(2010)에 따르면, 오프쇼어링은 비효율적인 생산과정을 비교우위를 가진 해외 기지로 이전하여 잉여 자본과 인력을 보다 생산적인 산업 혹은 분야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와 해당 산업이나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오프쇼어링은 국내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와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근로자 학습효과 유발 등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3) Mankiw, N. Gregory and Phillip Swagel(2006),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Offshore Outsourcing』, NBER Working Paper.

이와 더불어 이재윤(2017)의 연구에 따르면, 2006년~2015년 동안의 기업활동조사 결과 중 종사자수 50인 이상의 제조업 분야 8,764개 기업을 대상으로 오프쇼어링의 생산성 효과를 추정한 결과, 오프쇼어링이 생산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모형에서는 오프쇼어링 비중이 1% 증가시 생산성이 최저 0.02%에서 최대 0.13%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오프쇼어링에 참여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0.18%~1.2%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오프쇼어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영향 정도를 나타냈으며, 타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외에, 실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한 「2018 해외진출 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출실적 조사에 응답한 현지법인(2,513개사)의 81%가 매출실적이 증가 또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국제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선전하여 국부창출에 기여했으며, 고용현황 조사에 응답한 현지법인(3,502개사)은 단순 생산직종에 대부분 현지인력을 채용(99%)하고 있었으며, 마케팅·상품개발 등 관리직종에서는 한국인 채용비중이 13%(12,200여명)로 다소 높은 편으로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현지법인 설립으로 국내 본사의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인 반면, 증가했다는 응답은 28%로 나타나 해외진출이 국내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부창출과 해당 산업의 발전 등 기본적인 효과부터 생산성 및 고용증가 등 국내 경제에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쟁우위 산업이 국내에 충분한 투자기회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해외투자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2. 글로벌 산업구조공급망 변화 및 주요국 정책현황

2.1 글로벌 여건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공급망 변화

1)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지역 블록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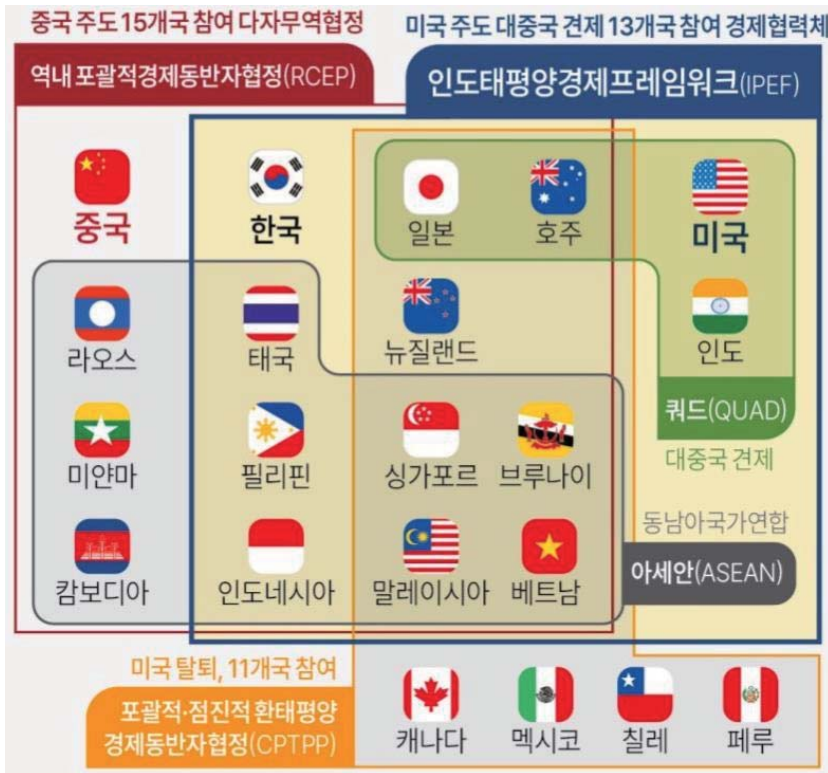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산과정을 분절화하여 제품기획, 제조, 유통에 이르는 과정이 세계 각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으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확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구양미, 2020).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을 통한 거대 경제권 형성의 움직임과 아시아권에서 탈중국을 통한 미국의 패권강화를 위한 여러 조치들이 나오면서 세계는 리스크 축소를 위해 기존의 국가 간 FTA협정을 넘어서 지역을 블록화하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등의 협의체 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CPTPP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관세 철폐와 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된 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탈퇴 선언 이후 2018년 호주·캐나다·일본을 위시한 11개국을 가입국으로 하여 출범하였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그 동안 누적된 대중무역 적자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덤핑법, 세이프가드 등 관세와 환율을 통해 중국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를 취함으로써 중국과의 마찰을 일으켰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불공정 무역을 비판하면서 규제 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시사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IPEF를 출범시켜 동맹국들과 함께하는 경제 안보를 강조하였다(민혁기 외, 2021). IPEF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 하나로 디지털 경제·탈탄소화·공급망 재구축 등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통상

현안들에 대해 전통적인 무역체제와는 다른 접근방식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새롭게 부상하는 통상 현안을 다루기 위한 클럽형 협의체이다(최정환, 2022). 한편, 2020년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간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세계 최대의 지역무역협정(RTA)인 RCEP을 체결하였는데, 중국은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영역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그림 2-7] 경제협력협의체별 참여국 현황

<출처 : 연합뉴스(2022년 5월 2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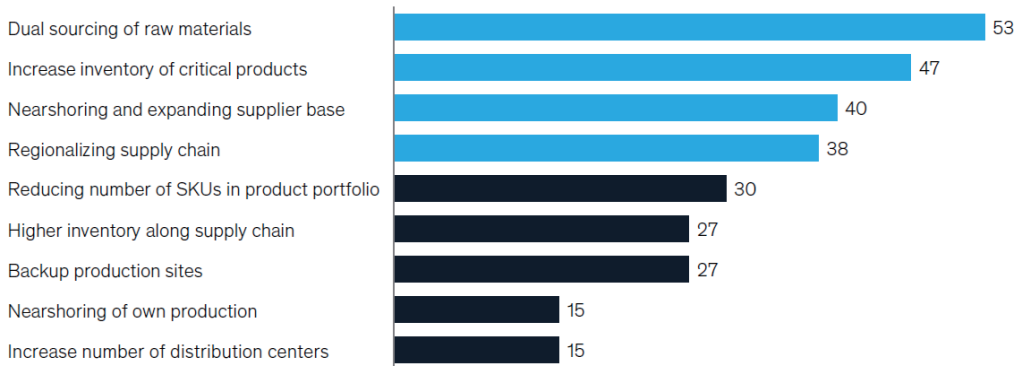
2)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요인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훼손

전술한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각국 정부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생산시설 폐쇄, 지역봉쇄 조치에 따른 산업활동 마비로 인한 물적·인적교류 위축,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을 초래하였다. 이와 더불어 코로

나19로 훼손된 공급망이 회복되기도 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류난·원자재 가격 폭등 등 생산과 교역 전반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예측하기 힘든 위협요인은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기업활동의 장기간 중단으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적 손실은 손상된 물리적 자산을 재건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위협으로부터 빠른 복구가 가능한 경쟁기업에 시장 점유율을 영구적으로 잃을 수 있는 추가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는 공급망 훼손으로 인한 예상 손실을 10년 간 평균 1년 EBITDA⁴⁾의 42%에 해당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기존의 ‘수요’ 문제로 발생하는 경제 위기와는 달리 ‘수요’와 ‘공급’ 충격을 동시에 발생시켰고, 이에 세계는 효율성 보다는 안정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블록단위의 가치사슬 재구축에 나서고 있다(강내영, 2021). 안정성 위주의 지역블록단위 가치사슬 재구축은 글로벌 공급망 리더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⁵⁾에서도 나타나는데, 글로벌 공급망 리더들은 과거 아웃소싱 위주의 전략 대신 원자재에 대한 이중 소싱(Dual sourcing), 주요 제품의 재고 증가, 니어쇼어링과 공급업체 기반확대, 공급망의 지역화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8] 글로벌 공급망 리더 대상 공급망 탄력성 설문조사 결과(2020년 5월 기준)

<출처 :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

4)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현금창출능력을 보여주는 수익성 지표로 Earnings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의 약어임

5) McKinsey Global Institute에서 2020년 5월에 수행한 설문조사로 글로벌 공급망 관련 605개사를 대상으로 함

3) 공급망 안정을 위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자유무역의 확산에 따라 미국 제조업은 적극적인 글로벌 공급망 전략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낮은 제조·생산부문은 해외이전과 아웃소싱이 증가하여 미국 내 생산기반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생산기반 약화와 코로나19 이후의 전략품목 공급망의 중요성이 안보와 결합되면서, 2021년 바이든 행정부는 4대 품목(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6대 산업(국방, 헬스·바이오, ICT, 에너지, 운송, 농식품)에 대한 미국의 산업 공급망 재점검을 위한 행정명령 14107을 발동하였다(이준외, 2021; 한국무역협회, 2022). 행정명령 이후 미국 정부는 6개 부문에서 투자와 지원을 통해 공급망 불안을 낮추는 성과가 있었으며, 공급망 강화를 위해 미국 자체 생산능력 강화와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 고급인력 양성과 동맹국과의 국제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GVC를 구축해야 한다고 분석하였다.

[표 2-11] 행정명령 이후 1년 간 6개 주요부문 성과

부 문	성 과
물류운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 및 롱비치 항구의 연중무휴 운영으로 물류 적체 해소 기여 · 임시 컨테이너 야드를 만들어 사바나 항의 물류 적체 해소 기여 등
음식 및 농산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 공급망 관련 용자 프로그램에 1억 달러 투자 · 육류와 가금류 공급망의 경쟁성, 공정성, 안정성 강화를 위해 9억 달러 투자 · 미국산 옥수수, 소맥, 돼지고기에 대한 베트남의 수입 관세 인하 달성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생산망 교란에 대처하기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 미국 내 제조라인(fab) 건설 및 확장을 위해 민간 부문과 공동으로 800억 달러 투자 · 반도체 지원 법안 마련 및 반도체 생산 장려를 위한 상·하원의 자금 지원 합의
의료 공급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접종 지원 · 개인보호장비(PPE) 및 진단키트의 미국 내 생산·배포 확대 등
주요 광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토류의 분류·정제 시스템 구축에 1억 달러 이상 투자 · 경제, 안보 측면에서 공급이 불안정한 광물을 연방 핵심 광물 리스트 선정 및 업데이트 · 채굴 관련 법안 및 규정 개정
대용량 배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터리 원자재 및 소재 가공 프로그램에 30억 달러 투자 · 전기차 충전 기반설비에 75억 달러 투자

<출처 :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2022)>

4) 공급망 관련 한국기업의 영향

미·중 갈등,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최근 한국무역협회에서 수행한 ‘글

로별 공급망 위기 관련 수출기업의 경험과 대응 현황 조사⁶⁾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중 85.5% 이상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였고, 그 중 물류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국내 수출기업은 장기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핵심품목 재고 확보 및 공급 대체선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공급망 불안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애로사항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정부에서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을 통한 선제대응의 필요성과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공동수급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그림 2-9] 국내기업대상 공급망 문제 관련 설문조사 주요내용

<출처 : 박가현(2022)>

2.2 여건 변화에 따른 리쇼어링 대응

1)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

글로벌 생산거점 중 하나인 중국을 비롯하여 신흥국의 임금 상승, 중국에서의 외국기업 인센티브 철회,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에서 누렸던 각종 혜택을 다수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기업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보다 저렴한 곳으로의 이동, 거대 소비시장 역내로 이동,

6) 한국무역협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관련 수출기업의 경험과 대응 현황 조사’를 주제로, 2022년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대상은 2021년도 수출실적 5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 2,000 개사임(응답률 54.7%)(박가현, 2022)

본국으로의 회귀를 고민하게 되었으며(정희철 외, 2020), 주요국 정부에서는 공급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리쇼어링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구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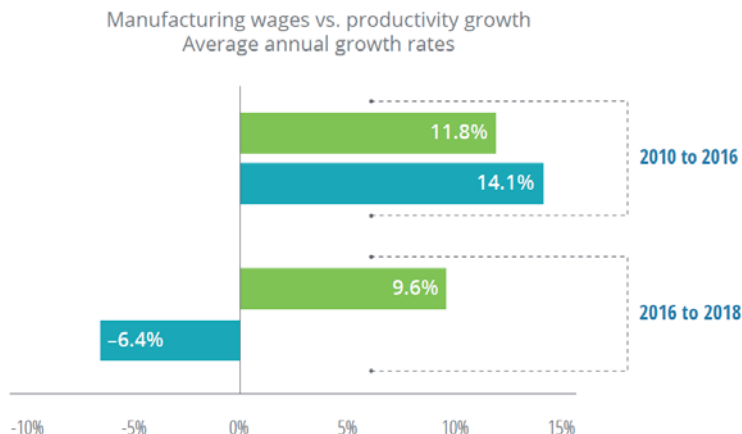
[그림 2-10] 신흥국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GVC의 변화

<출처 : 정희철 외(2020)>

특히, 세계 최대 상품수출국인 중국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제조업 부문 임금은 11.8% 증가하였고, 생산성은 임금 증가분보다 높은 14.1%를 기록하였다. 이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제조업 부문 임금은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산성은 -6.4%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노동집약적 상품 수출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계기가 되었고(Deloitte, 2020), 임금 상승과 생산성 성장의 조합은, 저임 노동력 활용과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무기로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차지한 중국이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Deloitte(2020)에 따르면, 중국 정부도 국내 수요를 늘리고 해외 기술생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집약적 생산이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가져다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국에서 다른 저소득 및 중소득국가로 이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제3세계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 Manufacturing wages* ■ Textile productivity**



Notes: * Weighted average of private and nonprivate manufacturing wages (30% and 70%, respectively).

** Textile business revenue per employee.

Sources: China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author calculations.

[그림 2-11] 중국 제조업 부문 임금 상승과 생산성의 증가

<출처 : Deloitte(2020)>

한편, 미국은 무역정책, 외국인투자유치제도, 제조업 육성정책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본국으로의 리쇼어링 유도과 아시아 지역의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지 이전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민혁기 외, 2021). 또한, 對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공급망 대체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협력국과의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을 검토하면서 협력적 공급망 구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리쇼어링은 유럽의 재산업화 및 전략적 가치사슬 구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유럽의 중장기 비전인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정책에 부합하는 Industry 4.0'(독일), '콜베르20'(프랑스) 등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혁신 정책과 더불어 순환경제체제 구축을 위해 청정하고 순환가능한 생산공정을 강조하고 있다.

역내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이후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부품·소재·장비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정책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특정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분산과 국내생산을 강조하는 등 경제안보 차원에서의 공급망 재편 정책에 주력하고 있는 양상이다.

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공급망 변화⁷⁾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3D프린터, 스마트 팩토리 등이 도입되면서 제품의 생산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생산환경의 변화는 단기적으로는 기술수준의 발달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첨단기술의 상용화로 인해 인건비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거점지역 생산보다는 소비자 위주의 분산생산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생산기지의 중요요소는 인건비가 아닌 판매전략 위주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이는 곧 생산거점의 이동으로 나타나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은 약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2.3 주요국의 리쇼어링 정책 및 현황

1) 미국

(1)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점진적으로 추진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리메이킹 아메리카(Remaking America)로드맵 제시(2009), 「제조업증강법」(Manufacturing Enhancement Act) 제정(2010), 제조업 부문 강화를 위한 미국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n America Built to Last)정책(2012) 등을 통해 국내 리쇼어링 정책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2012년의 미국을 위한 청사진 정책에서는,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1980년대 이후 규범화 된 아웃소싱(out-sourcing)을 제한하고, 국내에서의 조달 및 생산을 포괄하는 인소싱(in-sourcing) 장려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으로서 아웃소싱에 대한 공제 제한, 해외에서 발생한 이윤 및 일자리에 대한 세금 부과, 역수출 관세부과, 국내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을 포함함으로써 국내로의 복귀를 유도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7) 정희철 외(2020), p.56의 내용을 재정리함

[표 2-12]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을 위한 청사진' 주요 내용

구분	제조업 부문 지원내용
제조업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아웃소싱 제한, 인소싱 장려> - 아웃소싱에 대한 공제 제한 - 해외에서 발생한 이윤 및 일자리에 대한 세금 부과 - 국외 공장 생산 제품 미국 역수출 관세 부과 - 미국의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보상 제공 - 미국 내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기술	<열심히 일하고 책임 있는 미국인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노동자 훈련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해 대학과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 - 직무교육과 실업보험을 개혁하고 실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창설 - 모든 주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도록 촉구 등
에너지	<미국의 에너지자원 최대한 활용> - 100년간 천연가스 공급 개발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제공 - 에너지 업그레이드를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출처 : 이수영 외(2018)>

이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무역수지의 개선, 국가경제 안보를 위해 리쇼어링 정책을 본격화하였는데,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법인세율 인하, 역수출품 관세 부과, 규제완화를 주요 골자로 한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 발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대외적 여건 변화로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 강화 움직임이 관찰된다. 특히, 국내기업의 리쇼어링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점진적인 제조업 부문 회귀 확대가 이어지고, 탈중국에 따라 주변 동맹국을 활용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 동맹국 협력 강화 등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다변화의 병행추진이 전망된다.

미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경제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경제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산업을 중심으로 이들 업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세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방식으로 리쇼어링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다만, 행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물가상승 압력, 자유무역주의에 반한 경제블록화 등 세계경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 따라 반대 의견도 상존한다.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리쇼어링 강화와 인소싱 장려로 국내 제조비용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최종제품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국내기업의 리쇼어링 강화로 미·중 무역분쟁 이후 경제블록화 양상 심화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시대 도래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 미국의 리쇼어링 현황

미국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는 ‘리쇼어링 이니셔티브(Reshoring Initiative)’에 따르면,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생겨난 미국 내 기업과 일자리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생겨난 미국 내 기업과 일자리수 통계 중 화학약품(328개), 컴퓨터·전자기기(223개), 운송장비(220개) 분야의 기업수 증가가 두드러지며, 특히 컴퓨터·전자기기 분야의 일자리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21년의 리쇼어링 및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한 미국 내 일자리 창출건수는 2020년(160,000건) 대비 61%가 증가한 260,000건을 기록하였으며, 2010년 이후 리쇼어링 및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총 130만 건이 누적되었다.

[표 2-13] 리쇼어링과 외국인직접투자로 인해 생겨난 미국 내 기업과 일자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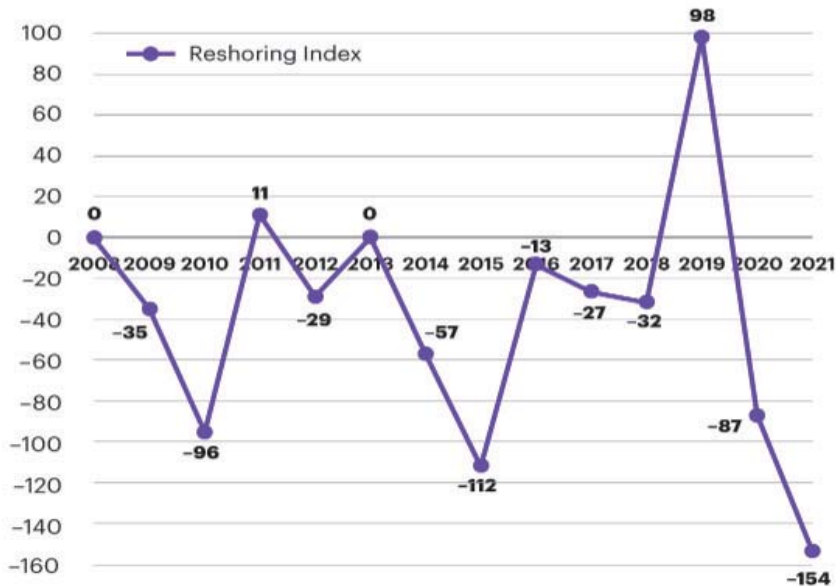
(단위 : 개)

순위	분야	2021		2020		2019	
		일자리수	기업수	일자리수	기업수	일자리수	기업수
1	운송장비	50,212	220	29,185	141	38,798	162
2	컴퓨터, 전자기기	43,194	223	13,989	101	10,575	114
3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35,994	184	19,677	122	5,534	71
4	화학약품	35,534	328	20,020	224	3,630	54
5	의료기기, 공급	29,510	185	21,421	277	3,094	67
6	기계류	24,235	71	10,949	77	15,400	126
7	식품 및 음료	10,034	59	4,877	33	5,024	53
8	제조금속제품	7,948	86	6,438	62	3,000	92
9	1차 금속제품	5,936	71	4,493	36	1,529	17
10	가구 관련제품	4,451	40	4,158	45	3,531	40

<출처 : Reshoring Initiative>

한편 미국 컨설팅기업인 AT Kearney가 매년 측정·발표하는 미국의 리쇼어링 지수(Reshoring Index)를 살펴보면, 2019년까지는 리쇼어링 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의 리쇼어링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은 -185포인트, 2020년 대비 2021년은 -67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그림 2-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의 리쇼어링 지수 하락은 미국 기업의 본국 회귀 흐름이 저하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주요 원인으로는 코로나19 이후 미국의 경색된 고용 시장에 따른 인건비 및 생산비용 부담 증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자국 내 생산설비 증설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12] 미국 리쇼어링 지수

<출처 : AT Kearney>

2) EU

(1) EU의 리쇼어링 정책

EU집행위원회는 2019년 발표한 ‘신산업전략’을 통해 기술, 식량, 인프라, 안보 등 전략산업 부문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전략적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EU는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 및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기업 차원의 리쇼어링 정책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친환경자동차 및 의약품 산업 부문의 역내 기업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해가고 있다. 이후 EU집행위원회는 2021년 2월 ‘신통상전략’을 발표하면서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Open Strategic Autonomy)’ 천명하였다. 신통상전략은 다자주의 약화, 미·중 및 미·EU 간 무역 갈등,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WTO 개혁을 주도하고 EU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따라 EU 기업의 리쇼어링 및 니어쇼어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장영욱, 2021).

한편, EU집행위원회의 사회, 고용 및 업무 관련 정책개발을 담당하는 Eurofound(2019)에서는 유럽 국가의 리쇼어링 패턴을 시기에 따라 [표 2-14]와 같이 구분하였다.

[표 2-14] 유럽국가의 리쇼어링 패턴 구분

명칭	특징 및 대표 국가
얼리 리쇼어링 (Early reshoring)	유럽 지역에서 리쇼어링을 초기에 진행한 국가로, 영국이 대표적이며 2014년 기준 전 유럽 리쇼어링 기업의 1/3을 차지
세컨드 무버 (Second mover)	유럽 내 제조기반이 가장 많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대표적이며, 2010년대 중반 이후 리쇼어링이 활발히 추진됨
라스트 리쇼어링 (Last reshoring)	주로 북유럽 국가가 대표적이며, 2010년대 후반에 리쇼어링이 활발히 추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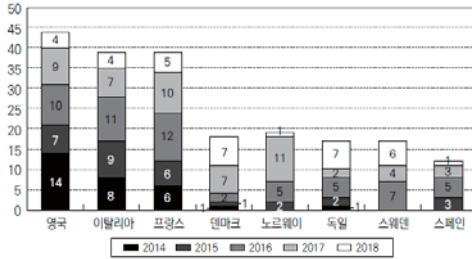
<출처 : Eurofound(2019); 민혁기 외(2021) 재인용>

(2) EU의 리쇼어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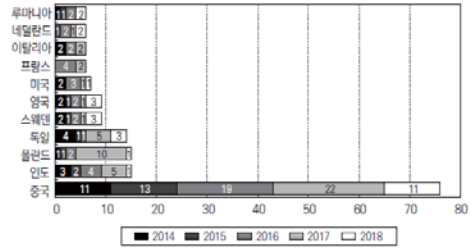
유럽 국가의 리쇼어링 현황을 살펴보면, 리쇼어링 기업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의 본국 회귀가 이루어졌으며, 이 외 동유럽 지역 및 인도에서의 리쇼어링이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리쇼어링 기업의 86.2%가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제조업 부문 세부산업별로 살펴보면, 최근 들어 식품제조, 컴퓨터·전자·광학기기, 전기설비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리쇼어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실적은 미국보다는 다소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EU의 리쇼어링을 주도하는 분야 자체가 생산자동화 비율이 높은 업종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일자리 창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는 6,222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454개에 그친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EU의 리쇼어링은 미국과 같이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아디다스, 큐브바이크 등의 기업들은 중국 및 신흥국에 있던 생산기지를 유럽 본토로 옮기려던 계획들을 보류하고 있어, 유럽의 리쇼어링 유도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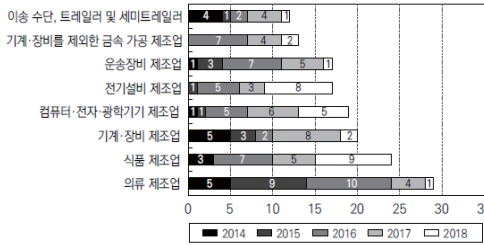
[국가별 리쇼어링 기업수(2014~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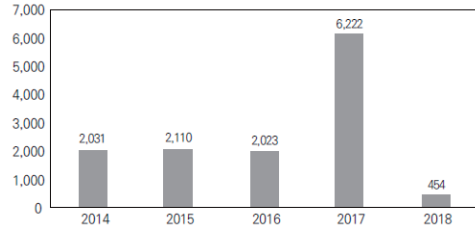
[기존 진출국별 리쇼어링 현황(2014~2018)]

[그림 2-13] 유럽 국가의 리쇼어링 현황(2014~2018)

<출처 : Eurofound(2019); 민혁기 외(2021) 재인용>



[제조업 세부분야별 리쇼어링 현황(2014~2018)]



[리쇼어링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실적(2014~2018)]

[그림 2-14] 유럽 국가의 제조업 부문 리쇼어링 현황과 일자리 창출(2014~2018)

<출처 : Eurofound(2019); 민혁기 외(2021) 재인용>

3) 일본

(1) 일본의 리쇼어링 정책

일본의 아베 내각은 장기 불황을 탈피하고 엔화 강세로 약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일본재흥전략' 차원에서 리쇼어링 유도정책을 추진하였다(김종규, 2020). 특히, 자국 기업 투자활성화 정책으로서 '산업경쟁력강화법'(2013년 제정), '지역미래 투자촉진법'(2017 제정)을 연달아 제정하여 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였다(사공목, 2019). 이에 이른바 아베노믹스에 따라 엔화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자국 제조업 수익이 개선되면서 해외 거점 일본 제조업체의 리쇼어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정부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현상에서 벗어나고자 균형발전 관점에서 공업재배치를 실시해왔는데, 1990년대 엔고 현상 등 대외변수와 맞물려 심화된 산업공동화

방지 및 지역의 산업집적을 유도하고자 과거의 공업재배치 관련 법률을 철폐하고⁸⁾, 지방정부의 투자유치 전담조직 등을 통해 수도권 기업 및 리쇼어링 기업 등에 대한 유치를 강화하였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고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의 견인 축진을 목적으로 2017년 제정된 「지역미래투자촉진법」은 예산지원, 과세특례, 금융지원, 기업발굴,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수도권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리쇼어링 기업 유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김종규, 2020).

[표 2-15] 일본의 「지역미래투자촉진법」상 기업지원 내용

명 칭	특징 및 대표 국가
예산 지원	- 지역미래투자촉진사업비(2020년도 기준 143억 엔) - 제조업 및 상업, 서비스업 고도연계촉진사업비(2020년 기준 10억 엔) - 지역혁신기반정비사업비(2019년 기준 5.5억 엔) - 지방창생추진교부금 활용(2020년 기준 1,000억 엔)
세제 지원	- 과세 특례 : 첨단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감세 - 지방정부의 고정자산세 등 지방세 감면에 대한 보전
금융 지원	- 일본정책금융공고에 의한 중소기업 자금 원활화 - 지방경제활성화지원기구,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등에 의한 펀드창설 등
정보 지원	-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을 활용한 후보기업 발굴 등
규제 완화	- 공장입지법의 녹지면적을 완화 - 농지전용 허용, 시가화조정구역의 개발허가 고려 - 일반사단법인을 지역단체상표 등록주체로 추가 - 지자체의 사업자가 사업환경정비 제안을 할수 있도록 함

<출처 : 김종규(2020)>

일본 리쇼어링 정책의 특징은 공공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나 중앙정부보다는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인 권한과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기업 유치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리쇼어링 규제 혁파,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인센티브 마련, 경제특구 유인제도 등 리쇼어링 기업에 대한 환경개선에 주력하고, 지방정부는 지역의 산업여건과 특성에 부합한 업종을 대상으로 기업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본국 회귀시 지역별 특화산업에 부합하는 업종일 경우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업종과 지역특색이 리쇼어링 기업에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일본의 대기업도 적극적인 리쇼어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민혁기 외, 2020).

8) 기성시가지공장제한법(2002년 폐지), 공장재배치법(2006년 폐지)

(2) 일본의 리쇼어링 현황

일본 경제산업성(2018)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해외생산기업 중 과거 1년간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거점을 옮긴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본으로의 국내 회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대기업의 생산라인 리쇼어링 및 지역투자확충 사례로는 사프, 캐논, 파나소닉, 다이킨, 소니, 쉐우드, 마쓰시타전기공업, 혼다 등이 관찰되고 있다(김종규, 2020 재인용).

최근, 2022년 상반기 도쿄제철의 건설용 철강 주문량이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본기업들이 해외에 구축한 생산기지를 본국으로 되돌리는 리쇼어링을 추진한데 따른 현상으로, 엔저현상 지속과 세계적인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자 안정적인 본국으로 돌아가는 기업들이 증가하였다는 분석이다. 또한 개발도상국들의 인건비 상승도 리쇼어링의 요인 중 하나였는데, 30여 년 동안 일본 내 임금 수준은 대폭 증가하지 않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의 임금은 같은 기간 3배 이상 뛰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하였다⁹⁾.

4) 한국

(1) 한국의 리쇼어링 정책

한국기업은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경쟁력 유지 및 기업 생존전략으로서 해외투자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현지 인건비 상승, 세율 인상, 인력수급 및 노동환경 변화 등으로 현지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경험하여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국내복귀 기업이 국내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생산기반 확충, 산업공동화 해소 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여, 2013년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이 포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제정하였고, 2018년에는 '국내복귀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인센티브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9) 한국경제, "엔화가격 떨어지니...日 기업들 집으로 돌아가자", 2022년 5월 6일자.

유턴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은 크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해외사업장 청산지원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국내복귀를 외국인투자자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여 법적 기반 마련 측면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턴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이 실제 집행되는 경우, 지원의 근거가 대부분 다른 유관 법률에 의존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리쇼어링의 필수요인이라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표 2-16] 유턴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제도

구분	제조업 부문 지원내용
조세감면(제11조)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관세법에 따른 조세 감면
자금지원(제12조)	- 경제적 파급효과에 기초한 금융 및 재정 지원
입지지원(제13조)	- 산업입지 우선 지원 -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 국공유재산을 유턴 기업에 매각
인력지원(제14조)	-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 고용보조금 지급
청산지원(제15조)	-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축소 관련 필요 사항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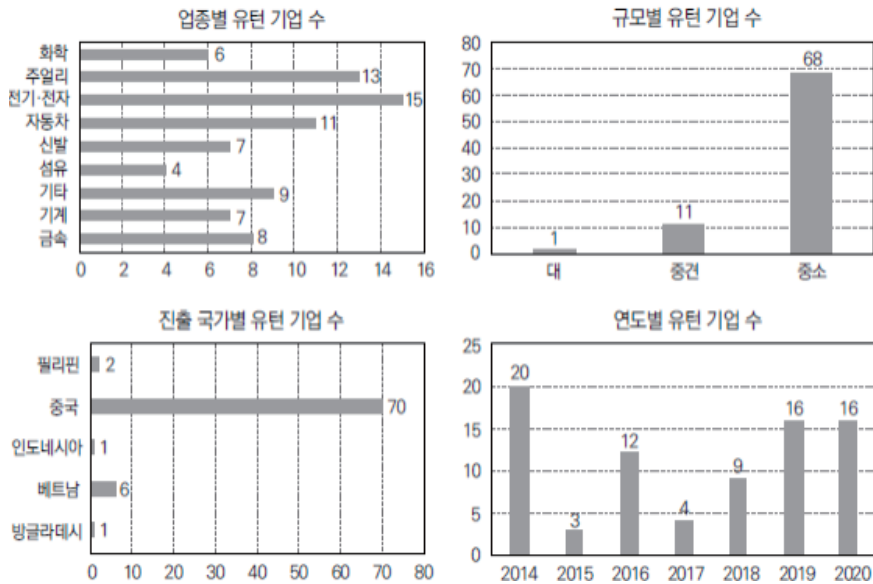
주 : 국내복귀기업 유형별로 차등 지원되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금지원 대상 지역이나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방식이 결정됨

최근 정부에서는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유턴기업 인정요건 완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2022.6.16.). 큰 틀에서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범위와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 투자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직접생산 전환,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 공간 내 설비투자 등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역중심(수도권·비수도권) 지원을 첨단·신기술 등 업종 중심으로 변경하여 유턴효과가 큰 기업에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완료 후 국내에 유턴한 기업의 조세감면 요건 완화, 유턴효과를 기준으로 기업규모별·지원수단별·지역별 유턴 지원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개선 검토, 주요 공급망 또는 탄소중립 기여투자에 대한 추가지원도 포함되었다.

(2) 한국의 리쇼어링 현황

리쇼어링 현황을 구체화한 통계지표는 확인할 수 없으나 2020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KOTRA 내부자료,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해보면, 유턴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의 국내복귀기업은 80개사로 집계된다. 산업분야로 살펴보면 전기·전자(15개사), 주얼리(13개사), 자동차(11개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대기업은 현대모비스의 울산 복귀가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중소기업의 국내복귀가 이루어졌고, 진출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5] 한국의 리쇼어링 현황(2020년 8월 기준)

<출처 : 민혁기 외(2021)>

유턴기업의 복귀지역으로는 전북(18개사), 부산(12개사), 경북(11개사), 경기(10개사)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전북의 경우 2014년 주얼리 업종의 집중적인 국내복귀(익산 시) 이후 지역 내 리쇼어링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이다. 고용인원의 경우 가장 많은 기업이 복귀한 전북에 949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가장 큰 유발효과가 나타났으며, 투자금액은 현대모비스가 복귀한 울산(4,027억 원)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2-17] 한국 유턴기업의 복귀지역

(단위 : 개, 명, 억 원)

지역	기업수	고용인원	투자금액
강원	1	30	110
경기	10	209	274.5
경남	4	125	325
경북	11	365	1,561.50
광주	2	60	342
대구	2	107	72
부산	12	489	652.3
세종	4	199	686
울산	2	34	4,027
인천	4	121	254.5
전북	18	949	1,776
충남	8	246	1,016
충북	2	33	6

<출처 : 민혁기 외(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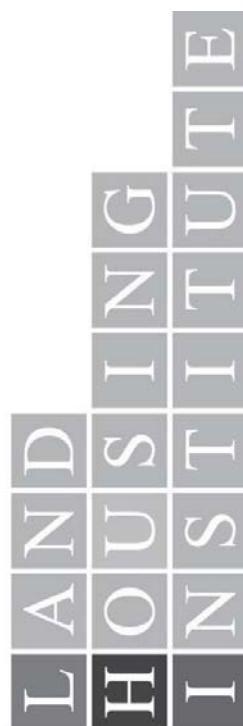
유턴법 제정 이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실적이 발생한 점은 고무적이고 의의가 있으나, 제정 당시 기대했던 수준의 대대적인 복귀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의 리쇼어링 관련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글로벌 공급망 재편으로 해외로 나간 국내기업들이 복귀를 고민할 여지가 커진 상태이며, ‘유턴을 원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국내총생산이 11조 4,000억 원 증가하고, 일자리 8만 6,000개가 신규 창출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¹⁰⁾ 그러나 실제 국내에 복귀한 기업들은 국내 복귀에 따른 혜택이 기대보다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고, 법률과 행정절차의 엇박자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복귀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완화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¹¹⁾

10) 중앙일보, “해외 불안해 집 나간 기업들 유턴 하나”, 2022년 4월 27일자.

11) 한국경제, “매출 80억 사장→일용직 전락...대한민국에 사기 당했다”, 2022년 6월 8일자.

제 3 장

중점국가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제조업 투자유치 분야



&

제3장 중점국가별 한국기업 진출현황 및 제조업 투자유치 분야

1. 중점국가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

1.1 미얀마

1) 현지법인 신규법인수 및 투자금액 증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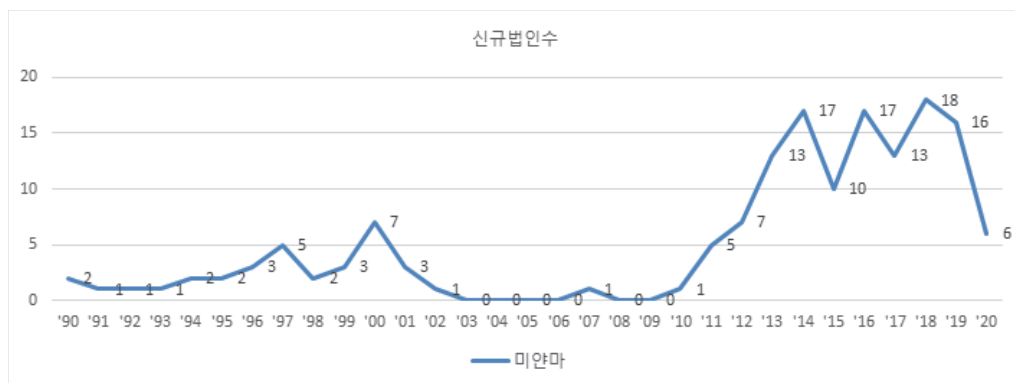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미얀마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157개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신규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평균 10개 미만이며, 201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1] 미얀마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규법인수)

(단위: 개, %)

국가	신규법인수					증가율	
	'00	'05	'10	'15	'20	'90~'20 ('00 대비)	'10~'20 ('10 대비)
미얀마	7	0	1	10	6	157	-86 500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1]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미얀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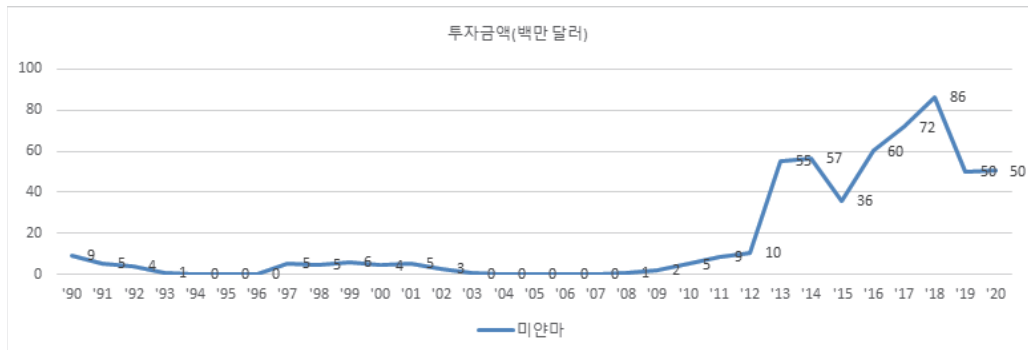
한편,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미얀마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의 투자금액은 총 5억 4천 3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신규법인수 당 투자규모는 약 345만 달러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금액은 연간 1천 8백만 달러 수준이며, 2010년 이후 투자금액이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2] 미얀마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투자금액					증가율	
	'00	'05	'10	'15	'20	'90~'10 ('00 대비)	'10~'20 ('10 대비)
미얀마	4	0	5	36	50	543	16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2]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 추세(미얀마)

2) 2020년 현지법인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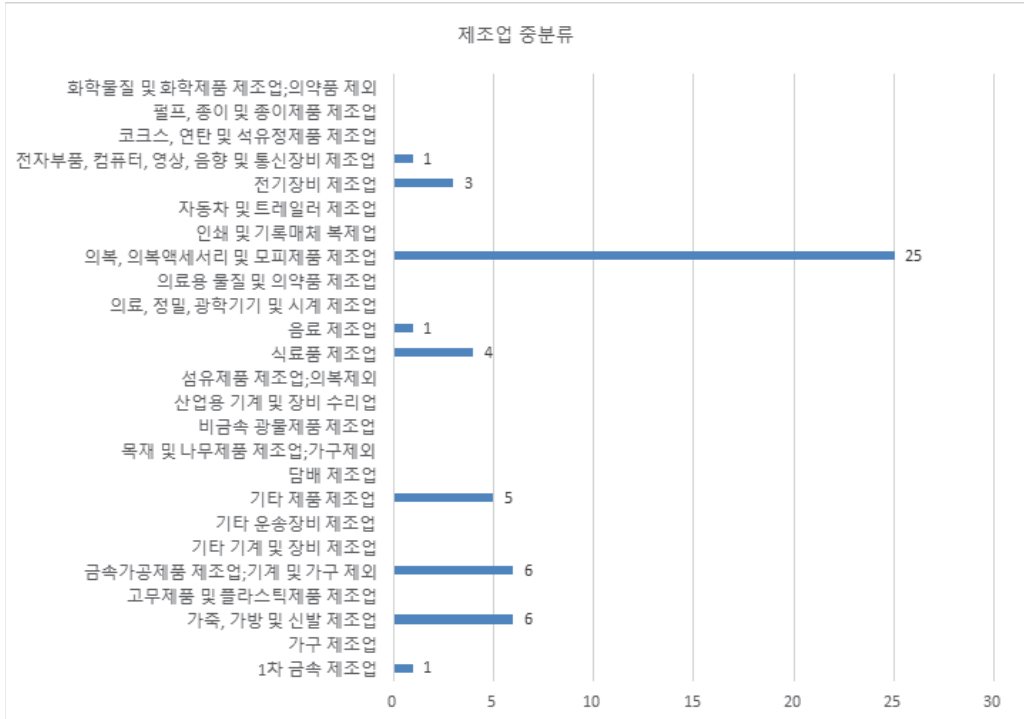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미얀마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52개가 진출해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들 52개 현지법인을 제조업 중분류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25건으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6건),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6건), 기타 제품 제조업(5건)에 주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미얀마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고건수)

(단위: 건)

국가	'90	'95	'00	'05	'10	'15	'20
미얀마	7	3	13	0	7	52	52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3] 2020년 제조업 중분류별 신고건수 현황(미얀마)

3) 2020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현황

한국수출입은행은 해외직접투자통계를 바탕으로 기업 전수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라 진출국가 및 현지 진출기업 정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지 않는다(문진영 외, 2019).

반면, KOTRA에서 제공하는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에서는 총 85개국 125개 무역관에서 수집한 한국기업 10,400 여개 회사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기업의 기본정보(진출국가, 기업명, 주소, 진출형태, 투자형태, 모기업명) 및

투자업종(대분류, 중분류) 정보이며, 격년으로 갱신된다.

[표 3-4] 2020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수록항목(KOTRA)

유료판	무료판	예시 (가상자료)
지역(대륙/본부)		중남미
진출국가		아이티
관할무역관		산토도밍고
기업명(국문)		(주)단비섬유
기업명(영문)		Danbi Textile S.A.
기업명(중문)		-
진출지역		-
진출도시		레오간(Leogane)
현지진출년도		2012
주소(영문)		7 Route Nationale #2, Leogane, Haiti
우편번호		81000
국가번호		509
대표전화		27112345678
E-mail		customer@danbi.com
홈페이지		www.rokdanbi.com
진출형태		생산법인
투자형태		단독투자
모기업명		기훈방직(주)
모기업 대표전화		0212345678
모기업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모기업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
모기업 홈페이지		www.rkencoy.com
업종 대분류		제조업
업종 중분류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KOTR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미얀마에는 제조업 부문에 한국법인 18개가 등록되어 있다. 진출형태별로는 총 18개 기업 중 생산법인이 17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형태별로는 단독투자가 12개, 합작투자가 2개로 나타났다.

[표 3-5] 미얀마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진출형태)

(단위 : 개)

구분	합계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기타
미얀마	18	17	-	-	1	-	-

주. 생산법인은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등을 겸하는 생산법인 포함. 서비스법인은 판매법인을 겸하는 서비스법인 포함. 판매법인은 해외지사, 연락사무소를 겸하는 판매법인 포함. 기타는 필드 값 없음 포함

<출처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표 3-6] 미얀마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투자형태)

(단위 : 개)

구분	합계	단독투자	합작투자	인수합병	기타
미얀마	18	12	2	-	4

주: 기타는 필드 값 없음

<출처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1.2 베트남

1) 현지법인 신규법인수 및 투자금액 증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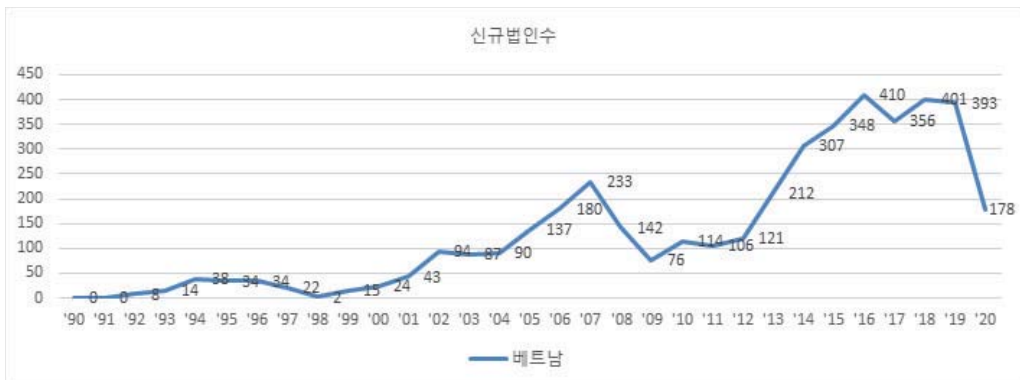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베트남으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4,219개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신규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평균 140개 수준이며, 201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대폭 증가하다가 최근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7] 베트남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규법인수)

(단위 : 개, %)

국가	신규법인수						증가율	
	'00	'05	'10	'15	'20	'90~'20	'00~'10 ('00 대비)	'10~'20 ('10 대비)
베트남	24	137	114	348	178	4,219	375	56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4]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베트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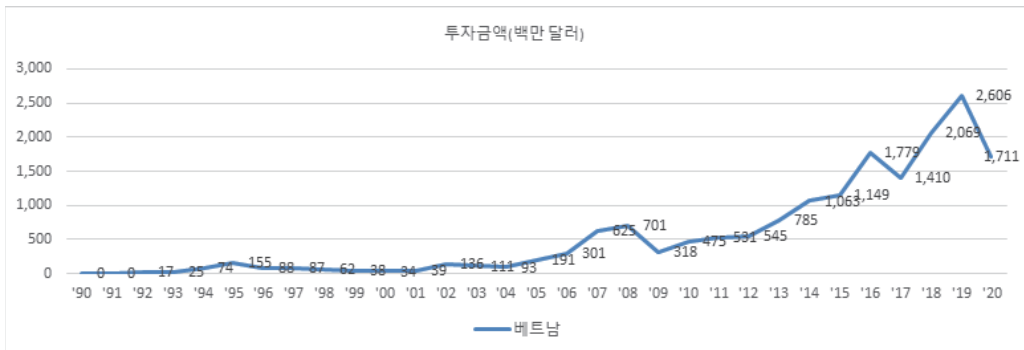
한편,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베트남으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의 투자금액은 총 172억 1천 7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신규법인수 당 투자규모는 약 408만 달러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금액은 연간 5억 7천 4백만 달러 수준이며, 2010년 이후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하다가 최근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8] 베트남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투자금액)

(단위 : 백만 달러, %)

지역	투자금액						증가율	
	'00	'05	'10	'15	'20	'90~'20	'00~'10 ('00 대비)	'10~'20 ('10 대비)
베트남	34	191	475	1,149	1,711	17,217	1,295	260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5]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 추세(베트남)

2) 2020년 현지법인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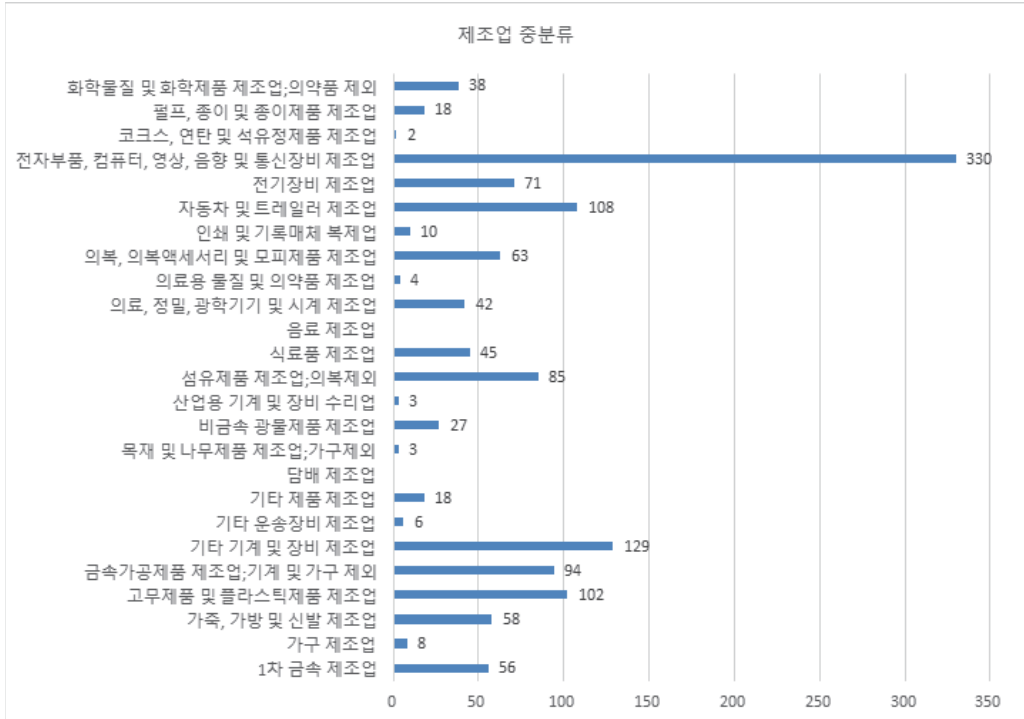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베트남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1,320개가 진출해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들 1,320개 현지법인을 제조업 중분류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330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129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108건),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02건)이 100건 이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베트남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고건수)

(단위 : 건)

국가	'90	'95	'00	'05	'10	'15	'20
베트남	0	62	55	315	516	1,182	1,320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6] 2020년 제조업 중분류별 신고건수 현황(베트남)

3) 2020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현황

KOTR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베트남에는 제조업 부문에 한국법인 1,667개가 등록되어 있다. 진출형태별로는 총 1,667개 기업 중 생산법인이 1,60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형태별로는 단독투자 1,203개, 합작투자 62개, 인수합병 7개로 나타났다.

[표 3-10] 베트남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진출형태)

(단위 : 개)

구분	합계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기타
베트남	1,667	1,604	22	9	10	20	2

<출처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표 3-11] 베트남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투자형태)

(단위 : 개)

구분	합계	단독투자	합작투자	인수합병	기타
베트남	1,667	1,203	62	7	395

주: 기타는 필드 값 없음

<출처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1.3 러시아

1) 현지법인 신규법인수 및 투자금액 증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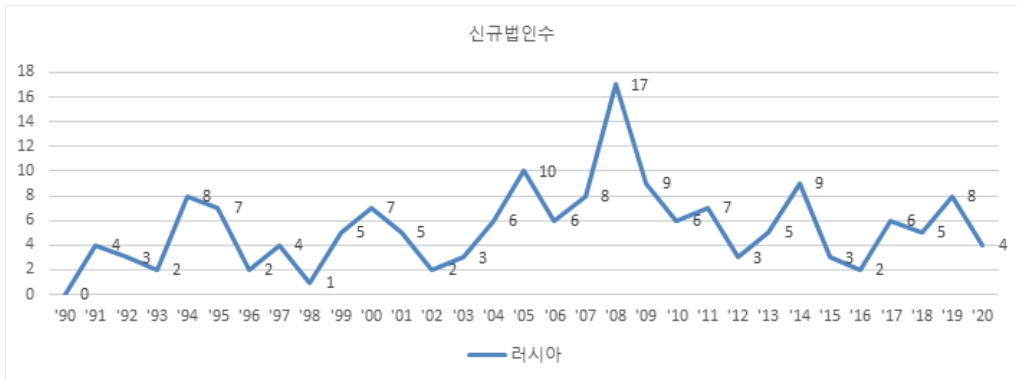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러시아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167개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신규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평균 10개 미만이며,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12] 러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규법인수)

(단위 : 개, %)

국가	신규법인수						증가율	
	'00	'05	'10	'15	'20	'90~'20	'00~'10 ('00 대비)	'10~'20 ('10 대비)
러시아	7	10	6	3	4	167	-14	-33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7]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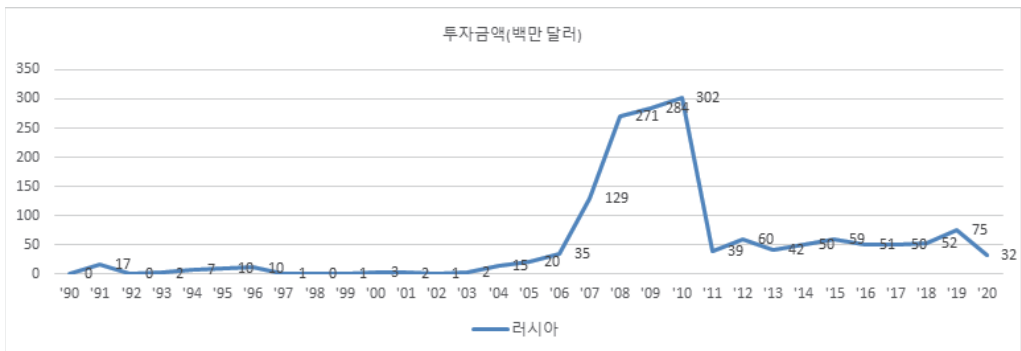
한편,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러시아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의 투자금액은 총 16억 2천 1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신규법인수 당 투자규모는 약 970만 달러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금액은 연간 5천 4백만 달러 수준이며, 2006년 이후 투자금액이 대폭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 평균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13] 러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투자금액					증가율	
	'00	'05	'10	'15	'20	'90~'10 ('00 대비)	'10~'20 ('10 대비)
러시아	3	20	302	59	32	1,621	11,918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8]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 추세(러시아)

2) 2020년 현지법인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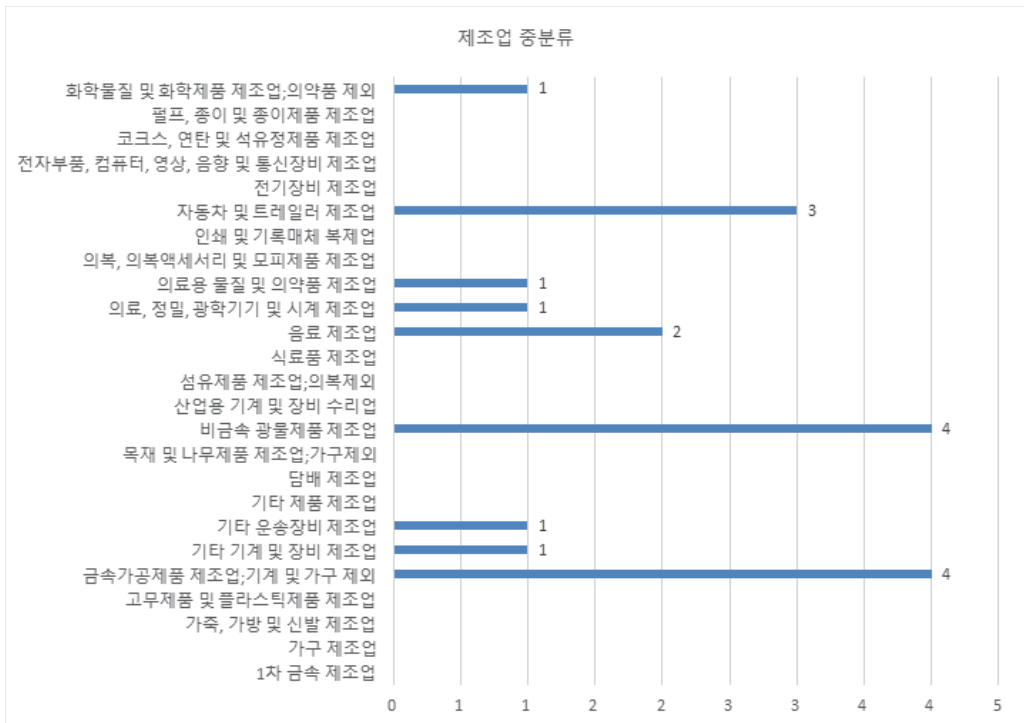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러시아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18개가 진출해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들 18개 현지법인을 제조업 중분류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4] 러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고건수)

(단위 : 건)

국가	'90	'95	'00	'05	'10	'15	'20
러시아	3	12	11	18	43	30	18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9] 2020년 제조업 중분류별 신고건수 현황(러시아)

3) 2020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현황

KOTR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러시아에는 제조업 부문에 한국법인 54개가 등록되어 있다. 진출형태별로는 총 54개 기업 중 생산법인이 25개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연락사무소 13개, 판매법인 7개 순으로 나타났다. 투자형태별로는 단독투자가 19개, 합작투자가 1개로 나타났다.

[표 3-15] 러시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진출형태)

(단위: 개)

구분	합계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기타
러시아	54	25	-	7	-	13	9

<출처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표 3-16] 러시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투자형태)

(단위: 개)

구분	합계	단독투자	합작투자	인수합병	기타
러시아	54	19	1	-	34

주: 기타는 필드 값 없음

<출처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1.4 태국

1) 현지법인 신규법인수 및 투자금액 증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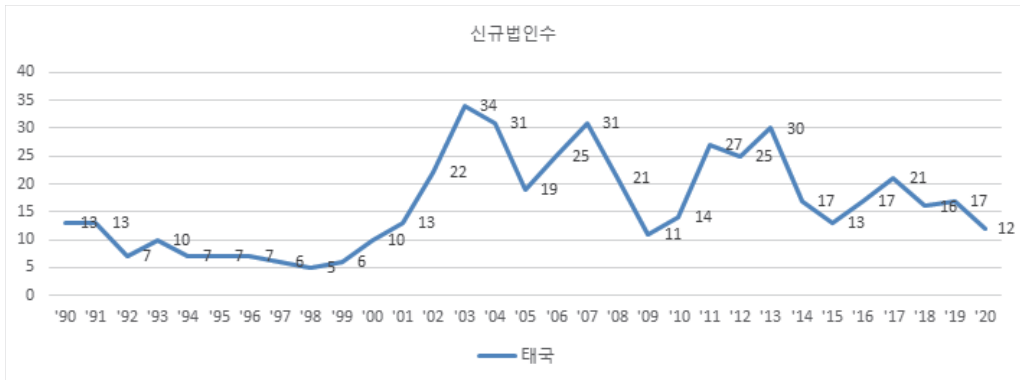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태국으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507개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신규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평균 20개 미만이며,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최근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17] 태국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규법인수)

(단위: 개, %)

국가	신규법인수						증가율	
	'00	'05	'10	'15	'20	'90~'20	'00~'10 ('00 대비)	'10~'20 ('10 대비)
태국	10	19	14	13	12	507	40	-14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10]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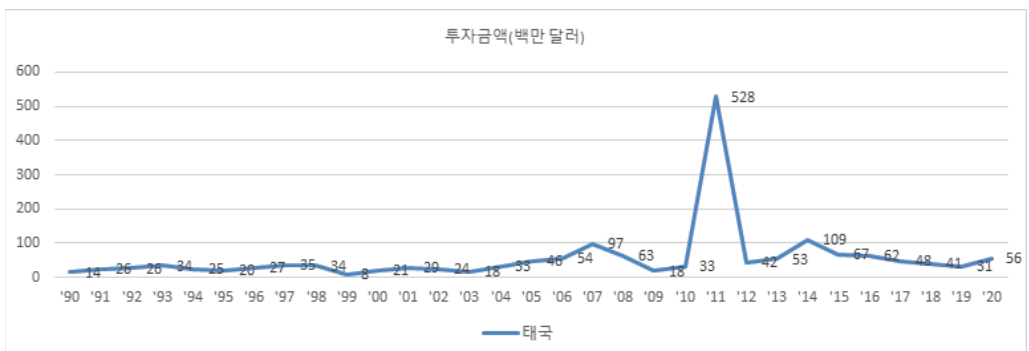
한편,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태국으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의 투자금액은 총 17억 2천 2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신규법인수 당 투자규모는 약 339만 달러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금액은 연간 5천 7백만 달러 수준이며, 2011년을 제외하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18] 태국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투자금액					증가율	
	'00	'05	'10	'15	'20	'90~'10 ('00 대비)	'10~'20 ('10 대비)
태국	21	46	33	67	56	58	70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11]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 추세(태국)

2) 2020년 현지법인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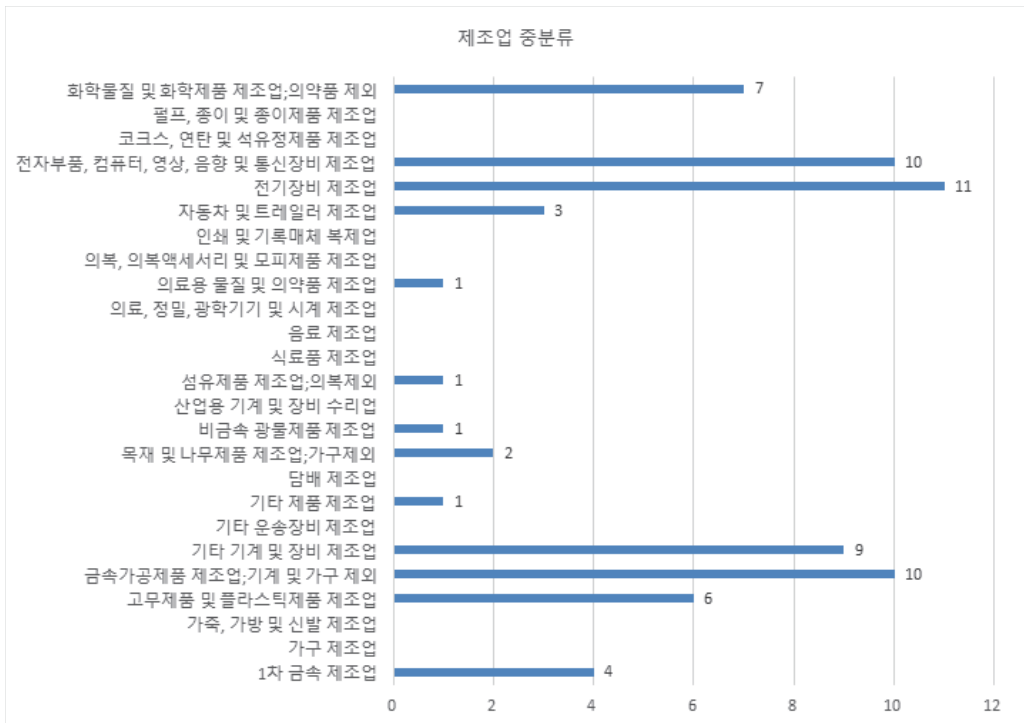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태국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66개가 진출해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들 66개 현지법인을 제조업 중분류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전기장비 제조업(11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0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0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9건)에 주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태국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고건수)

(단위: 건)

국가	'90	'95	'00	'05	'10	'15	'20
태국	36	34	36	65	52	68	66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12] 2020년 제조업 중분류별 신고건수 현황(태국)

3) 2020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현황

KOTR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태국에는 제조업 부문에 한국법인 193개가 등록되어 있다. 진출형태별로는 총 193개 기업 중 생산법인이 173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형태별로는 단독투자가 151개, 합작투자가 32개로 나타났다.

[표 3-20] 태국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진출형태)

(단위: 개)

구분	합계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기타
태국	193	173	3	7	1	4	5

<출처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표 3-21] 태국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투자형태)

(단위: 개)

구분	합계	단독투자	합작투자	인수합병	기타
태국	193	151	32	-	10

주: 기타는 필드 값 없음

<출처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1.5 인도네시아

1) 현지법인 신규법인수 및 투자금액 증감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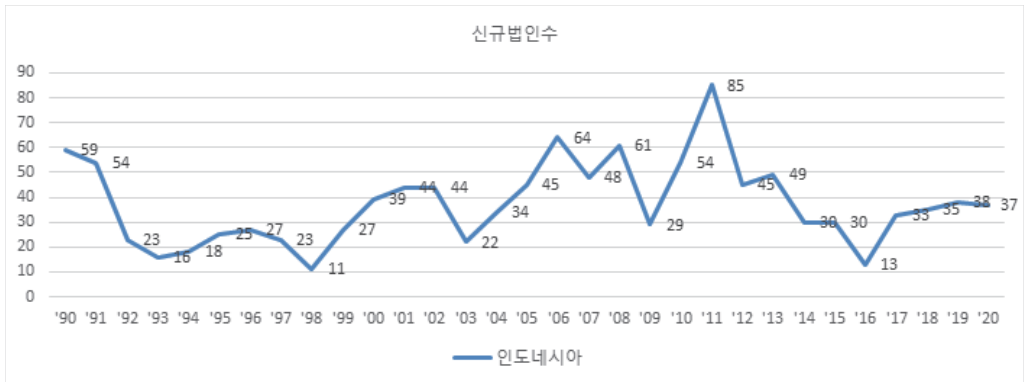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 신규법인수는 총 1,162개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에서 매년 신규로 진출하는 한국기업은 평균 40개 수준이며,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표 3-22]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규법인수)

(단위: 개, %)

국가	신규법인수						증가율	
	'00	'05	'10	'15	'20	'90~'20	'00~'10 ('00 대비)	'10~'20 ('10 대비)
인도네시아	39	45	54	30	37	1,162	38	-31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13]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신규법인수 추세(인도네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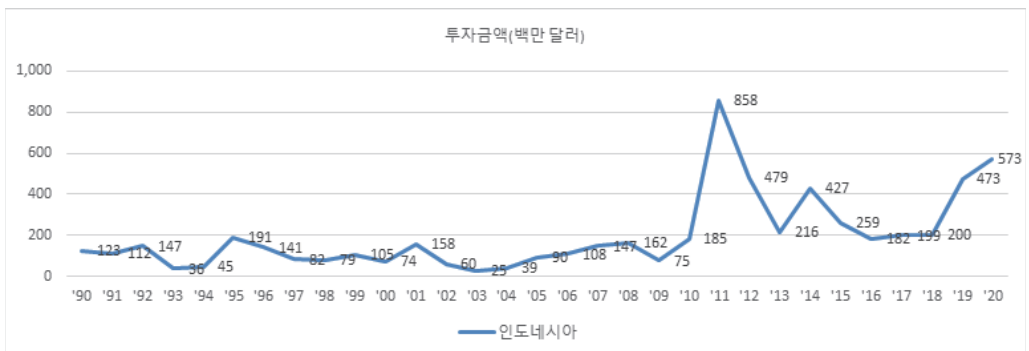
한편,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의 투자금액은 총 60억 5천 1백만 달러로 나타났으며, 신규법인수 당 투자규모는 약 520만 달러 수준이다. 제조업 부문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투자금액은 연간 2억 달러 수준이며, 2010년 이후 투자금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3-23]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투자금액)

(단위: 백만 달러, %)

지역	투자금액						증가율	
	'00	'05	'10	'15	'20	'90~'20	'00~'10 ('00 대비)	'10~'20 ('10 대비)
인도네시아	74	90	185	259	573	6,051	150	210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14] 최근 30년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 추세(인도네시아)

2) 2020년 현지법인 신고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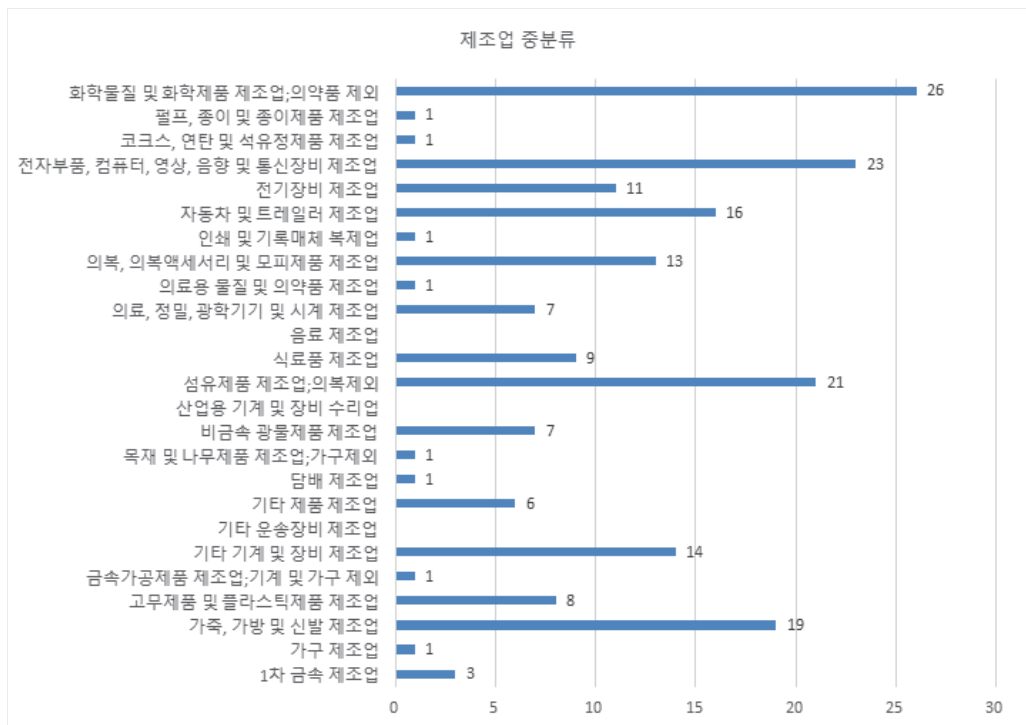
한국수출입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191개가 진출해있는 것으로 신고되었다. 이들 191개 현지법인을 제조업 중분류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26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3건), 섬유제품 제조업(21건),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19건)에 주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4]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해외투자 현황(신고건수)

(단위: 건)

국가	'90	'95	'00	'05	'10	'15	'20
인도네시아	194	79	87	111	159	141	191

<출처 : 해외직접투자통계(한국수출입은행)>



[그림 3-15] 2020년 제조업 중분류별 신고건수 현황(인도네시아)

3) 2020년 해외진출 한국기업 현황

KOTRA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제조업 부문에 한국법인 694가 등록되어 있다. 진출형태별로는 총 694개 기업 중 생산법인이 682개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형태별로는 단독투자 49개, 합작투자 10개, 인수합병 9개로 나타났다.

[표 3-25]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진출형태)

(단위: 개)

구분	합계	생산법인	서비스법인	판매법인	해외지사	연락사무소	기타
인도네시아	694	682	3	1	1	3	4

<출처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표 3-26] 인도네시아 제조업 부문 한국기업 진출현황(투자형태)

(단위: 개)

구분	합계	단독투자	합작투자	인수합병	기타
인도네시아	694	49	10	9	626

주: 기타는 필드 값 없음

<출처 :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2. 중점국가별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

2.1 미얀마

LH는 미얀마 양곤주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미얀마 투자회사관리 총국(Directorate of Investment and Company Administration, DICA)에서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주요 투자유치 분야로 다음을 권고하고 있다.

[표 3-27] 미얀마 제조업 부문 주요 투자유치 분야

-
- 의류 및 신발 생산 또는 장난감 및 문구류 조립과 같은 2선 도시(예: Patheingyi, Bago, Hpa An)의 노동 집약적 산업
 - 농산물 가공 산업
 - 국가 건설산업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축자재 생산(예: 시멘트, 벽돌, 강철, 유리, 페인트, 문, 창호)
 - 디자인, 절단 및 연마와 같은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보석 가공 산업(예: 옥, 사파이어, 루비)
 - 자본 집약적 산업(예: 자동차, 육상 기계), 특히 국제 및 국내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예: 경제 특구)
 - 건축과 대나무를 기반으로 한 목재 가공 산업(예: 가구 생산)
 - 종이 및 판지 산업
 - 지방, 지역 및 글로벌 수요와 국제공항과의 근접성에 기반한 첨단 산업(예: Yangon, Nay Pyi Taw, Bago 및 Mandalay)
 - 지방 및 지역 수요에 기반한 화학 산업(예: 제약 및 플라스틱 제품)
 - 산업 서비스(예: 폐수관리, 재활용, 교육)
-

<출처 : 미얀마 투자회사관리총국(<https://www.dica.gov.mm/en/>)>

그러나 2021년 국가 비상사태 이후, 미얀마는 또다시 경제제재 대상국 명단에 오르게 되며 외국계 자본들도 빠른 속도로 이탈함에 따라 투자유치 실적이 급감했다. 미얀마 투자위원회(Myanmar Investment Commission, MIC)에 따르면, 2020/2021 회계연도의 외국인투자 규모는 37억 9,139만 달러로 2019/2020 회계연도의 48억 8,097만 달러 대비 22.3% 감소하였다. 투자유치 실적이 악화되자 군부정권에서는 각종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21년 11월 MIC는 농업, 식품가공업과 자급 자족체계 구축을 위한 제조업, 그 외에 전기차 및 헬스케어 산업이 포함된 8대 투자유치 우선순위 분야를 발표하였다.

[표 3-28] 미얀마 8대 투자유치 우선순위 분야

1. 비료 제조업(Fertilizer Manufacturing)
2. 시멘트 제조업(Cement Manufacturing)
3. 철강 제조업(Iron and Steel Manufacturing)
4. 농축산업(Agriculture and Livestock farming and its related industries)
5. 식품가공제조업(Value-added foodstuffs Manufacturing)
6. 전기차 제조업(Electric Vehicle Manufacturing)
7.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업(Pharmaceutical and medical device manufacturing)
8. 대중교통 서비스업(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출처 : 미얀마 투자회사관리총국(<https://www.dica.gov.mm/en/>)>

2.2 베트남

2014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2025년까지의 베트남 산업발전전략, 2035년을 향한 비전(Industrial Development Strategy through 2025, vision toward 2035 | Decision 879/QD-TTg)'에 따르면, 베트남에서는 제조업을 우선 발전부문으로 선정하고, 농업 기계,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수출용 섬유·의류 및 가죽·신발 제조업 등을 주력산업으로 채택하였다.

[표 3-29] Decision 879/QD-TTg에 의거한 우선순위 산업

산업 구분	해당 분야
가공 및 제조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공학 및 금속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는 농업용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부품, 생산용 철강 등의 산업 및 제품 - 2025년 이후에는 조선, 비철금속, 신소재 등의 산업과 제품 •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기초화학, 석유화학, 공업용 플라스틱 및 고무 제조 - 2025년 이후에는 의약화학산업 발전 등 • 농림수산물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농어업, 수산물, 목재제품의 가공비율 증진, 국제표준 적용, 베트남 농산물 상표 구축 등 • 의류·섬유·가죽 및 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원부자재 생산, 내수 및 수출용으로 구분 생산 - 2025년 이후에는 패션의류 및 고급 신발 생산
전자 및 통신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및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컴퓨터 장비 제품, 전화기 및 부품 개발 - 2025년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정보기술 서비스 및 의료전자 제품 개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까지 풍력에너지,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에너지 등의 개발 - 2025년 이후에는 평화적 목적만을 위한 원자력 개발, 지열에너지 및 해양파력에너지 등의 개발

<출처 : 이상헌 외(2022) 재인용>

특히, 해당 부문의 성장을 위한 장기적인 추진방안으로 외국 투자유치를 위한 개방적인 정책시스템 개발,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 FDI를 필요로 하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 목록에 적극 투자하도록 장려, 기업협화~정부~비정부기관 간 협력 강화, 국내 및 외국기업 간 GVC 협력 등 투자유치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장기적인 추진방안으로 삼고 있다. 이 전략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선순위 산업을 살펴보면, 크게 가공 및 제조산업, 전자 및 통신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가공 및 제조산업은 기계공학 및 금속공학, 화학, 농림수산물 가공, 의류·섬유·가죽 및 신발로 세분화하여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표 3-30] 베트남의 FDI 기업 시기별 전략 유치산업(2018-2030)

현재 전략 유치산업	단기 전략 유치산업	중기 전략 유치산업
<p><제조 및 가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급 금속 · 광물 · 화학 · 플라스틱 · 전자 부품 · 첨단 부품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p><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지보수 수리 오버홀/작업 <p><농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농산물 (고품질 쌀, 커피, 차, 해산물, 수경재배 제품 등) <p><관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부가가치 관광서비스 	<p><제조 및 가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의 OEM 및 공급업체 · 환경기술 (풍력설비, 태양광, 정수필터 설비 및 수질 보호 설비 등) 	<p><제조 및 가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약품 및 의료 장비 <p><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T 및 지식 서비스(지식 프로세스 아웃 소싱) · 금융서비스, 금융기술(핀테크) · 교육 및 보건 서비스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한편, 베트남 기획투자부의 2018~2030년 FDI 유치전략 초안(2018년 3월)에 따르면, 베트남의 FDI 유치목표는 “고부가가치·국내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가 강한 FDI 사업의 비중을 높이는 것”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기별 전략 유치산업을 제시하였다. 2020년 기준 전략 유치산업 중 제조업 분야를 살펴보면, 고급 금속, 광물, 화학, 플라스틱 등 기존 제조업 부문 외에, 전자 부품,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첨단 부품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업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시기별로 나누어 단기 전략 유치산업

에는 자동차 및 운송장비 산업 중 OEM 관련 업체의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수련 관련 제조업 등 환경기술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 전략 유치산업을 살펴보면, IT 및 지식, 금융, 교육 및 보건 등의 서비스 외에 의약품 및 의료장비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개정된 베트남 투자법에서는 조건부 투자분야에서 다수의 사업을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베트남 시장접근 조건, 분야 등을 규정화함으로써 체계적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개정된 투자법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는 첨단기술,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기술들을 포함하여 전자제품,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표 3-31] 베트남 투자법에 따른 인센티브 수혜 분야

-
- 과학기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적 결과로 도출된 첨단기술 활동, 첨단기술지원 산업 제품, 연구개발 활동 그와 연관된 생산품 및 기술
 - 신규 소재, 신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및 그 생산, 제품 생산시 에너지 절감을 통해 부가가치를 30% 이상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 주요 전자제품, 기계제품, 농업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생산, 선박건조
 - 부품소재 지원 산업 혜택 리스트에 포함된 제품 생산
 - 정부기술 관련 제품,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생산
 - 농업·임업 및 수산물 재배·가공, 산림조성 및 보호, 제염, 어업 및 관련 물류, 식물 및 동물 품종에 대한 개발 및 생명공학제품 생산
 - 폐기물의 수집·처리·재활용
 -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운영 및 관리에 관한 투자, 도심지역의 공공 여객운송 개발
 - 유아교육, 일반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
 - 건강진단 및 치료, 약물·의약성분 및 필수약품 개발, 생물학적 제품·백신·약초·전통 의약품·희귀 의약품 생산, 이를 생산하기 위한 생명공학적인 연구
 - 장애인 또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체육·스포츠 시설에 대한 투자, 문화유적 가치 개발 및 보호
 - 노인 및 정신질환 관리 센터, 고령제 치료센터에 관한 투자(요양원 장애인 복지원, 고아원 등)
 - 일반인에 대한 신용자금, 소액 금융기관
 - 산업 가치사슬 및 클러스터 생성, 참여를 위한 제품 생산, 서비스 활동
-

<출처 : 2021 국별 진출전략 베트남편(KOTRA, 2021)>

LH는 베트남 흥옌성과 트어티엔후옌성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흥옌성은 2020년 말까지 산업단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산업분야로 조립식 금속 제품 제조,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 제조, 기타 가공 및 제조, 섬유, 전자 제품·컴퓨터 및 광학 제품 제조,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 식품 생산 및 가공, 전기 장비 제조, 금속 생산 등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트어티엔후에성은 산업생산 프로젝트에 대해 유치분야로 음료 생산, 컴퓨터 조립 및 제조, 전자·통신·디지털 제품 조립 및 생산, 가정용 전기 및 전자 제품 조립 및 생산, 자동차 및 오토바이 조립 및 생산, 가죽 신발 생산, 섬유 및 의류 부문의 하위 제품 생산, 하이테크 세라믹 생산, 화학 화장품 생산, 천연추출 약재 및 향료 생산, 동물 및 냉동 제품 가공, 건설 및 농업용 장비 및 기계 조립 및 생산, 의약품 생산, 양식업 및 가축 사료 생산 등을 권고하고 있다.

[표 3-32] 베트남 성별 산업단지 프로젝트 주요 투자유치 분야

구분	유치 분야
흥옌성	<p><주요 산업 및 분야(2020년 말까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립식 금속 제품 제조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 자동차 및 기타 자동차 제조 · 기타 가공 및 제조 · 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 제품, 컴퓨터 및 광학 제품 제조 ·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 · 식품 생산 및 가공 · 전기장비 제조 · 금속 생산
트어티엔후에성	<p><산업생산 프로젝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료 생산 · 컴퓨터 조립 및 제조 · 전자, 통신, 디지털 제품 조립 및 생산 · 가정용 전기 및 전자 제품 조립 및 생산 · 보건시설 생산 · 자동차 및 오토바이 조립 및 생산 · 면화 및 일반 야드 생산 · 가죽 신발 생산 · 섬유 및 의류 부문의 하위 제품 생산 · 하이테크 세라믹 생산 · 테크니컬 고무 생산 · 화학 화장품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추출 약재 및 향료 생산 · 양식업 및 가축 사료 생산 · 동물 및 냉동 제품 가공 · 낙회 및 에너지 절약 장치 생산 · 석영 모래에서 유리 및 심층 가공제품 생산 · 건설 및 농업용 장비 및 기계 조립 및 생산 · 의약품 생산 · 대나무 인조 합판 가공 · 해산물 가공 · 동물성 제품 가공 · 양식업 및 가축 사료 생산

<출처 : 흥옌성 포털(<https://en.hungyen.gov.vn/>); 트어티엔후에성 포털(<https://thuathienhue.gov.vn/>)>

2.3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투자계약 대상이 러시아 연방정부 및 주정부, 시정부인지에 따라 다른 제도와 분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와 체결하는 특별투자계획은 SPIC 2.0(Special Investment Contracts 2.0)에 의해 인센티브를 부여 받을 수 있다. SPIC 2.0에 의한 인센티브 수혜를 위해서는 투자사업이 러시아 정부가 승인한 첨단기술 목록에 해당하는 기술¹²⁾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정부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제공하는 인센티브인 RIP(Regional Investment Project) 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PIC 20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RIP 제도를 통해 재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정부의 인센티브는 SPIC 20과 RIP의 적용 요건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투자할 경우 적용 가능한 투자 제도로, 이는 지역마다 적용 요건과 혜택이 상이하다.

[표 3-33] OKVED 경제활동유형 분류코드에 따른 사업분야

OKVED 'OK 029-2014'	OKVED C 분야 10-33
1) 작물 재배 및 가축 사육, 사냥 및 관련 서비스 제공	OKVED 10 - 식품 제조
2) 식품 제조	OKVED 11 - 음료 제조
3) (가구 제외) 목재 가공, 목재 및 코르크 제품, 식물 제품 생산	OKVED 12 - 담배제품 생산
4) 종이 및 관련 제품 제조	OKVED 13 - 섬유제품 생산
5) 정보매체의 인쇄 및 복사	OKVED 14 - 의류 생산
6) 코르크 및 석유 제품 생산	OKVED 15 - 가죽 및 가죽제품 생산
7) 원유 및 천연가스 생산	OKVED 16 - 목공, 가구를 제외한 목제품 및 코르크 제품 생산, 식물제품 생산
8)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생산	OKVED 17 - 종이 및 종이제품 생산
9) 의약품 및 의약품 재료 생산	OKVED 18 - 정보매체물 인쇄 및 복사
1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OKVED 19 - 코르크 및 석유제품 생산
11) 기타 비금속 광물 제품 생산	OKVED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생산
12) 야금 생산	OKVED 21 - 의약품 및 의약품 재료 생산
13)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 완제품 생산	OKVED 22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
14)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생산	OKVED 23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생산
15) 전자장비 생산	OKVED 24 - 야금 생산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생산	OKVED 25 -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금속 완제품 생산
17)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생산	OKVED 27 - 전자장비 생산
18) 자동차 생산	OKVED 28 - 기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계 및 장비 생산
19) 기타 차량 및 장비 생산	OKVED 29 - 자동차, 트레일러 및 세미 트레일러 생산
20) 가구 생산	OKVED 30 - 기타 차량 및 장비 생산
21) 기타 완제품 생산	OKVED 31 - 가구 생산
22) 2차 원료 처리 사업	OKVED 32 - 기타 완제품 생산
23) 고체, 액체 및 기체 연료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의 도매 거래	OKVED 33 - 기계 및 장비의 수리
24) 자동차 연료 소매 거래	
25) 수송 활동	
26) 창고업 및 보관업	
27) 화물 운송 취급	
28) 호텔 및 기타 관련 사업 및	
29) 도서, 정기간행물 및 기타 유형의 출판 사업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러한 투자인센티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러시아 정부가 규정한 경제활동 유형

- 12) 1) 공작 기계 및 기계공업 투자 2) 농업, 식품 및 도로 건설 공업 3) 경공업 4) 목재 산업 5) 조선 산업 및 해양 공업 6) 무선 전자산업 7) 화학기술복합체 및 생명공학기술 산업 8) 재래식 무기, 탄약 및 특수 화학 물질 산업 9) 야금 및 원료 항공 산업 10) 제약 및 의료 산업 11) 자동차 산업 및 철도 공업 12) 필수 생활용품 산업 13) 러시아 농업부 관할 산업 및 14) 러시아 에너지부 관할 산업

코드인 OKVED(All-Russian classification of Economic Activity) 분류에 따라, SPIC 2.0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OKVED 'OK 029-2014'에 속한 분야에, 그리고 RIP 혜택을 위해서는 OKVED C분야 10-33에 속하는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LH는 러시아 연해주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연해주 투자청(Primorsky Territory Investment Agency)에서는 연해주를 북동부¹³⁾, 서부 및 중부¹⁴⁾, 남부¹⁵⁾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상기 지역을 중심으로 연해주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산업은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제작 산업, 탄화수소의 운송 및 처리, 관광 여행, 농업·어류 가공·양식업, 주택건설·건축자재 생산, 고급 교통 프로젝트(고속도로, 고속철도, 지역항공) 등이다.

2.4 태국

LH는 태국 춘부리주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태국은 중진국 함정 탈출을 위한 태국의 국가 의제로 경제·사회 전반에 ICT 기술을 적용하여 고부가가치 및 혁신주도 경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Thailand 4.0 정책을 2016년부터 국가의 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다. Thailand 4.0에서는 12대 미래산업, 스타트업, 스마트 피플(인적자본)의 육성과 인프라(스마트시티) 구축 등 4차산업 전환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1, 2, 3차산업 전반에 ICT를 접목·육성을 위해 단·중기적으로 자동차, 전자, 의료 및 관광, 농업, 식품 등 5개 산업을 육성하는 First S-Curve를, 장기적으로 디지털, 로봇, 바이오 및 화학, 의료허브, 항공 및 물류, 방산, 교육 등 7개 산업군의 신규 육성을 추진하는 New S-Curve를 구상하고 있으며, 상기 12개 산업에 투자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13) 녹색기술을 중심으로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생산기술 위주의 산업 육성

14) 농업 및 광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하고 있으며, 세부 투자유치 부문으로는 천연자원의 가공, 식품 및 건축자재 관련 산업분야

15)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노력하는 지역으로 금융, 물류, 첨단산업 생산 등의 분야 육성

[표 3-34] 태국 12대 미래산업

구분	해당 산업
First S-Curve 산업	① 전기차 연구개발 및 제조 장려, 자동차 배터리 개발 ② 스마트 전자산업 : 집적회로, 자동 차세대 자동차 산업 친환경 자동차 차 분야 전자시스템 개발, 사물인터넷(IoT),웨어러블 기기, 전자 디자인 마이크로 전자, 임베디드 시스템 디자인 분야 육성 ③ 선진 농업 및 바이오기술 산업 : 센서, 자동화, 데이터분석 등 농업분야에 선진기술 도입 동식물 재배바이오 기술개발, 스마트 농업 ④ 식품가공 산업 : 식품안전성기준 강화, 건강 식품 및 식품 보충제 개발, 저지방, 저설탕, 저에너지 식품 개발 ⑤ 웰니스 및 의료관광 산업 :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소득층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고품격 관광산업 개발, 웰니스 및 재화를 포함한 의료관광객 유치, MICE 산업 발달
New S-Curve 산업	① 디지털 산업 : 디지털파크, 데이터 센터, 사물인터넷(IoT)활성화, 스마트시티 조성 ② 로보틱스 : 통합자동화 시스템, 용접로봇(자동차), 주조성형로봇, 의료용 등 특수로봇 개발 ③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화학 산업 : 카사바 등 태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바이오연료 개발,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 ④ 광범위한 헬스케어 산업 : 헬스케어산업과 의료관광을 연계시킨 발달 추구(원격전자의료 서비스, 센서 기술 개발, 의료기기 및 의약품 분야 연구개발 강화) ⑤ 항공 및 물류업 : 물류센터 설립, 교통 인프라 개발 등 물류 분야 발달을 통한 태국의 아세안 물류허브화, 항공 유지보수(MRO)시설확충, 공항주변 고부가가치 창출 제조시설 개발, 항공훈련센터 개발등 ⑥ 방산 : 군용 드론, 군용로봇, 무인선적, 통신시스템 개발 ⑦ 교육 및 인력개발 : 중점 산업 분야 교육자 양성, 자동화/정보시스템 교육

<출처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와 더불어 태국에서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투자위원회 (Board of investment, BOI)를 두고, 태국 투자와 태국 해외투자 모두에서 가치 있는 투자촉진을 추진 중이다. BOI에서는 농업, 바이오 및 의료산업, 첨단 제조산업, 기본 및 지원산업, 디지털·창조산업,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투자유치 노력 중으로 세부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표 3-35] 태국 주요 투자유치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우주 산업 · 대체 에너지 · 자동차 산업 · 자동화 및 로봇 공학 · 바이오경제 · 바이오 제약 산업 ·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 데이터 센터 및 클라우드 서비스 ·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스타트업 생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자동차 서비스 · 음식 산업 · 고부가가치 서비스 · 기계 산업 · 의학기기 · 의료 허브 · 고무산업 · 스마트 E&E 산업 · 섬유 산업
---	--

<출처 : 태국 투자위원회(<https://www.boi.go.th/ko/index/>)>

2.5 인도네시아

LH는 인도네시아 서부자바주 브카시군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투자정책 및 서비스 조정을 구현하는 정부부처로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BKPM)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해외투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BKPM에서 제안하고 있는 주요 투자분야로는 농수산업(새우양식), 제조업(니켈, 가구, 직물, 신발류, 철강, 설탕), 관광, 에너지(미니 수력발전), 디지털산업, 영화산업 등이다. 이외에 다음 분야에 대해 5년~20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표 3-36] 인도네시아 법인세 감면 혜택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스트림 기본 금속 · 석유 및 가스 정제 · 석유 가스 또는 석탄의 석유화학제품 · 농업 농장 또는 임업제품의 유기기초화학물질 · 무기기초화학물질 · 제약 원료 · 방사선 조사, 전기 의료 또는 전기 치료 장비 · 반도체 웨이퍼, LCD용 백라이트, 전기 드라이버, 디스플레이 등 전자 또는 텔레매틱스 장비의 주요 부품 · 기계 및 기계의 주요 구성요소 · 제조기계 제작을 지원하는 로봇 부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소 기계의 주요 구성요소 · 자동차 및 자동차의 주요 부품 · 선박의 주요 구성요소 · 기차의 주요 구성요소 · 항공기의 주요 부품 및 항공우주 산업을 지원하는 활동 · 펄프를 생산하는 농업, 플랜테이션 또는 임업 기반 가공 · 경제 인프라 ·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디지털 경제
---	--

<출처 : 인도네시아 투자부(<https://www7.bkpm.go.id/home>)>

인도네시아 산업부(Ministry of Industry)의 발표에 따르면, 유니버스법 통과에 따라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부문 하위 카테고리 중 식료품, 자동차, 금속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유치 확대가 전망되며, 자동차 산업 중에서도 전기차량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목하는 등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 2021년 8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한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 개최한 웨비나에서는 ①노동 집약적인 제조업 분야, ②고부가가치 생산 가능한 광업 분야, ③신재생에너지, ④인프라 등 4개 중점 분야를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주요하게 추진 중인 분야로 소개한 바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음료, 섬유 및 봉제, 자동차, 화학, 전자의 5대 중점분야 제조업 육성을 통한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4차 산업혁

명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차원의 산업 로드맵인 Making Indonesia 4.0을 발표하였다. Making Indonesia 4.0은 인도네시아의 5대 중점산업의 자국 내 높은 수요에 비하여 부족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역내 GVC 재편에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부문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표 3-37] 메이킹 인도네시아 4.0 주요 내용 및 유망산업

구분	추진 배경	세부 계획	유망 산업
식음료	· 높은 수입의존도 : 수출 대비 수입액이 2배를 넘음(2017년)	· 자동계측·모니터링, 오토 파일럿 드론 등의 기술을 활용한 업스트림 생산성 향상(원료 자국 내 해결) · 지역별 수출 허브 활성화	· 농업기술 · 포장기술 · 드론 · 스마트 팜
섬유 및 봉제	· 가파른 임금 상승, 노후화된 설비로 인한 낮은 생산성 · 높은 원자재 수입 의존도	· 업스트림 생산능력 및 품질 향상 · 기술도입을 통한 고부가가치 섬유 생산 · 기능성 의류에 대한 내수 및 해외수요 맞는 생산능력 증대	· 스마트팩토리 · 스마트 물류 시스템
자동차 (전기차)	· 높은 일본차 기업 지배력 탈피 · 공해문제 해결과 에너지 안보 · 전기자동차 산업 선도	· 생산규모 확대를 통한 원자재 및 핵심부품 자급자족 · 기술도입 및 물류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 지원을 통해 GVC 진입 · 수출형 차종(저비용 그린카, SUV)등의 현지 위탁생산 유도	· 스마트팩토리 · 전기 자동차
화학	· 거대한 내수 시장 규모에 비해 높은 수입 의존도 · 내수 수요 충족이 불가한 자국 기업의 역량	· 자국 가스전 근접 지역에 석유화학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높은 가격 경쟁력 달성 · R&D를 통한 생산성 향상 · 바이오 연료, 플라스틱 등 차세대 화학 제품 생산 능력 개발	· 신재생에너지 · 친환경소재
전자	· 생활 필수 전자제품 생산 자국 기업 부족 · 선진국과의 큰 격차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글로벌 제조 기업과의 협업 · 단순 조립이 아닌 고 부가가치 전자부품 생산능력 배양 · 기술 도입 및 이전을 통한 내수 역량 확보	· 전자제품

<출처 : 2021 국별 진출전략 인도네시아편(KOTRA, 2021)>

제 4 장

여건변화에 따른 LH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

LAND
LAND
LAND
HOUSING
HOUSING
HOUSING
INSTITUTE
INSTITUTE
INSTITUTE

제4장 여건변화에 따른 LH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

1. 산업단지 등 입주기업의 해외진출 의향

1.1 노후산업단지 현황

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현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20년 이상인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는 2009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에 걸쳐 27개의 지구가 지정되었다.

[표 4-1]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현황

연번		지자체		단지명
		광역	기초	
1	1차 (09.12)	대전	대덕구	대전1·2 일반산업단지
2		대구	북구	대구 제3 일반산업단지
3		대구	서구	서대구 일반산업단지
4		전북	전주시	전주 제1 일반산업단지
5	2차 (14.03)	부산	사상구	사상 일반산업단지
6		강원	춘천시	춘천후평 일반산업단지
7		경남	진주시	진주상평 일반산업단지
8		경북	구미시	구미 제1 국가산업단지
9	3차 (15.07)	경기	안산시	반월 국가산업단지
10		대구	서구	대구염색 일반산업단지
11		전남	순천시	순천 일반산업단지
12		경남	양산시	양산 일반산업단지
13		경기	성남시	성남 일반산업단지
14		광주	광산구	하남 일반산업단지
15		충북	청주시	청주 일반산업단지
16		전북	익산시	익산 국가산업단지

연번		지자체		단지명
		광역시	기초	
16	4차 (17.03)	인천	남동구	남동 국가산업단지
17		대구	달서구	성서 일반산업단지
18		강원	원주시	문막 일반산업단지
19		전남	여수시	여수오전 일반산업단지
20		경기	시흥시	시흥시화 국가산업단지
21		충남	천안시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22		경남	창원시	창원 국가산업단지
23	5차 (19.05)	강원	동해시	북평 국가·일반산업단지
24		충북	충주시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25		전북	군산시	군산·군산2 국가산업단지
26		전북	정읍시	정읍 제3일반산업단지
27		대구	달성군	달성1차 일반산업단지

<출처 : 국토교통부>

이후 2015년 제정된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국토교통부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에 2019년 5개 단지(군산·군산2, 달성1차, 북평, 정읍제3, 충주제1), 2021년 12개 단지(광양, 광주첨단, 구미, 남동, 대구제3, 서대구, 성서, 여수, 왜관, 울촌제1, 하남, 한국수출)가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되었다.

[표 4-2] 2021년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현황

연번		지자체		단지명
		광역시	기초	
1	2021년 지정	전남	광양시	광양 국가산업단지
2		광주	북구	광주첨단 국가산업단지
3		경북	구미시	구미 국가산업단지(1,2,3,4)
4		인천	남동구	남동 국가산업단지
5		대구	북구	대구 제3일반산업단지
6		대구	서구	서대구 일반산업단지
7		대구	달서구	성서 일반산업단지(1,2,3)
8		전남	여수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9		경북	칠곡군	왜관 일반산업단지
10		전남	여수시	울촌 제1일반산업단지
11		광주	광산구	하남 일반산업단지
12		인천	부평구	한국수출(부평,주안) 국가산업단지

2)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현황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사업지구 면적의 30% 이내에서 활성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이익 채투자 미적용, 기반시설설치 우선지원, 주택법 및 주차장법 등 특례를 적용받는다. 2022년 현재 활성화구역 4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LH는 서대구, 성남, 대전 등 3개의 활성화구역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표 4-3]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활성화구역 지정현황

구분	서대구	부산사상공업	성남	대전
지정년도	2016	2018	2019	2020
사업기간	2016-2020	2018-2023	2019-2023	2020-2024
사업면적	14,813㎡	17,348㎡	13,563㎡	99,514㎡
사업내용	지식산업센터, 복합건축물	지식산업센터, 청사 등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창업지원센터 등	지식산업센터, 복합건축물, 주거 및 상업시설
사업시행자	LH, 대구시, 주택도시기금, 민간	부산도시공사, 부산시, 민간 등	LH, 성남시, 주택도시기금, 민간	LH, 대전시

LH가 참여하고 있는 3개 노후산업단지의 준공연도를 살펴보면, 성남일반산단은 1976년, 서대구일반산단은 1978년, 대전일반산단은 1979년으로 모두 준공 후 40년이 넘어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이다. 또한 이들 산업단지는 지정 당시에는 도시외곽에 입지해 있었으나, 기존 도시경계가 확장되면서 도시내로 편입되어 신규 도시기능과의 부조화가 발생하고 있다.

[표 4-4] LH 참여 노후산업단지의 일반 현황

구분	성남일반산단	서대구일반산단	대전일반산단
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원	대구 서구 종리동 일원	대전 대덕구 대화동, 읍내동 일원
면적(천㎡)	1,512	2,661	2,313
준공연도(연도)	1976	1978	1979
기업체수(개)	3,837	2,435	357
근로자수(명)	43,002	13,712	4,308

3개 산업단지의 구역별 비율을 살펴보면, 노후산업단지는 최근 조성된 산업단지에 비해 산업시설구역의 비중이 70% 이상으로 기업체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기능이 부족한 편이다. 성남일반산단 및 대전일반산단의 지원시설구역 비중은 각각 1.3%와

3.9%에 불과한 반면, 서대구일반산단은 지원시설구역에 주거와 상업시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그 비중이 23.6%에 달한다.

[표 4-5] LH 참여 노후산업단지의 구역별 면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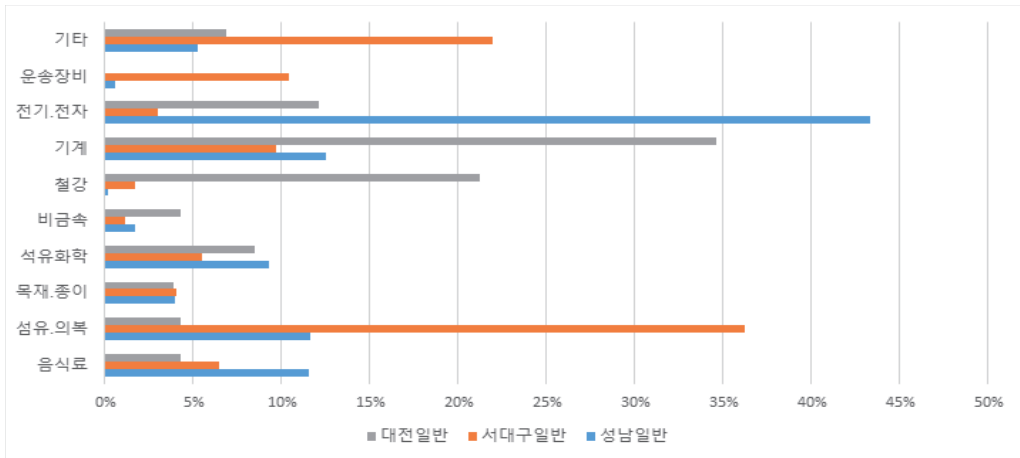
(단위: 천㎡)

구분	성남일반산단	서대구일반산단	대전일반산단
합계	1,512(100%)	2,661(100%)	2,313(100%)
산업시설구역	1,164(77.0%)	1,287(48.4%)	1,635(70.7%)
복합시설구역	-	24(0.9%)	59(2.6%)
지원시설구역	20(1.3%)	627(23.6%)	119(5.1%)
공공시설구역	241(16.0%)	496(18.6%)	346(15.0%)
녹지구역	86(5.7%)	226(8.5%)	144(6.2%)
기타	-	-	10(0.4%)

다음으로 3개 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남일반산업단지의 주력 업종은 전기·전자산업으로 해당 기업체수는 1,119개이며, 전체 입주기업의 29.1%를 점유하고 있다. 서대구일반산단의 주력 업종은 섬유·의복산업으로 해당 기업체수는 881개이며, 전체 입주기업의 36.2%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일반산단의 주력 업종은 기계 및 철강산업으로 해당 기업체수는 171개이며, 전체 입주기업의 47.9%를 점유하고 있다.

[표 4-6] LH 참여 노후산업단지의 업종별 입주업체 현황

구분	성남일반산단	서대구일반산단	대전일반산단
합계	3,837	2,435	357
음식료	299	158	13
섬유·의복	301	881	13
목재·종이	103	98	12
석유화학	239	133	26
비금속	45	27	13
철강	4	42	65
기계	323	235	106
전기·전자	1,119	73	37
운송장비	14	254	-
기타	136	534	21
비제조	1,254	-	-



[그림 4-1] LH 참여 노후산업단지의 업종별 업체비중 현황

1.2 설문조사 개요

1) 설문대상 및 문항

본 연구에서는 L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단지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국내 산업단지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의 해외산업단지 입주의향 및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요구사항, 더불어 기진출 해외공장의 국내복귀 의향에 대해 파악하였다.

설문조사는 노후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기업의 업종(제조업 중분류,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산업단지 입지지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을 고려한 표본할당(Random Sampling)을 통해 진행하였다. 주요 설문문항은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의향,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시 세부사항,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세부사항, 기진출 해외공장의 국내복귀 의향 등이다(부록 참조).

2) 설문조사 기초통계

설문조사는 이메일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동년 8월 4일까지 조사하였다. 5,021개 기업에 유선연락을 우선 실시하여 해외로 사업장 이전 또는 확장 의향을 질문하고, 이전 및 확장 의향이 있는 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53개 업체의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4-7).

[표 4-7]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 수 (개)	비율(%)
입지	산업단지 내	80	52.3
	산업단지 외	73	47.7
업종	제조업	137	89.5
	제조업 외	16	10.5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10	6.5
	5~20명 미만	43	28.1
	20~50명 미만	49	32.0
	50명 이상	51	33.3
전체		153	100.0

1.3 설문조사 결과

1)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 의향

국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 또는 확장하려는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 설문문에 응답한 총 153개의 업체 중 43.8%에 해당하는 67개 업체가 해외 이전 또는 확장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나머지 56.2%인 86개 업체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이나 이전·확장 의향은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이와 더불어, 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진출대상 국가에 대한 질문 결과, ‘베트남’이 68개 업체(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27개 업체(17.6%), ‘미얀마’ 15개 업체(9.8%), ‘태국’ 9개 업체(5.9%), ‘러시아’ 6개 업체(3.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 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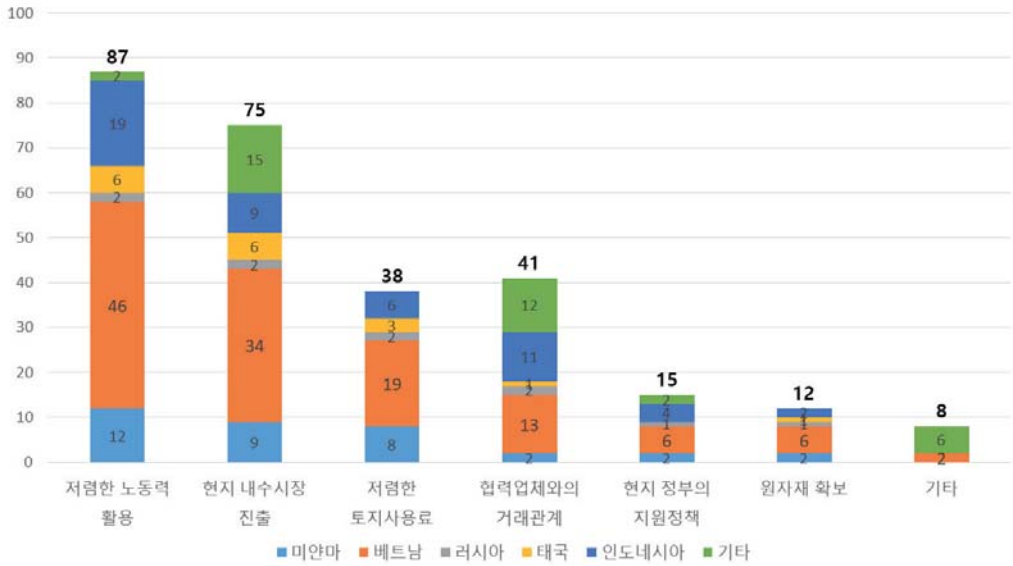
[표 4-8] 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지역

(단위: %)

구분		응답 수(개)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¹⁶⁾
전체		(153)	9.8	44.4	3.9	5.9	17.6	18.3
입지	산업단지 내	(80)	6.3	45.0	2.5	3.8	12.5	30.0
	산업단지 외	(73)	13.7	43.8	5.5	8.2	23.3	5.5
업종	제조업	(137)	10.9	45.3	4.4	6.6	18.2	14.6
	제조업 외	(16)	-	37.5	-	-	12.5	50.0

이전 또는 확장을 원하는 이유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87건 (56.9%)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지 내수시장 진출’ 75건(49.0%),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동반진출 등)’ 41건(26.8%), ‘저렴한 토지사용료’ 38건(24.8%),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 15건(9.8%), ‘원자재 확보’ 12건(7.8%) 순으로 답변을 보였다.

16) 미국, 일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폴란드, 헝가리, 이집트, 멕시코, 인도, 라오스,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앙아시아, 북미 등



[그림 4-3] 해외 이전 또는 확장하려는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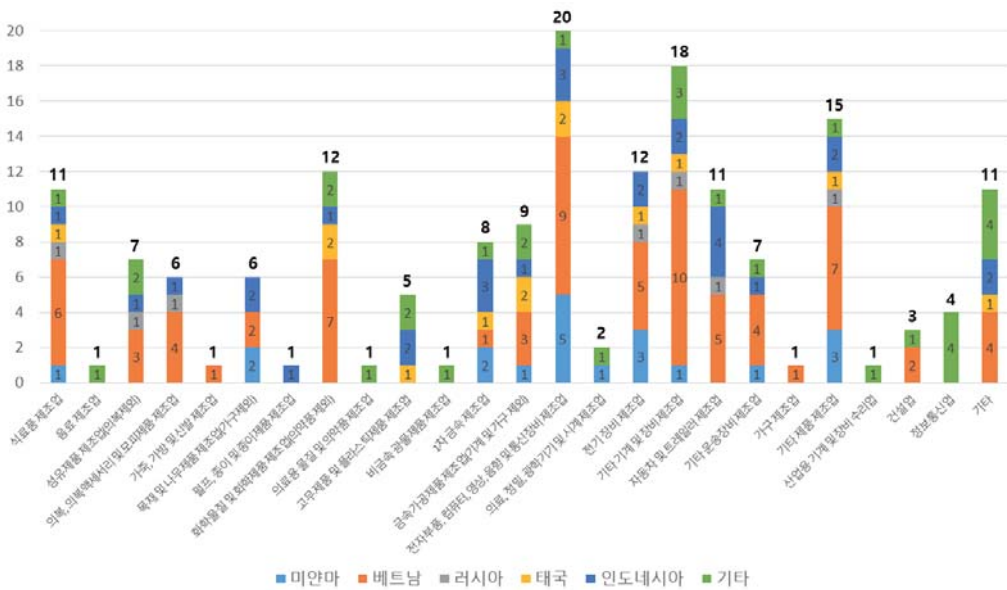
[표 4-9] 해외 이전 또는 확장하려는 이유(복수응답)

(단위: %)

구분		응답수(개)	저렴한 노동력 활용	현지 내수시장 진출	저렴한 토지 사용료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	원자재 확보	기타 ¹⁷⁾
전체		(153)	56.9	49.0	24.8	26.8	9.8	7.8	5.2
입지	산업단지 내	(80)	41.3	52.5	12.5	33.8	7.5	5.0	10.0
	산업단지 외	(73)	74.0	45.2	38.4	19.2	12.3	11.0	-
업종	제조업	(137)	62.8	47.4	27.7	24.8	10.9	8.8	2.9
	제조업 외	(16)	6.3	62.5	-	43.8	-	-	25.0
진출 희망 국가	미얀마	(15)	80.0	60.0	53.3	13.3	13.3	13.3	-
	베트남	(68)	67.6	50.0	27.9	19.1	8.8	8.8	2.9
	러시아	(6)	33.3	33.3	33.3	33.3	16.7	16.7	-
	태국	(9)	66.7	66.7	33.3	11.1	-	11.1	-
	인도네시아	(27)	70.4	33.3	22.2	40.7	14.8	7.4	-
	기타	(28)	7.1	53.6	-	42.9	7.1	-	21.4

17) 원활한 배송 및 운송료 절감, 관련업체와의 거리 및 물류거점, 글로벌 거점 확장, 고객의 요청, 현지 영업사무소 설치, 신규사업개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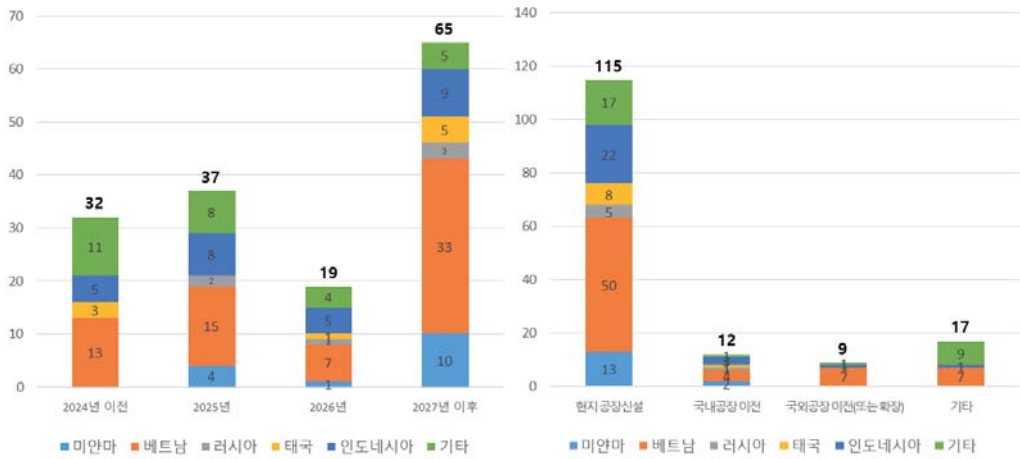
해외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업체들의 세부 업종을 살펴보면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20개 업체(11.5%)로 가장 이전·확장 의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8개 업체(10.3%), ‘기타 제품 제조업’ 15개 업체(8.6%), ‘전기 장비 제조업’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이 각각 12개(6.9%)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4-4] 세부 업종별 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지역

2) 국내 사업장의 해외이전시 세부사항

해외 이전 및 확장을 희망하는 시기는 ‘2027년 이후’가 총 65개 업체(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2025년’ 37개 업체(24.2%), ‘2024년 이전’ 32개 업체(20.9%), ‘2026년’ 19개 업체(12.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해외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형태는 ‘현지 공장신설’이 115개 업체(75.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국내공장 이전’ 12개 업체(7.8%), ‘국외공장 이전(또는 확장)’ 9개 업체(5.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림 4-5] 이전 또는 확장 희망 시기

[그림 4-6] 이전 또는 확장 희망 형태

[표 4-10] 이전 또는 확장 희망 시기

(단위: %)

구분		응답수(개)	2024년 이전	2025년	2026년	2027년 이후
전체		(153)	20.9	24.2	12.4	42.5
입지	산업단지 내	(80)	25.0	23.8	16.3	35.0
	산업단지 외	(73)	16.4	24.7	8.2	50.7
업종	제조업	(137)	19.0	24.1	13.1	43.8
	제조업 외	(16)	37.5	25.0	6.3	31.3
진출 희망 국가	미얀마	(15)	-	26.7	6.7	66.7
	베트남	(68)	19.1	22.1	10.3	48.5
	러시아	(6)	-	33.3	16.7	50.0
	태국	(9)	33.3	-	11.1	55.6
	인도네시아	(27)	18.5	29.6	18.5	33.3
	기타	(28)	39.3	28.6	14.3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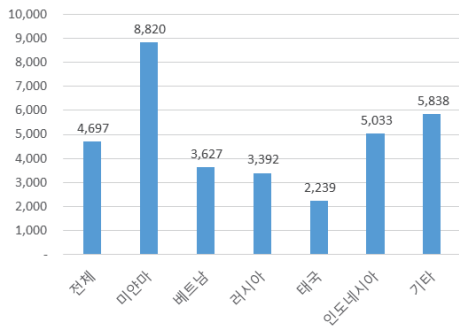
[표 4-11] 이전 또는 확장 희망 형태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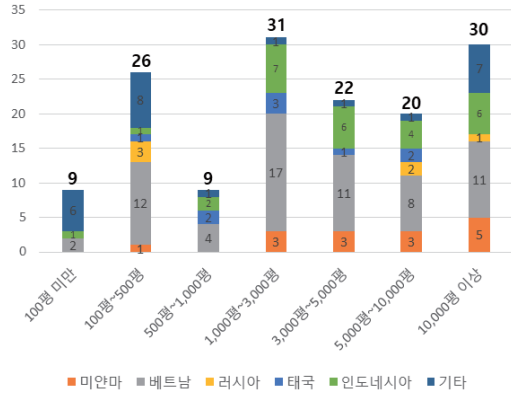
구분		응답수(개)	현지 공장 신설	국내공장 이전	국외공장 이전 (또는 확장)	기타 ¹⁸⁾
전체		(153)	75.2	7.8	5.9	11.1
입지	산업단지 내	(80)	72.5	2.5	7.5	17.5
	산업단지 외	(73)	78.1	13.7	4.1	4.1
업종	제조업	(137)	78.8	8.8	6.6	5.8
	제조업 외	(16)	43.8	-	-	56.3
진출 희망 국가	미얀마	(15)	86.7	13.3	-	-
	베트남	(68)	73.5	5.9	10.3	10.3
	러시아	(6)	83.3	16.7	-	-
	태국	(9)	88.9	11.1	-	-
	인도네시아	(27)	81.5	11.1	3.7	3.7
	기타	(28)	60.7	3.6	3.6	32.1

국내 사업장을 해외로 이전 또는 확장시 필요한 토지면적에 대해 설문한 결과, 평균적으로 약 4,700평의 토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필요한 토지면적을 국가별 평균값으로 살펴보면, 미얀마가 8,820평으로 가장 넓은 토지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 5,033평, 베트남 3,627평, 러시아 3,392평, 태국 2,239평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해외 이전 및 확장시 필요한 토지면적의 분포를 살펴보면, '1,000~3,000평 미만'이 31개 업체(21.1%)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10,000평 이상' 30개 업체(20.4%, 2만평 이상 6.8% 포함), '100~500평 미만' 26개 업체(17.7%)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18) 지사(지점, 사무소), 법인, 현장관리사무소, 연구소, 현지 진출업체에 물류서비스 제공, 합작신설 및 공장 매입 후 수리, 현지정부 협력기반 병원 위탁운영 등



[그림 4-7] 국가별 필요한 토지 평균 면적(평)



[그림 4-8] 이전 또는 확장시 필요한 토지면적 분포(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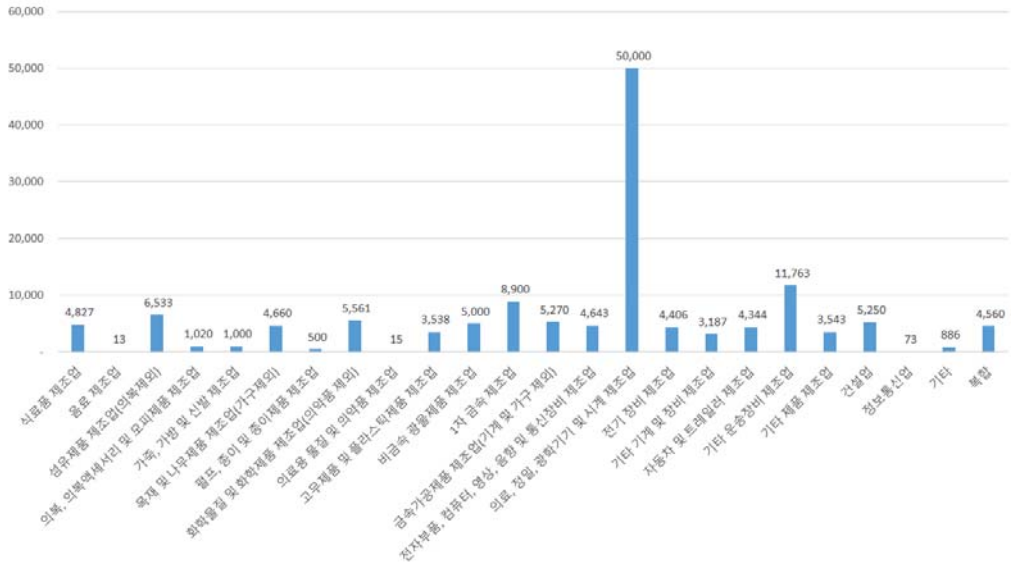
[표 4-12] 해외 이전 또는 확장 필요 토지면적

(단위: %)

구분	응답 수(개)	100평 미만	100~500평 미만	500~1천평 미만	1천~3천평 미만	3천~5천평 미만	5천~10천평 미만	10천평 이상	평균 (평)
전체	(147)	6.1	17.7	6.1	21.1	15.0	13.6	20.4	4,696.5
입지	산업단지 내	(74)	9.5	27.0	6.8	14.9	14.9	9.5	4,073.3
	산업단지 외	(73)	2.7	8.2	5.5	27.4	15.1	17.8	5,328.3
업종	제조업	(133)	3.8	15.8	6.0	22.6	15.0	15.0	5,050.4
	제조업 외	(14)	28.6	35.7	7.1	7.1	14.3	-	1,335.1
진출 희망 국가	미얀마	(15)	-	6.7	-	20.0	20.0	20.0	8,820.0
	베트남	(65)	3.1	18.5	6.2	26.2	16.9	12.3	3,627.1
	러시아	(6)	-	50.0	-	-	-	33.3	3,391.7
	태국	(9)	-	11.1	22.2	33.3	11.1	22.2	2,238.9
	인도네시아	(27)	3.7	3.7	7.4	25.9	22.2	14.8	5,032.9
	기타	(25)	24.0	32.0	4.0	4.0	4.0	4.0	5,837.6

세부 업종별로 필요한 평균 토지면적을 살펴보면,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평균적으로 50,000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면적을 요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1,763평, ‘1차금속 제조업’ 8,900평,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6,533평 순으로 넓은 토지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음료 제조업’의 경우 13평,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5평, ‘정보통신업’ 73평 순으로 적은 토지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9] 세부 업종별 필요 토지면적(평)

국가 및 세부업종별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평균 토지면적을 살펴보면, 동일 업종이라도 국가에 따라 필요로 하는 토지면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미얀마로 진출을 희망하는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50,000평으로 가장 큰 토지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H에서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5개 국가 중 인도네시아로 진출을 희망하는 ‘1차 금속 제조업’ 14,733평, 인도네시아 ‘전기 장비 제조업’ 12,500평, 미얀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11,000평, 미얀마 ‘1차 금속 제조업’, 러시아 ‘식료품 제조업’, 인도네시아 ‘식료품 제조업’이 각각 10,000평 순으로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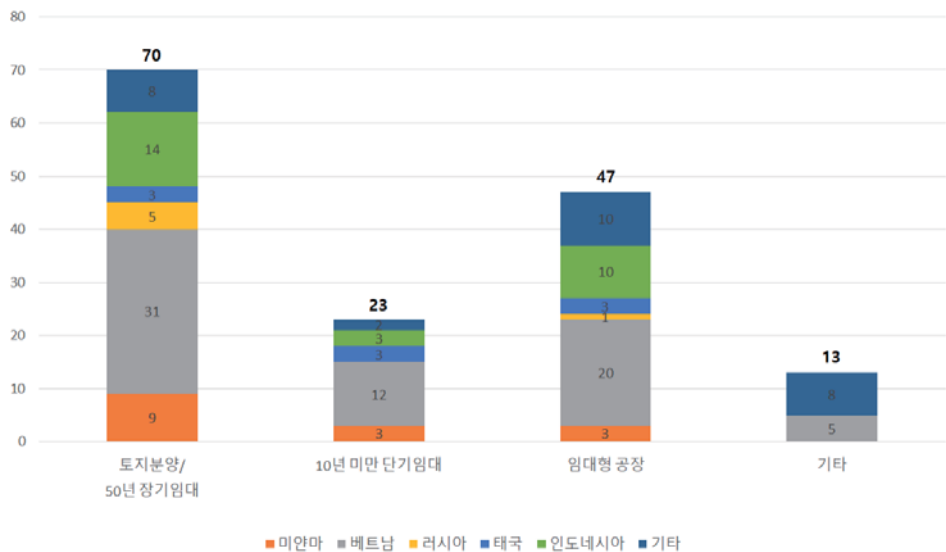
[표 4-13] 국가별·업종별 평균 필요 토지면적

(단위: 평)

구분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식료품 제조업	3,000	4,917	10,000	500	10,000	100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1,200			5,000	15,30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027			1,00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0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6,150	5,000			3,00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800		6,050	5,000	15,00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000	2,000	5,07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000
1차 금속 제조업	10,000	6,000		2,000	14,733	10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4,433			2,000	8,161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1,000	4,186		100	1,250	10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50,000					
전기 장비 제조업	2,000	417	5,000		12,5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037	150	1,000	100	3,00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000	100		4,75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9,017				20,000
기타 제품 제조업	4,000	4,250	5,000		2,000	10
건설업		5,250				
정보통신업						73
기타		1,538			1,525	78
복합	4,000	1,675	100	2,833	3,269	30,000

3)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세부사항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희망하는 요구 사항 중, 희망하는 해외산업단지 입주형태는 '토지분양 또는 50년 장기임대'에 대한 수요가 70개 업체(4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임대형 공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47개(30.7%), '10년 미만 단기임대'를 희망하는 업체가 23개(15.0%)로 조사되었다. 국가별 희망 입주 형태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토지분양 또는 50년 장기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경우 83.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태국의 경우, '토지분양 또는 50년 장기임대'와 '토지임대 또는 10년 미만 단기임대', '임대형 공장'이 각각 33.3%로 동일한 선호도를 보였다.



[그림 4-10] 희망하는 해외산업단지 입주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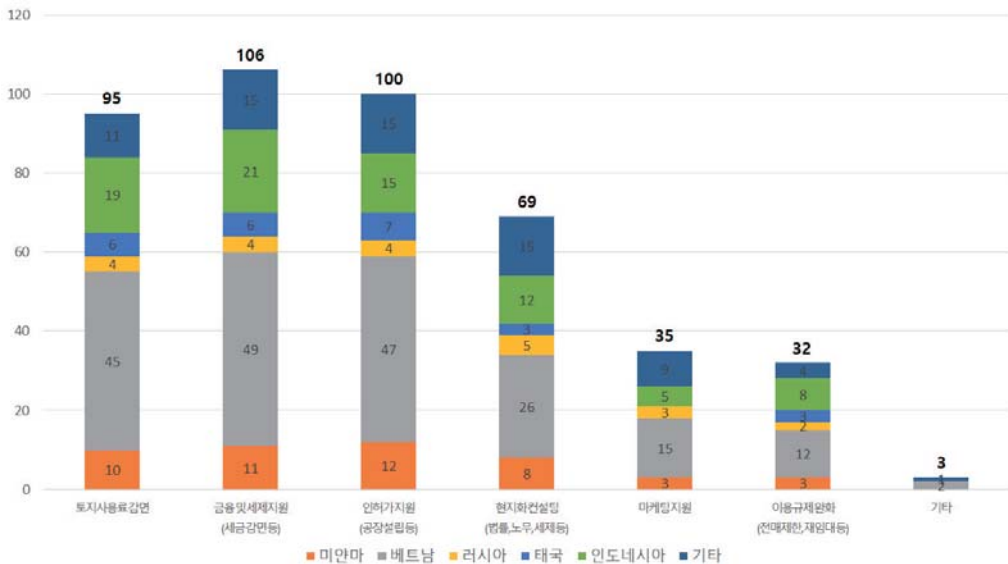
[표 4-14] 희망하는 해외산업단지 입주형태

(단위: %)

구분		응답수(개)	토지분양 (50년 장기임대)	토지임대 (10년 미만 단기임대)	임대형 공장	기타 ¹⁹⁾
전체		(153)	45.8	15.0	30.7	8.5
입지	산업단지 내	(80)	38.8	11.3	35.0	15.0
	산업단지 외	(73)	53.4	19.2	26.0	1.4
업종	제조업	(137)	50.4	15.3	29.9	4.4
	제조업 외	(16)	6.3	12.5	37.5	43.8
진출 희망 국가	미얀마	(15)	60.0	20.0	20.0	-
	베트남	(68)	45.6	17.6	29.4	7.4
	러시아	(6)	83.3	-	16.7	-
	태국	(9)	33.3	33.3	33.3	-
	인도네시아	(27)	51.9	11.1	37.0	-
	기타	(28)	28.6	7.1	35.7	28.6

19) 토지매입, 기존 공장 매매, 건물 또는 사무공간 임차, 기존 시설 위탁운영, 물류창고 등

이와 더불어,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선호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한 결과, ‘세금감면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이 106건(6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공장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 지원’ 100건(65.4%), ‘토지사용료 감면’ 95건(62.1%), ‘법률·노무·세제 등 현지화 컨설팅’ 69건(45.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국가별로 선호하는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미얀마와 태국의 경우 ‘공장설립 등 인허가 지원’에 대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세금 감면 등 금융 및 세제지원’, 러시아는 ‘법률·노무·세제 등 현지화 컨설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1]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선호 인센티브(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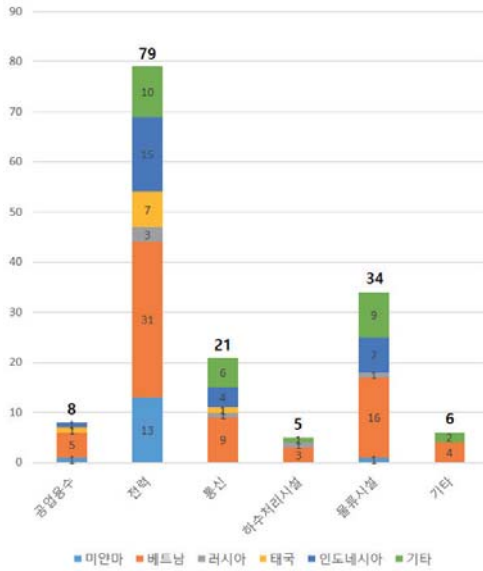
[표 4-15] 선호하는 인센티브(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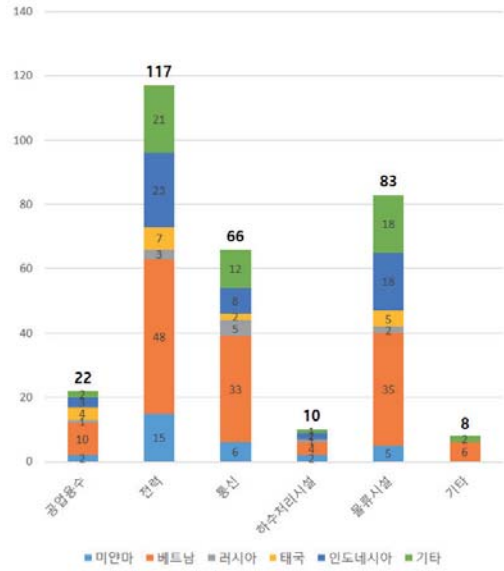
구분		응답 수(개)	토지 사용료 감면	금융 및 세제지원	인허가 지원	현지화 컨설팅	마케팅 지원	이용규제 완화	기타 ²⁰⁾
전체		(153)	62.1	69.3	65.4	45.1	22.9	20.9	2.0
입지	산업단지 내	(80)	56.3	65.0	60.0	40.0	23.8	17.5	3.8
	산업단지 외	(73)	68.5	74.0	71.2	50.7	21.9	24.7	-
업종	제조업	(137)	63.5	69.3	68.6	43.8	21.9	20.4	0.7
	제조업 외	(16)	50.0	68.8	37.5	56.3	31.3	25.0	12.5
진출 희망 국가	미얀마	(15)	66.7	73.3	80.0	53.3	20.0	20.0	-
	베트남	(68)	66.2	72.1	69.1	38.2	22.1	17.6	2.9
	러시아	(6)	66.7	66.7	66.7	83.3	50.0	33.3	-
	태국	(9)	66.7	66.7	77.8	33.3	-	33.3	-
	인도네시아	(27)	70.4	77.8	55.6	44.4	18.5	29.6	-
	기타	(28)	39.3	53.6	53.6	53.6	32.1	14.3	3.6

다음으로,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인프라에 대한 조사 결과, 1순위 기준으로는 전력이 79개 업체(51.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물류시설’ 34개 업체(22.2%), ‘통신’ 21개 업체(13.7%), ‘공업용수’ 8개 업체(5.2%), ‘하수처리 시설’ 5개 업체(3.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1+2순위 복수응답 결과, 1순위와 마찬가지로 ‘전력’이 117개 업체(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물류시설’ 83개 업체(54.2%), ‘통신’ 66개 업체(43.1%), ‘공업용수’ 22개 업체(14.4%), 하수처리시설 10개 업체(6.5%) 순으로 나타났다.

20) 한국 의료인 면허 인정 또는 자격 취득 절차 완화 등



[그림 4-12]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중요 산업인프라 (1순위)



[그림 4-13]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중요 산업인프라 (1+2순위)

[표 4-16] 해외산업단지 입주 중요 산업인프라(1순위)

(단위: %)

구분	응답수 (개)	공업용수	전력	통신	하수처리시설	물류시설	기타 ²¹⁾
전체	(153)	5.2	51.6	13.7	3.3	22.2	3.9
입지	산업단지 내	(80)	7.5	41.3	16.3	3.8	26.3
	산업단지 외	(73)	2.7	63.0	11.0	2.7	17.8
업종	제조업	(137)	5.1	56.2	11.7	2.9	22.6
	제조업 외	(16)	6.3	12.5	31.3	6.3	18.8
진출 희망 국가	미얀마	(15)	6.7	86.7	-	-	6.7
	베트남	(68)	7.4	45.6	13.2	4.4	23.5
	러시아	(6)	-	50.0	16.7	16.7	-
	태국	(9)	11.1	77.8	11.1	-	-
	인도네시아	(27)	3.7	55.6	14.8	-	25.9
	기타	(28)	-	35.7	21.4	3.6	32.1

21) 의료서비스, 인력 및 원자재 수급, 수배송 인프라, 접근성 개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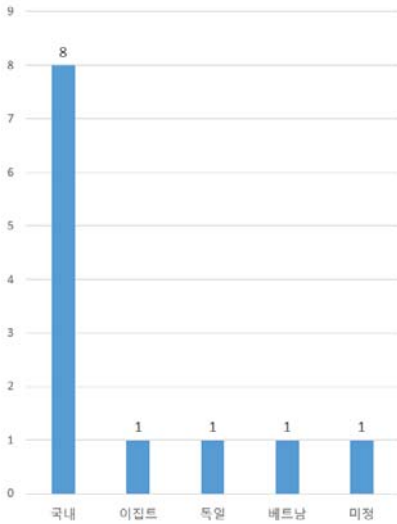
[표 4-17] 해외산업단지 입주 중요 산업인프라(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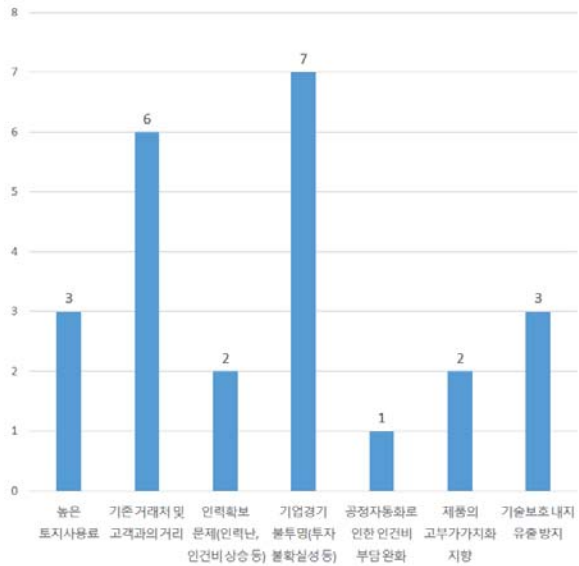
구분		응답수 (개)	공업용수	전력	통신	하수처리시설	물류시설	기타
전체		(153)	14.4	76.5	43.1	6.5	54.2	5.2
입지	산업단지 내	(80)	16.3	66.3	45.0	6.3	58.8	7.5
	산업단지 외	(73)	12.3	87.7	41.1	6.8	49.3	2.7
업종	제조업	(137)	15.3	79.6	41.6	6.6	55.5	1.5
	제조업 외	(16)	6.3	50.0	56.3	6.3	43.8	37.5
진출 희망 국가	미얀마	(15)	13.3	100.0	40.0	13.3	33.3	-
	베트남	(68)	14.7	70.6	48.5	5.9	51.5	8.8
	러시아	(6)	16.7	50.0	83.3	16.7	33.3	-
	태국	(9)	44.4	77.8	22.2	-	55.6	-
	인도네시아	(27)	11.1	85.2	29.6	7.4	66.7	-
	기타	(28)	7.1	75.0	42.9	3.6	64.3	7.1

4) 기진출 해외공장의 국내복귀 의향

설문에 응답한 153개 업체 중 기진출한 해외공장이 있는 업체는 총 54개 업체로, 그 중 국내복귀 또는 타국으로의 이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 국내로 복귀할 의향이 있는 업체는 총 8개 업체로 조사되었으며, LH가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5개국 중 베트남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 업체는 1개, 기타 이집트와 독일로 이전 의향이 있는 업체는 각각 1개 업체, 마지막으로 이전 의향이 있으나 협력업체의 상황에 따라 이전 대상지를 결정할 업체가 1개로 조사되었다. 해당 업체들이 국내복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이유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 불투명'이 7회(58.3%)로 가장 높은 답변을 보였으며, '기존 거래처 및 고객과의 거리' 6회(50.0%), '높은 토지사용료'와 '기술보호 내지 유출방지'가 각각 3회(25.0%) 순으로 답변하였다.



[그림 4-14] 국내복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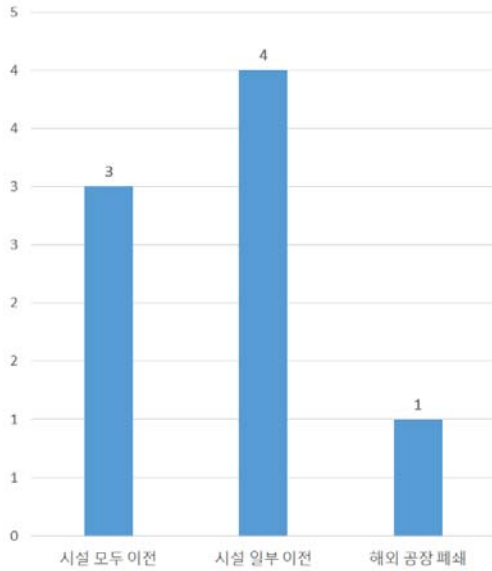
[그림 4-15] 국내복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 이유(복수응답)

[표 4-18] 국내복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 이유(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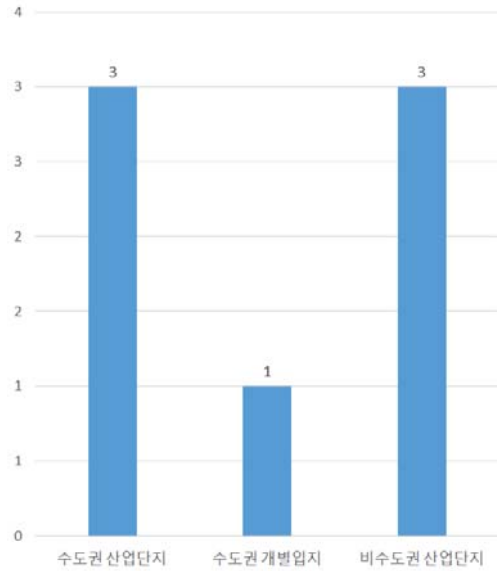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응답 수(개)	높은 토지 사용료	기존 거래처 및 고객과의 거리	인력확보 문제	기업경기 불투명	공정 자동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지향	기술보호 내지 유출 방지
전체	(12)	25.0	50.0	16.7	58.3	8.3	16.7	25.0
입지	산업단지 내	(7)	14.3	57.1	-	57.1	-	14.3
	산업단지 외	(5)	40.0	40.0	40.0	60.0	20.0	40.0
업종	제조업	(10)	20.0	60.0	20.0	60.0	10.0	20.0
	제조업 외	(2)	50.0	-	-	50.0	-	50.0

국내 복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 의향이 있는 업체들 중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국내복귀 유형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설 일부 이전 4개 업체(50.0%), '시설 모두 이전 3개 업체(37.5%), '해외 공장 폐쇄 1업체(12.5%)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희망하는 국내복귀 지역은 '수도권 산업단지'와 '비수도권 산업단지'가 각각 3개 업체(42.9%), '수도권 개별입지' 1개 업체(14.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희망하는 국내복귀 유형



[그림 4-17] 희망하는 국내복귀 지역

[표 4-19] 희망하는 국내복귀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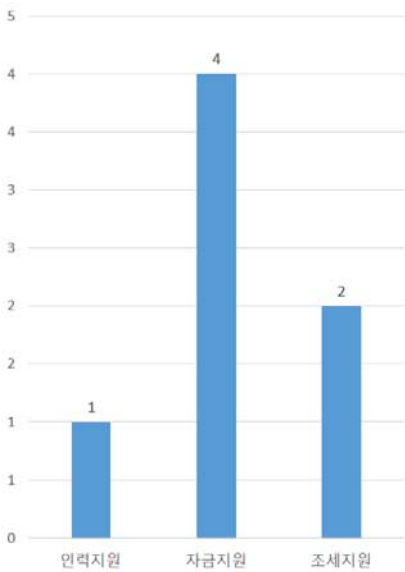
구분		응답수(개)	시설 모두 이전	시설 일부 이전	해외 공장 폐쇄
전체		(8)	37.5	50.0	12.5
입지	산업단지 내	(5)	40.0	60.0	-
	산업단지 외	(3)	33.3	33.3	33.3
업종	제조업	(7)	42.9	42.9	14.3
	제조업 외	(1)	-	100.0	-

[표 4-20] 희망하는 국내복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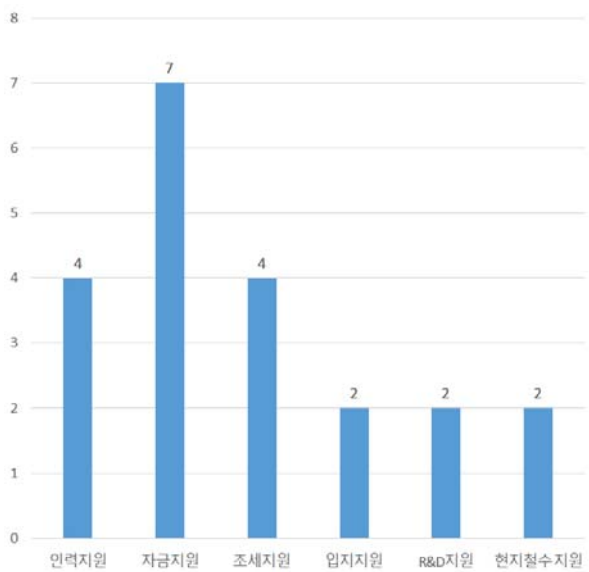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응답수(개)	수도권 산업단지	수도권 개별입지	비수도권 산업단지	비수도권 개별입지	해외 공장 폐쇄
전체		(7)	42.9	14.3	42.9	-	-
입지	산업단지 내	(5)	40.0	-	60.0	-	-
	산업단지 외	(2)	50.0	50.0	-	-	-
업종	제조업	(6)	33.3	16.7	50.0	-	-
	제조업 외	(1)	100.0	-	-	-	-

이와 더불어 국내복귀 의향이 있는 경우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설문 결과, 1순위를 살펴보면 '자금지원'이 4개 업체(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조세지원' 2개 업체(28.6%), '인력지원' 1개 업체(14.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1+2+3순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자금지원'이 7개 업체(100.0%), '조세지원'과 '인력지원'이 각각 4개 업체(5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4-18] 국내복귀시 필요한 지원정책(1순위)



[그림 4-19] 국내복귀시 필요한 지원정책 (1+2+3순위)

[표 4-21] 국내복귀시 필요한 지원정책(1순위)

(단위: %)

구분	응답수 (개)	인력지원	자금지원	조세지원	임지지원	R&D 지원	현지 철수 지원	판로지원
전체	(7)	14.3	57.1	28.6	-	-	-	-
입지	산업단지 내	(5)	20.0	40.0	40.0	-	-	-
	산업단지 외	(2)	-	100.0	-	-	-	-
업종	제조업	(6)	-	66.7	33.3	-	-	-
	제조업 외	(1)	100.0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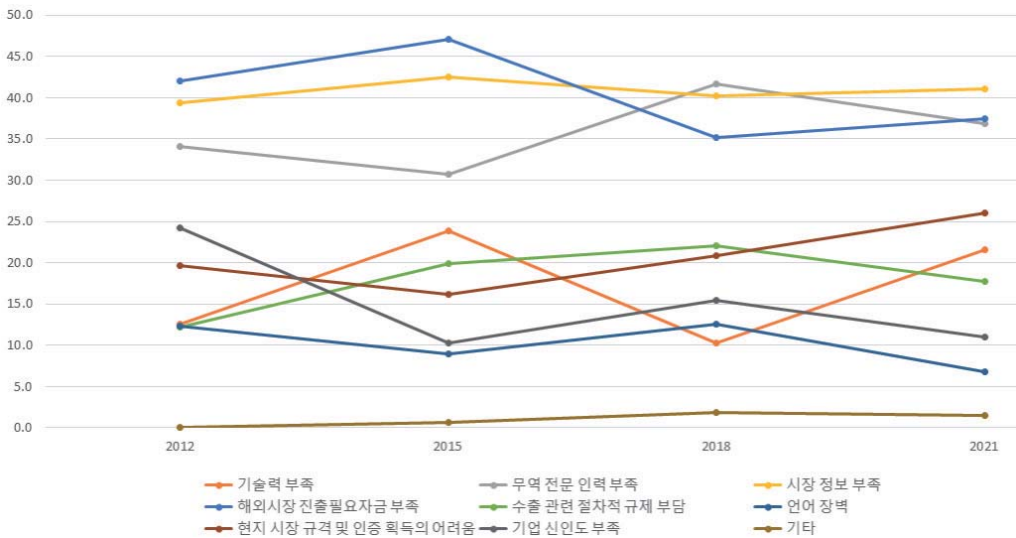
[표 4-22] 국내복귀시 필요한 지원정책(1+2+3순위)

(단위: %)

구분	사례수	인력지원	자금지원	조세지원	입지지원	R&D 지원	현지철수 지원	판로지원
전체	(7)	57.1	100.0	57.1	28.6	28.6	28.6	-
입지	산업단지 내	(5)	60.0	100.0	80.0	20.0	20.0	-
	산업단지 외	(2)	50.0	100.0	-	50.0	50.0	-
업종	제조업	(6)	50.0	100.0	50.0	33.3	33.3	-
	제조업 외	(1)	100.0	100.0	100.0	-	-	-

1.4 유사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실시한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²²⁾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해외 시장 진출시 애로사항 1+2순위는 대체적으로 ‘시장정보 부족’, ‘해외시장 진출 필요 자금 부족’, ‘무역 전문인력 부족’의 3가지가 각각 30% 이상으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20]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사항(1+2순위)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2012, 2015, 2018, 2021)>

22) 중소기업벤처부(舊중소기업청)에서 2012년부터 실시 중인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참고

[표 4-23] 해외시장 진출시 애로사항(1+2순위)

(단위: %)

구분	기업체수 (개)	기술력 부족	무역 전문 인력 부족	시장 정보 부족	해외시장 진출 필요자금 부족	수출 관련 절차적 규제 부담	언어 장벽	현지 시장 규격 및 인증 획득의 어려움	기업 신인도 부족	기타
2012	(827)	12.5	34.1	39.4	42.0	12.2	12.3	19.7	24.2	0.0
2015	(31,189)	23.9	30.7	42.5	47.1	19.9	8.9	16.2	10.3	0.6
2018	(31,318)	10.3	41.6	40.2	35.2	22.1	12.5	20.8	15.4	1.8
2021	(34,868)	21.6	36.8	41.1	37.4	17.7	6.8	26.0	11.0	1.5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2012, 2015, 2018,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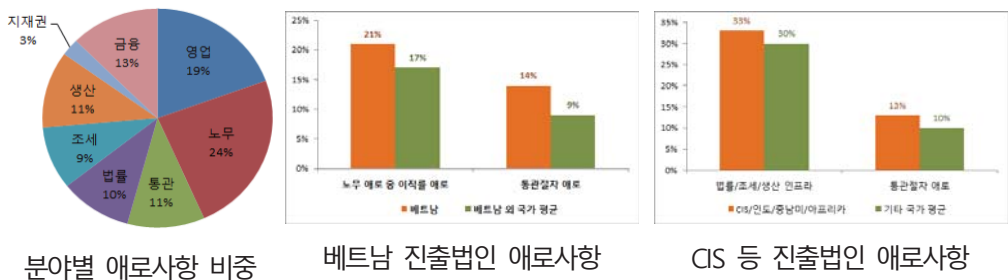
이 중 ‘시장정보 부족’의 경우 약 40%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해외시장 진출 필요자금 부족’의 경우 약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반면, ‘무역 전문인력 부족’의 경우 약간의 등락은 있으나 다른 애로사항 대비 약간 상승하는 경향이다. 이외에 ‘기업 신인도 부족’은 2012년 24.2%의 비율을 보였으나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현지 시장규격 및 인증 획득의 어려움’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본 연구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 선호하는 인센티브와 비교시, 높은 비율로 선호하고 있는 ‘토지사용료 감면’ 및 ‘금융 및 세제지원’은 해외시장 진출 필요자금 부족과 연계된 항목으로 유사한 요구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무역 전문인력 부족과 시장정보 부족, 그리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현지시장 규격 및 인증획득의 어려움 또한 본 연구에서 추진한 설문조사 결과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 중 45%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는 ‘인허가 지원’, ‘현지화 컨설팅’과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함께 전 세계 125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관을 통해 12,500여개 현지진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에서는 현지법인의 애로사항으로 현지인 및 한국인 직원채용 애로, 현지인의 높은 이직률 등 ‘인력채용’과 현지기업과의 품질·가격 경쟁, 현지 거래처 가격인하 요구 등의 ‘경쟁심화’와 같은 노무·영업 분야에서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국·베트남은 임금상승, 인도·독립국가연합(CIS) 등은 통

관절차 관련 애로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본 연구에서 중점 진출대상국으로 다루고 있는 베트남은 중국 대체시장으로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국가로 임금상승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높은 이직률에 따른 애로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통관절차와 관련된 애로도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러시아가 속한 독립국가연합(CIS)은 투자보호법 미비, 불명확한 조세 기준, 생산설비·전력·물류인프라 부족 등 법률·조세·생산인프라 미비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으며, 복잡한 통관절차, 불분명한 관세부과 기준 등 통관절차에서의 어려움 또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조사에서 매출실적 조사에 응답한 현지법인 2513개 업체 중 6.8%에 달하는 171개사가 현지 시장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장의 축소 또는 철수 및 이전을 고려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이 중 타 국가로의 이전을 고려중인 법인은 36개 업체(21.1%)였으며, 7개 업체는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21]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2019)>

마지막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1,59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3년에 실시한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해외투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해외에 진출해 있거나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전체 응답업체의 14%에 해당하는 223개 업체이며, 이 중에서 기진출해 있는 경우(144개 업체)를 제외하면 해외진출 계획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경우는 79개 업체(약 5%)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석유화학, 전기전자 및 운송장비 업체의 10% 이상이 기진출해 있으며, 석유화학과 철강 업체의 7% 이상이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4] 해외투자 실태 및 계획

(단위: 개사, %)

구분		기진출	관심있는 기업			계획없음	계
			구체적인 투자계획 有	해외투자 검토중	필요성은 있으나 여건상 어려움		
규모별	전체	144 (9.0)	8 (0.5)	32 (2.0)	39 (2.4)	1,374 (86.0)	1,597 (100.0)
	소기업	30 (2.6)	6 (0.5)	24 (2.1)	29 (2.5)	1,051 (92.2)	1,140 (71.4)
	중기업	87 (21.4)	2 (0.5)	7 (1.7)	9 (2.2)	302 (74.2)	407 (25.5)
	대기업	27 (54.0)	0 (0.0)	1 (2.0)	1 (2.0)	21 (42.0)	50 (3.1)
주요업종별	섬유	3 (6.1)	0 (0.0)	0 (0.0)	1 (2.0)	45 (91.8)	49 (3.1)
	목재종이	7 (7.5)	0 (0.0)	3 (3.2)	1 (1.1)	82 (88.2)	93 (5.8)
	석유화학	19 (10.5)	1 (0.6)	6 (3.3)	7 (3.9)	148 (81.8)	181 (11.3)
	철강	6 (6.2)	1 (1.0)	2 (2.1)	4 (4.1)	84 (86.6)	97 (6.1)
	기계	37 (6.6)	2 (0.4)	6 (1.1)	12 (2.1)	506 (89.9)	563 (35.3)
	전기전자	51 (11.8)	4 (0.9)	12 (2.8)	8 (1.9)	356 (82.6)	431 (27.0)
	운송장비	19 (13.0)	0 (0.0)	3 (2.1)	4 (2.7)	120 (82.2)	146 (9.1)

<출처: 조혜영 외(2013)>

[표 4-25] 투자희망 대상국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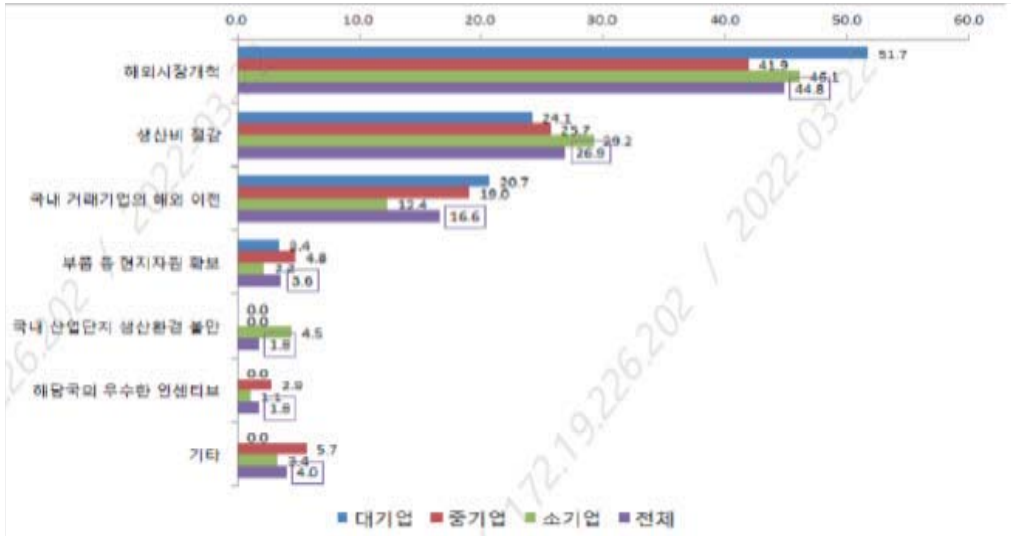
(단위: %)

투자(희망)국		아시아				북미	유럽	기타	계
		중국	동남아	기타 아시아	소계				
전체		57.0	21.5	6.3	84.8	4.5	2.7	8.1	100.0
진출 여부	기진출	67.4	17.4	2.8	87.5	6.3	2.1	4.2	100.0
	관심기업	38.0	29.1	12.7	79.7	1.3	3.8	15.2	100.0
기업 규모별	대기업	62.1	13.8	3.4	79.3	17.2	3.4	0.0	100.0
	중기업	62.9	20.0	3.8	86.7	3.8	1.9	7.6	100.0
	소기업	48.3	25.8	10.1	84.3	1.1	3.4	11.2	100.0

<출처: 조혜영 외(2013)>

기진출 기업 및 해외투자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투자지역 및 대상국은 중국 57.0%, 동남아 21.5%, 기타 아시아 6.3%, 북미 4.5%로 아시아 지역이 전체의 84.8%로 나타났다. 이 중, 기진출 기업은 중국이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해외투자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동남아 및 기타 아시아 지역이 41.8%로 높게 나타났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선호 비중은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높은 반면, 북미지역은 대기업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외투자 사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이 44.8%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생산비용 절감 26.9%, 국내 거래기업의 해외 이전 16.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2] 기업규모별 해외투자 사유

<출처 : 조혜영 외(2013)>

2013년 산업단지공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진출을 희망하는 지역의 경우, 동남아시아 국가로 진출하고자 하는 응답이 77.7%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3년 대비 중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감소하였다. 한편, 해외로 이전 또는 확장하려는 이유는 2013년과 유사한 응답을 보였다. 하지만 2013년 조사에서 해외시장 개척(44.8%), 생산비용 절감(26.9%), 국내 거래기업의 해외이전(16.6%) 순으로 나타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복수응답이긴 하나 생산비용 절감과 관련된 저렴한 노동력 활용(56.9%)과 저렴한 토지사용료(24.8%)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49.0%),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26.8%)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2. 중점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간 연계

2.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희망업종

[표 4-26] 미얀마 해외진출 희망업종 매칭 결과

구분		진출희망 업종	유치업종	기진출 업종
고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중고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전기 장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중저위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	○
저위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식품 제조업	○	○	○
	음료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기타	가구 제조업	○	○	
	기타 제품 제조업		○	○
	건설업			
	정보통신업			
	기타			

미얀마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업종과 미얀마로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 그리고 미얀마에 기진출한 업종을 매칭한 결과, 미얀마에서는 고위산업 중 의료부문과 관련된 산업들과 중고위산업 중 화학 및 자동차부문 연관 산업에 대해 유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외 대부분의 중저위 및 저위산업들에 대한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위 및 중고위산업 부문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부문으로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타 운송장

비 제조업의 경우 기진출 업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고위·중고위산업 부문 중 미얀마 정부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업종의 진출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유치 업종과 매칭되지 않는 업종의 경우에는 기진출 업체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분야의 기진출 업체가 없는 경우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표 4-27] 베트남 해외진출 희망업종 매칭 결과

구분		진출희망 업종	유치업종	기진출 업종
고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중고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
	전기 장비 제조업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
중저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저위	식료품 제조업	○	○	○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
기타	기타 제품 제조업	○	○	○
	건설업	○		
	정보통신업		○	
	기타			○

베트남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업종과 베트남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 그리고 베트남에 기진출한 업종을 매칭한 결과, 베트남 정부는 고위, 중고위, 중저위, 저위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유치를 추진 중이며, 베트남으로 기진출한 업체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또한 제조업 전반에 걸쳐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부문으로 진출을 희망할 경우 기진출한 업체들과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베트남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과 매칭되는 진출희망 업종은 베트남 정부의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단순 생산을 넘어 유지·보수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부문과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정보통신업 부문이 보다 적극적으로 베트남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홍보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표 4-28] 러시아 해외진출 희망업종 매칭 결과

구분		진출희망 업종	유치업종	기진출 업종
고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중고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전기 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중저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식품 제조업	○	○	
저위	음료 제조업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	
	기타 제품 제조업		○	
기타	건설업			
	정보통신업			
	기타			

러시아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업종과 러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 그리고 러시아에 기진출한 업종을 매칭한 결과, 러시아 정부는 제조업 전반에 걸쳐 투자유

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진출한 업체들 또한 고위, 중고위, 중저위산업을 중심으로 골고루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출 희망업종 대부분이 유치업종과 매칭이 되므로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보제공 및 행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정부에서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의 수리에 대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MRO 부문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29] 태국 해외진출 희망업종 매칭 결과

구분		진출희망 업종	유치업종	기진출 업종
고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중고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
	전기 장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중저위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저위	식품 제조업	○	○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			
기타	기타 제품 제조업	○		○
	건설업			
	정보통신업		○	
	기타	○		

태국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업종과 태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 그리고 태국에 기진출한 업종을 매칭한 결과, 태국에서는 고위, 중고위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며, 기진출 업체 또한 고위, 중고위 및 중저위산업 전반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출을 희망하는 업종의 경우 유치업종과 매칭되는 경우가 적은 편으로 보다 원활한 진출을 위해 한국 정부의 지원과 함께 기진출한 업체와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한국이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업의 진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0] 인도네시아 해외진출 희망업종 매칭 결과

구분		진출희망 업종	유치업종	기진출 업종
고위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
중고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	○
	전기 장비 제조업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중저위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	○	○
	식품 제조업	○	○	○
저위	음료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	○
	가구 제조업	○		○
	기타 제품 제조업			○
기타	건설업	○		
	정보통신업		○	
	기타			○

인도네시아에서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업종과 인도네시아로 진출하고자 하는 업종,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기진출한 업종을 매칭한 결과,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위, 중고위, 저위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으며, 기진출한 업체들 또한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규로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 중 유치업종과 매칭되지 않는 경우 기진출 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원활한 진출을 지원할 필요

가 있으며,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기진출 업체 또한 없는 건설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인도네시아 정부 또한 베트남과 태국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업에 대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 해외진출 희망업종의 중점국가별 연계방안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희망업종과 진출국가의 유치업종 및 기진출한 업종간 연계를 고려한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으로 ①기진출 업종과의 연계, ②고위 및 중고위산업 관련 기업진출 지원, ③미진출 업종 진출시 정부 지원방안 마련, ④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유치분야 진출, ⑤국가별 특화전략 도출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기진출 업종과의 연계를 위한 방안을 살펴보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업 업종이 기진출해 있음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업종 외에 다양한 업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전자 및 섬유 등과 같은 전통업종을 중심으로 유치함으로써 기진출한 업체들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대부분의 경우 저위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종이 진출한 경우가 많으며, 진출 대상국 또한 저위기술 중심의 산업 또한 유치 노력 중으로 저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진출 지원 및 기진출 업체와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중점대상국들은 고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유치 또한 희망하고 있으므로, 고위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희망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미얀마와 러시아의 경우 기존에 진출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유치 의지가 강한 편으로, 해당 국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기진출하지 않은 업종이 진출하고자 할 경우 한국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미얀마와 러시아를 제외한 3개 국가에서 정보통신업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바, 한국이 기술적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업 부문에 대한 진출을 도모하고,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로 대표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분야

에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홍보 및 진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현지 기반 마련을 위한 진출국 정부와의 협상 등 정부차원의 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이상으로 살펴본 중점국가별 특성을 바탕으로 L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 단지의 국가별 특화전략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미얀마의 경우,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제조업’은 정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내에서도 진출을 희망하는 고위산업으로 해당 업종에 부합하는 첨단장비 등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이외에 ‘1차 금속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은 기진출 업체가 있는 미얀마 정부의 유치희망 업종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진출하고자 하여 이를 위한 물류 및 오염방지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가구 제조업’의 경우, 미얀마에서 유치를 희망하면서 국내에서도 진출을 희망하는 업종으로, 유사 업종간 상호연계를 위한 용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진출희망 기업은 없지만 기진출 업체가 있는 미얀마 정부의 유치희망 업종으로, 서로 연계가 가능한 기진출 업체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를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베트남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분야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진출을 희망하는 업종과 기진출한 업종 또한 전 분야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적 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고위산업군을 위한 첨단시설 도입방안과 유관 업종간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내 블록화 등 조성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고위산업군 중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경우, 진출희망 기업은 없으나 기진출 업체가 있어 이들을 산업단지로 입주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등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및 물류시설을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유치하고자 하나 국내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은 특성을 보인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업'의 경우 기존출 업체가 있는 러시아 정부의 유치희망 업종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진출하고자 하여 이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존출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함께 입주시키므로서 상호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및 물류시설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 상호연계 가능한 업종들이 집적할 수 있도록 용지를 블록화 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경우, 중저위 및 저위산업보다는 고위 및 중고위산업에 대한 유치의지가 강하므로 이들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같은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입주를 위한 오염방지 및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같이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및 물류시설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고위 및 중고위 그리고 저위산업을 중심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의 경우 진출희망 업체가 없어 기존출한 업체를 산업단지에 입주시키기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정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내에서도 진출을 희망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의 경우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특성을 감안하여 오염방지 및 재해예방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및 물류시설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4-31] 중점국가별 해외산업단지 특화전략

구분	주요업종	전략
미얀마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첨단장비 등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
	• 1차 금속 제조업	• 오염방지시설 구비
	• 식료품 제조업	• 식품관련 물류시설 구비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 가구 제조업	• 유사 업종간 상호 연계방안 마련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기진출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유사 업종간 상호 연계방안 마련)
베트남	• 고위 산업군	• 첨단장비 등이 도입될 수 있는 환경조성
	• 유관 산업군	•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내 용지 블록화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계획 및 물류시설 조성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기진출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진출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을 함께 입주시킴으로서 상호연계 도모 •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계획 및 물류시설 조성
러시아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식품관련 물류시설 구비 •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내 용지 블록화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내 용지 블록화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
태국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처리시설 및 산업재해 예방시설 구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계획 및 물류시설 조성
	• 식료품 제조업	• 식품관련 물류시설 구비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진출 업체의 산업단지 입주 지원
인도네시아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화학물질 처리시설 및 산업재해 예방시설 구비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계획 및 물류시설 조성

3.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3.1 해외진출기업 지원정책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해외진출지원제도는 대외경제장관회의(‘13.12.19)의 ‘정상 외교 경제분야 성과 극대화를 통한 기업지원 방안’에 따라 산업부 주관하에 KOTRA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외교 활용포털²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포털에서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크게,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신성장분야 해외진출 지원,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FTA 활용 지원, 무역·투자 금융 지원,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해외 취·창업 지원, 해외진출 애로해소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지원사업은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법무부, 외교부, 해외건설협회 등의 전문기관이 맡아 추진 중이다.

현재 경제외교 활용포털에는 총 142개의 해외진출지원사업이 소개되어 있다. 이 중 국내기업이 해외로 직접 진출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 또는 판로 개척 등과 관련된 지원사업을 제외할 경우 총 46개 사업이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46개 사업은 분야에 따라 교육, 금융, 법률, 인력, 인증, 정보제공, 컨설팅, 행정, 인프라, 종합지원, 기타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 3곳과 정부산하기관 등 총 14개 기관에서 각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2]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지원사업

구분		지원사업	주요 내용	담당 기관
교육	해외 취·창업 지원	글로벌 무역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 온·오프라인 마케팅, 외환금융, Biz 외국어 등 분야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	한국무역협회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교육연수	중소·중견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KOTRA
금융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지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에 제공하는 차관조건을 우대해주고 전용차관제도 운영	한국수출입은행

23) <https://president.globalwindow.org>

무역·투자 금융 지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	국내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과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기술보증 기금	
	환위험 관리 보험(환변동 보험)	외화금액을 원화로 사전에 확정시킴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 른 위험을 헤지(Hedge)하는 상품	한국무역 보험공사	
	이행성 보증 및 채무 보증 지원	수출 및 수주에 필요한 이행성 보증과 채무보증을 취급한 금융기관의 위험을 경감	한국수출입 은행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우리 기업 혹은 해외 현지법인에게 해 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 조건으로 공여 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 보험공사	
	해외투자보험 (투자금융)	국내외 금융기관이 해외 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 한 소요자금을 대출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 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이행성보증서(AP, P, Bid, W Bond 등)를 발행한 금융기관 이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	한국무역 보험공사	
	전대금융 활용	해외 현지은행을 통해 한국기업의 수출수입·해외사업에 필 요한 자금을 대출	한국수출입 은행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지원단	해외진출 중소기업에게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법률 설명회 개최, 해외 법령 정보 제공등을 지원	법무부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사업	해외진출(예정) 중소기업의 콘텐츠 및 파생 상품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재산 보호 전략을 제공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K-브랜드 보호기반 구축	해외 진출 K-브랜드 피해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지재 권 분쟁과 관련된 애로 해결을 지원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IP-DESK)	해외 11개국 17개 IP-DESK에서 해외진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산권 확보, 보호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	KOTRA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 (IP-DESK 미소재 국가)	IP-DESK가 소재하지 않는 2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지 재산권 보호 강화를 지원	KOTRA	
	국제 지재산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해외진출(예정)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재산권 보호를 위한 대 응전략을 제공	한국지식 재산보호원	
해외진출 애로해소	재외공관 법률자문 서비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및 해외 현지 사업 운영과정에서 겪는 법적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위해 현지 법률 자문 을 제공	외교부	
인력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K-Move 센터 운영	청년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KOTRA 해외 무역관에 K-Move 센터를 설치·운영	KOTRA
	해외 취·창업 지원	해외취업 월드잡플러스 (WorldJob+)	해외진출 정보, 해외취업연수·알선 등 구직자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한국산업 인력공단
		해외취업 화상면접 주간	외국기업, 해외진출기업 등 한국 청년 채용을 희망하는 구 인기업과 한국 구직 청년 간의 1:1 면접 기회를 제공	KOTRA
		해외취업 연수지원 (K-Move 스쿨)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거쳐 해외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의 취업초기 현지 적응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민간 해외취업 알선 지원	국외 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해외취업 알선기관이 알선을 진행할 때의 알선수수료를 지원	한국산업 인력공단
인 증	해외진출 애로해소	인증 표준 정보지원센터(1381)	국내외 인증표준에 대한 상담부터 획득까지 기업이 필요한 인증표준 정보 제공 및 상담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대상 국가에서 요구하는 CE, NMPA 등 해외규격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을 지원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환경표지(마크) 해외인증 지원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해외의 환경표지(마크)를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한국환경 산업기술원
정 보 제 공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경제외교 활용포털	경제외교 관련 정보 제공	KOTRA
		무역투자 종합정보	KOTRA 해외시장 뉴스, 트레이드 내비	한국무역 협회 /KOTRA
		해외시장 조사	해외무역을 통해 해외 잠재 파트너를 발굴하고 시장 동향, 원부자재 공급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KOTRA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빅데이터 기반 품목별 유망시장 추천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가 HS코드 6단위 기준 해외 유망 시장을 추천하고, 국가별 수출입 통계정보를 제공	KOTRA
		빅데이터 기반 잠재 파트너 추천	빅데이터와 AI(인공지능)기반으로 KOTRA가 확보한 해외기업DB를 통해 국내기업과 품목 연관도가 높은 잠재 파트너 정보를 제공	KOTRA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법인 설립 지원	해외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기업에게 법인 설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현지 네트워크를 알선	KOTRA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무역투자 상담	무역투자상담센터(Trade Doctor), 이동 KOTRA, TradeSOS 무역실무·무역애로 상담	한국무역 협회 /KOTRA
	컨 설팅	해외투자 진출 지원	국가별·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들이 해외투자 관련 업무에 대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	한국수출입 은행 /KOTRA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KOTRA
		ICT 글로벌멘토링센터	ICT 중소기업이 해외진출시 직면하는 단계별 문제를 해결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KOTRA
행 정	해외진출 애로해소	해외 통관애로 해소	수출입 기업의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 통관애로 해결을 지원	관세청
인 프 라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	해외 현지에 독자적으로 물류센터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KOTRA 해외무역관이 물류인프라를 지원	KOTRA
종 합 지 원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국내·외 컨퍼런스 참가, 글로벌 기업 연계, 디지털 마케팅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	KOTRA

기 타	신성장 분야 해외진출 지원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해운·물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화주·물류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	한국해양 수산개발원
	해외투자 진출 지원	글로벌 M&A 지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핵심 기술·브랜드·유통망·생산 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M&A를 지원	KOTRA
		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	해외 진출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DNA 분야 융합 제품·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해외 현지 조인트벤처 설립·운영을 지원	본투글로벌 센터
		ICT 해외진출 지원사업	ICT 분야 혁신기술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	본투글로벌 센터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해외비즈니스 출장 지원	KOTRA 해외무역관이 개별 기업의 해외 세일즈 및 해외투자 환경조사를 위한 현지출장 활동을 지원	KOTRA
기 타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외국어 통번역 지원	중소 수출업체가 원활하게 해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	한국무역 협회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17개 국가에 24개의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현지 진출과 정착을 지원	KOTRA

<출처 : 경제외교 활용포털(<https://president.globalwindow.org>)>

앞서 분류한 11개 항목별로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지원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관련된 사업들은 무역실무, 마케팅, 외국어 등 해외진출을 위한 기본 소양과 함께 각 지역별 진출전략 등 진출대상국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국내기업의 직접적인 진출보다는 글로벌사업 수행을 위한 기본 역량 강화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해외진출시 필요한 실무적 능력을 배양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금융과 관련한 지원사업들을 살펴보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활용지원'의 경우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설립한 개도국 내 법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조업 등 상업성을 추구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해 국내 제조업관련 업체의 진출시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외에 현지 수입업체에 현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는 전대금융과 함께 해외진출과 관련된 각종 보증,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 헷지, 금융계약을 체결한 국내 금융기관의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보험 등 리스크를 저감함으로써 국

내 금융기관들로부터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일정 수출액 이상의 조건 등을 만족하는 기업들에 한정되고 있으며, 보다 직접적인 금융지원과는 거리가 멀어 영세한 업체의 경우 큰 효과를 체감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법률과 관련된 지원사업으로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법률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제도와 함께, 재외공관을 통해 해외진출 이후 운영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을시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식재산권 및 특허, 상표·디자인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문제발생시 지원하는 사업들이 시행 중이다.

넷째, 인력수급과 관련된 지원사업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로 취업을 하고자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기회 제공, 현지 정착을 위한 지원금 제공 등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이는 해외로 진출한 국내기업들에게 해당 인력을 연계시켜줄 수는 있으나, 현지 법상 진출국의 인력을 활용해야하는 상황에서 현지 인력의 수급 및 업무능력 제고 등에는 활용할 수 없다. 진출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전수 및 교육 등 ODA 사업을 통해 현지 인력양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고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이 진출할 경우에는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섯째, 인증과 관련된 지원사업의 경우 진출하고자하는 국가에서 제품판매시 필요한 각종 인증이나 표준규격과 관련된 것으로, 각종 인증에 대한 정보제공, CE(Conformite Europeen), NMPA(National Medical Products Administration) 등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의 지원, 상호 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체결을 통해 해외의 환경표지(마크)를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이다.

여섯째,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제공은 KOIRA 해외시장뉴스, 트레이드 내비(TradeNAVI)²⁴⁾ 등을 통해 세계 각국의 시장과 관련된 뉴스, 국가 및 지역정보, 비즈니스 관련 정보와 각종 통계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빅데이터 기반 유망품목

24) www.tradenavi.or.kr

및 잠재적 파트너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필요한 경우 조사가 필요한 국가에 대해 시장조사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해외법인 설립 관련 정보제공 및 현지 네트워크 알선 등 사업이 시행 중이다. 해당 서비스들은 해외진출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에서부터 전문적인 정보까지 폭넓게 제공하고 있어 해외진출을 고려할 때 활용도가 높다. 다만, 다양한 기관에서 각 기관에 특화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구득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으로, 해외진출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채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컨설팅과 관련된 지원사업에서는 앞서 기술한 정보제공에서와 같이 진출 대상국의 현지 시장정보와 같은 기본 정보부터 법규, 각종 행정절차, 인력확보 방안, 세무, 회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보제공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및 ‘정보통신업’과 관련된 ICT부문 중소기업의 경우 ‘ICT 글로벌멘토링센터’를 통해 해외진출 사전준비 및 전략부터 국가정보 및 시장현황, 기업 및 제품 현지화, 현지거점 설립,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안내, 협상 및 계약, 기타 해외진출 관련 사항까지 전 부문에 대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여덟째, 진출대상국에서의 행정적인 부문과 관련해서는 통관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해외 통관애로 해소’ 사업이 있다. 이는 국내 전국 세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입지원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는 EU, 미국(워싱턴·LA), 일본, 중국(북경·상해·청도·대련), 홍콩,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등에 파견된 관세관을 통해 통관 관련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절차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보다 다양하며, 법·제도적인 측면 외에 현지 관습 등 사회·문화적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아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심도있는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홉째,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물류와 관련된 서비스를 KOTRA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KOTRA 무역관이 소재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 현지창고 및 보관, 입출고, 포장, 배송, 반품, 통관, 수입대행 등 현지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해외진

출시 필요로 하는 인프라는 물류 외에 전력과 통신에 대한 수요도 높은 편으로 보다 다양한 인프라 관련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

열번째, 컨설팅부터 홍보, 유관기업 매칭 등 해외진출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으로, 이는 스타트업, 해외물류시장 개척, ICT, D.N.A(Data, Network, AI)분야 혁신기술 스타트업 등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현지조사를 위한 출장활동 지원,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17개 국가(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폴란드, 독일, 러시아, 몽골, 멕시코, 브라질, 인도, 헝가리, 미국, 말레이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다.

3.2 해외진출기업 지원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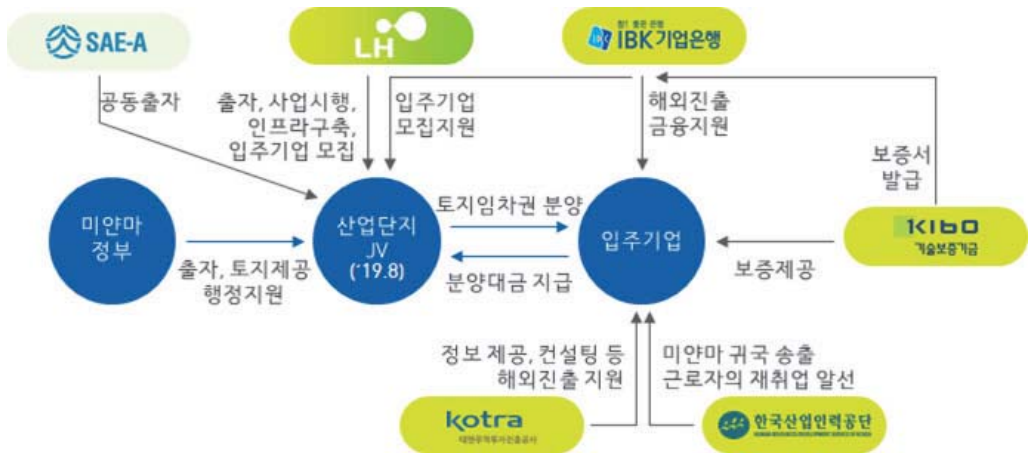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LH에서 추진하는 해외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원활한 입주를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①해외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②진출 희망기업 수요를 반영한 해외산업단지 계획 수립, ③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④(가칭)해외산단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⑤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출 희망기업 홍보 등이 가능하다.

1) 해외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이란 그간 흔히 언급되어 왔던 Team Korea처럼, 해외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진출대상국 정부와 국내외 유관기관, 해외산업단지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함께 연계된 사업구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현재 LH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의 민

간기업 지원을 위한 Team Korea에서 해외산업단지는 LH와 미얀마 정부, 국내 공동출자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JV를 통해 조성된다. 이때 미얀마 정부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출자 및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LH는 출자와 사업시행을 포함하여 관련 인프라 구축,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입주기업 모집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LH를 통해 모집된 입주기업은 JV에 분양대금 지급을 통해 토지임차권을 분양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되며, 이때 KOTRA로부터 해외진출을 위한 각종 정보구득 및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기반으로 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현지공장 운영을 위한 현지인 근로자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귀국 송출 근로자의 재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현지 노동자의 재취업을 통해 한국 업무환경 및 문화 등에 익숙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그림 4-23] 한-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KMIC) 민간기업 지원을 위한 Team Korea 구성
 <출처: 내부자료>

상기 제시된 Team Korea 구성처럼 정부간 협상(G2G)을 통해 사업을 발굴할 경우, 진출국 정부의 원만한 협조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가차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현지의 물리적 사업여건 개선,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전력공사, 한

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금융·인프라·산업단지운영 전문 공공기관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한다면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산업단지 조성시 진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 참여자들이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참여할 경우 보다 원활한 입주기업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2) 진출 희망기업 수요를 반영한 해외산업단지 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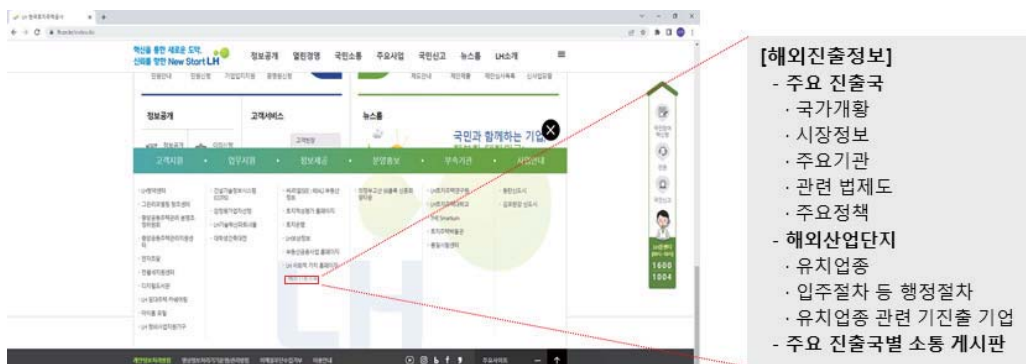
해외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특성과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터플랜에 반영함으로써 수요 맞춤형 해외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 및 인접 국가에 기진출한 기업들을 포함하여 입주의향과 지원사항 등을 조사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수요도 확보하고, 더불어 기진출 기업들과 신규 진출희망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진출대상국 및 인근 지역에서 신규로 조성하는 LH 해외산업단지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사전에 조사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면,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실수요자로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시 필요로 하는 토지면적을 사전에 파악하여 반영한다면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규모의 토지공급이 가능할 것이며, 분양(또는 장기임대), 단기 토지임대, 임대형 공장 등 기업들이 원하는 입주형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산업단지 분양 및 운영방안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전력, 통신, 물류시설 등 해외산업단지 입주시 중요시 하는 인프라를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민관 파트너십 구축시 해당 인프라를 공급·운영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포함시키고, 해당 인프라를 산업단지 계획에 미리 반영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임대료 감면, 금융 및 세제지원, 인허가 지원, 현지화 컨설팅 등 입주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한국정부 또는 사업시행자인 LH가 진출국 정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입주기업에 제공가능한 인센티브 조율을 기대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국내에서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의 제공처가 너무 산재되어 있고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 역시 상이함에 따라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LH 차원에서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외진출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부터 특정 국가로 진출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한다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통일된 채널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구득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LH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살펴보면, LH 홈페이지에 있는 [주요사이트]의 [정보제공] 메뉴에 [해외진출정보] 메뉴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용이한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 중 국가개황, 관련 법제도와 같은 진출대상국 관련 기본정보는 국내 유관기관의 정보제공 사이트에 연결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이와 더불어, LH에서 계획·조성 또는 운영 중인 해외산업단지와 관련하여 진출국 정부나 해당 산업단지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 입주와 관련된 각종 행정절차 및 관련 서식, 기진출한 기업정보 등을 직접 제공함으로써 관심지역에 초점을 맞춘 정보제공도 가능하다. 또한, 기진출 기업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해외진출에 필요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림 4-24]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사이트 운영 예시

이러한 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은 초기 정보제공 채널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후 지속적인 운영이 전제되어야 효율적으로 작동 가능하다. 예를 들어, LH에서 직접 제공하는 정보가 주기적으로 갱신되지 않는다면 해당 정보는 유용성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및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 또는 인력 운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가칭)해외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원활한 해외이전 과정뿐만 아니라 진출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들의 운영·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며, 이에 해외산업단지 입주지원 및 기업운을 위한 「(가칭)해외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기업과 기진출한 기업까지 지원할 수 있다. 먼저,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 및 행정절차 지원, 국내외 금융 및 보증 지원, 현지화 및 법제도 관련 전문 컨설팅, 현지 전문 인력풀 제공 등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해외출장시 필요한 업무공간 제공 및 온라인 회의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실 제공 등 워크센터와 회의실을 운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입주업체 및 해당 국가에 기진출한 국내기업들을 대상으로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현지 홍보활동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림 4-25]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센터 사례

<출처 : 서울시(2018)>

5)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출 희망기업 홍보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자체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에 한국 정부 및 유관기관 또는 LH가 직접 수행하는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다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초청 연수 과정에 국내의 선진 산업단지를 견학하고 더불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홍보 프로그램을 추가·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초청국가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업종과 밀접한 해외진출 희망 기업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련 공무원과의 미팅 주선 및 상담회를 운영함으로써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과 진출대상국 간의 니즈(Needs)가 일치하는 성공적인 해외진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해외진출기업 이전부지 활용방안

4.1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 활용사례

1) 자율적 개발 유도 :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등

아파트형 공장은 공장 용도의 집합건축물로서 1988년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초기에는 무허가 도시형 영세공장을 이전시켜 양성화할 목적으로 활용되었으나, 1999년부터는 제조업 외 정보통신, 지식산업 및 지원시설을 허용하면서 산업구조의 고도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존 공장이 이전하거나 활용성이 떨어져 휴·폐업되면서 산업고도화의 수단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본격적으로 설립되기 시작한 지역은 구로공단이다.



옛 구로공단 전경



현재 디지털산업단지 모습



옛 공단 개별공장 모습



현재 개별 아파트형공장 모습

[그림 4-26] 구로공단(서울디지털산업단지) 변화 모습

<출처 : 구로구청 홈페이지>

구로공단은 1964년 제정된 「수출산업공업단지 개발조성법」에 의해 경공업 등 도시형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지정되었다. 구로공단은 1970~1980년대까지 수출 및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호황기를 가졌으나, 1980년 말 이후 세계경제의 침체 및 보호무역주의,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공장들이 해외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산업단지공단은 1997년 '구로수

출산업단지 첨단화 계획 을 수립하였으며, 동시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수도권 신·증설 허용, 수도권 공장총량제 제외, 민간건설사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공급허용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어 구로공단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2021년 현재까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건립된 지식산업센터는 총 156개로, 여기에는 12,663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²⁵⁾. 이 중 구로공단의 변화 초반기(1997년부터 2000년까지)에 건설된 아파트형 공장은 총 7개로,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2차·3차, 대륭테크노타운 2차·3차, 벽산디지털밸리 1차, 아-스페이스 등이다.

[표 4-33]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초기 아파트형 공장

명칭	시행자	설립승인일	주소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입주자대표위원회	1997/03/03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38-9 (구로동)
대륭테크노타운2차	대륭2차운영협의회	1999/06/10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33-33
에이스테크노타워 3차	에이스종합건설(주)	1999/08/0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9길 38
에이스테크노타워 2차	에이스테크노타워2차 자치위원회	1999/08/07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19
대륭테크노타운3차	대륭종합건설(주)	2000/06/02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15
벽산디지털밸리1차	벽산디지털밸리1차 입주사대표회의	2000/09/1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24
아-스페이스	e-SPACE관리운영위원회	2000/12/18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식산업센터 현황>



에이스테크노타워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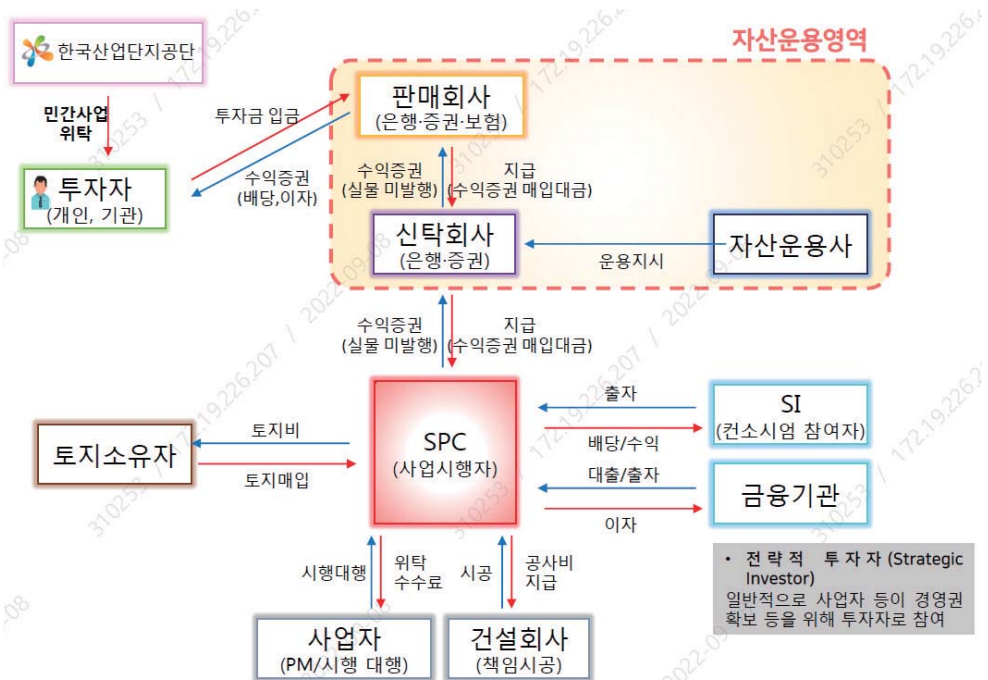
대륭테크노타운2차

[그림 4-27]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초기 아파트형공장 사례

25) 출처: 금천구청 홈페이지

2)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노후산업단지 내 공장이전 또는 유희부지에 정부예산을 시드머니(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민관 공동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통상적으로 사업 1개소 당 100억~150억 원의 정부 시드머니가 지분형태로 투자되며, 10년 뒤 회수절차를 진행한다. 환경개선펀드는 자선운용사 선정, 사업 공모, 사업자 선정, 사업시행법인(SPC) 설립,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착공 및 준공, 자산관리 및 운영, 법인 및 펀드정산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된다. 2021년 12월 말까지 55개 사업에 정부예산 약 8천 6백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4조 6천억 원의 민간투자가 유치되었다. 환경개선펀드를 통해 건축된 주요 건축시설은 지식산업센터, 호텔·컨벤션, 업종집적화시설, 복합문화센터, 오피스텔, 근로자주택, 업무시설, 저장시설 등이다.



[그림 4-28]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사업구조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환경개선펀드 설명자료>



[그림 4-29] 환경개선펀드 활용 사례(대구 성서산단)

3)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이 휴폐업 공장 등을 매입하여 재개발하고, 이를 창업·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단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사업부지(건물)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체 사업비 중 국비지원 비율은 수도권 40%, 비수도권 70% 이내이다.

[표 4-34]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유형

구분	일반공장		지식산업센터
	단층	복층	
이미지 예시			
유치규모 (150~300㎡)	3~9개사	6~12개사	9~15개사
유치업종	기계조립, 금속가공 등	기계조립, 금속가공, 전기전자 등	전기전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공용 및 지원시설	회의장, 교육장, 식당 등	회의장, 교육장, 식당, 헬스장, 메이커스페이스 등	회의장, 교육장, 식당, 헬스장, 근생시설, 기숙사, 메이커스페이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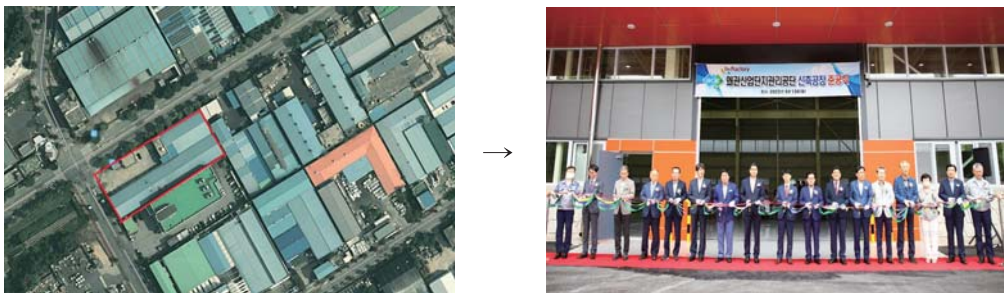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설명자료>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휴폐업공장 건축물 등의 기능향상과 외관개선 등을 위한 증축, 개축, 대수선, 실내건축, 재건축(철거 후 신축) 등 재개발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1개 센터 당 최대 70억 원이며, 총 3년간 지원한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소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공장은 리모델링 후 처음 5년간은 주변시세의 70% 이하 임대료를 적용받는다. 리모델링 유형은 크게 일반공장(단층 또는 복층)과 지식산업센터 유형으로 구분되며, 유치업종은 일반공장의 경우 기계조립, 금속가공 등이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전기전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다.

[표 4-35]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현황('19~'21)

산업단지	유형	수행기관	면적(m)	구역유형	사업방식
대전	일반	대전시	2,026	산업시설	공공
시화	국가	산단공(경기)	3,303	산업시설	공공
구미	국가	산단공(경북)	4,478	산업시설	공공
주안	국가	산단공(주안)	4,270	산업→복합	민간연계(자산매입)
군산	국가	산단공(전북)	9,975	산업시설	공공
대불	국가	산단공(대불)	19,835	산업시설	공공
성서	일반	대구시	3,499	산업→복합	공공
익산	일반	에코융합섬유연구원	6,272	산업시설	공공
왜관	일반	왜관산단관리공단	3,639	산업시설	공공
녹산	국가	산단공(부산)	4,218	산업시설	공공
창원	국가	산단공(경남)	3,335	산업시설	공공(개발신탁)
성남	일반	성남산단관리공단	10,053	산업시설	민간연계(자산매입)

<출처 : LH 내부자료>



[그림 4-30]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례(경북 왜관산단)

4)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은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산업단지 내 용도별 구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 변경 지원을 통해 허용용도,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하여 민간투자가 가능한 기반을 조성한다. 민간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된 휴폐업공장, 유희부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한다. 2021년 말까지 총 38개 사업에 2조 7천억 원의 민간투자가 유치되었다.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은 용도변경 유무에 따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 인증형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은 토지용도변경 없이 일정 규모 이상 개발되는 신축·재축·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통해 구조고도화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개발되는 주요 건축물은 지식산업센터, 근로자주택(기숙사), 오피스텔, 연구시설, 문화·컨벤션시설 등이다.



[그림 4-31]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연도별 추진현황

<출처 : 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사업 설명자료>

[표 4-36]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유형

구 분	토지용도변경 수반	토지용도변경 불필요
대상사업	일반 :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 팩토리 F&B : 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	인증형 : 100억 원 투자, 건축연면적 5,000㎡ 이상 산업집적시설, R&D 시설, 정주환경개선시설
신청자격	토지소유자, 법인, 신탁회사, 특수목적법인 등	토지소유자 및 특수목적법인
지원내용	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격 부여 토지용도변경 허용 등	인허가 지원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출처 : 산업단지공단,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공고문>



[그림 4-32] 구조고도와 대행사업 사례(인천 남동공단)

5) 공업지역 활성화(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정부는 2021년 노후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에서는 정비수단으로 산업정비구역과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산업혁신구역은 공공이 복합적인 토지이용으로 공업지역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거점 육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되면 복합용도의 거점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특례와 각종 지원 및 사업절차 간소화 등이 가능해진다.

[표 4-37]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대상지

구분	부산 사상	부산 영도	경기 군포	경북 영천	인천 동구
위치	사상구 삼락동 380-17 일원	영도구 청학도 1-44 일원	군포시 당정동 59 일원	영천시 망정동 8-12	동구 화수동 5-54
도시관리계획 면적	준공업 17,620㎡	전용공업 89,578㎡	일반공업, 준공업 77,939㎡	일반공업 5,369㎡	일반공업 22,752㎡
대상지 현황	학교(폐교)	한국타이어 물류공장	유한양행 이적지	공업지역 유희부지	폐업부지
도입 기능	탄성소재연구소 일자리연계주택 캠퍼스혁신센터 공공임대산업	해양신산업 산업 상업 지원 주거시설	산업 복합 주거 지원시설	복합건축물	호텔 주거 산업혁신센터 공공임대산업
토지비축 계약체결	'21.12	'20.12	'19.12	'22년 예정	'22년 예정

<출처 : LH 내부자료>

법제정 이전부터 정부는 산업혁신구역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는 2019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경기 군포, 경북 영천, 부산 영도, 부산 사상, 인

천 동구 등 5곳을 지정하였다. 이 중 부산 영도(한국타이어 물류공장 철수부지), 경기 군포(유한양행 이적지), 인천 동구(폐업 부지)가 공장 휴폐업 부지이며, 나머지는 학교 등 공공시설 부지이다. LH는 토지비축을 통해 해당 공장부지 및 유헴부지를 확보하고 산업, 상업, 주거, 문화 등의 기능이 복합된 앵커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 시범사업 개념(예시)



인천 동구 공업지역



부산 사상 공업지역

[그림 4-33]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조감도 사례

<출처 : 각 지자체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보도자료>

4.2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 활용방안

1) 공공 및 LH 시행가능 사업

상기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단지내 휴·폐업 및 이전부지는 민간주도로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업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개발하거나 공공주도로 산업건축물, 주거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건설하고 있다. 부처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사업으로는 구조고도화 대행사업(민간주도), 휴폐업공장 리모델링(공공주도),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민관합동)가 있다.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사업,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업지역활성화사업이 있으며, 이들 사업은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시행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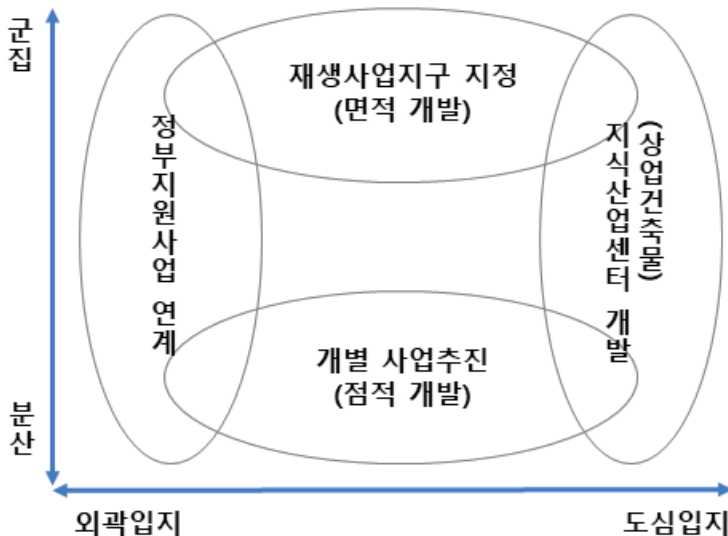
[표 4-38] 부처별 기업 이전부지 활용 지원사업

구 분	민간주도 (공공지원)	공공주도	민관공동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구조고도화 대행사업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산업단지환경개선펀드
국토교통부 사업 (LH 시행가능)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업지역 활성화사업(공업지역)		

LH의 역할 관점에서 바라보면, LH는 공공주도의 이전부지 활용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체적 개발사업 및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직접적으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산업부의 공공주도 사업인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자체가 주 시행자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LH가 직접 시행자로 참여하기 어렵다. LH가 직접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는 국토부 사업인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업지역활성화사업 등이다.

2) 입지 및 분포 유형별 활용방안 구상

해외로 이전하는 기업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을 이전부지의 입지 및 분산형태, 2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유형화하였다.



[그림 4-34] 이전부지 입지 및 분포에 따른 활용방안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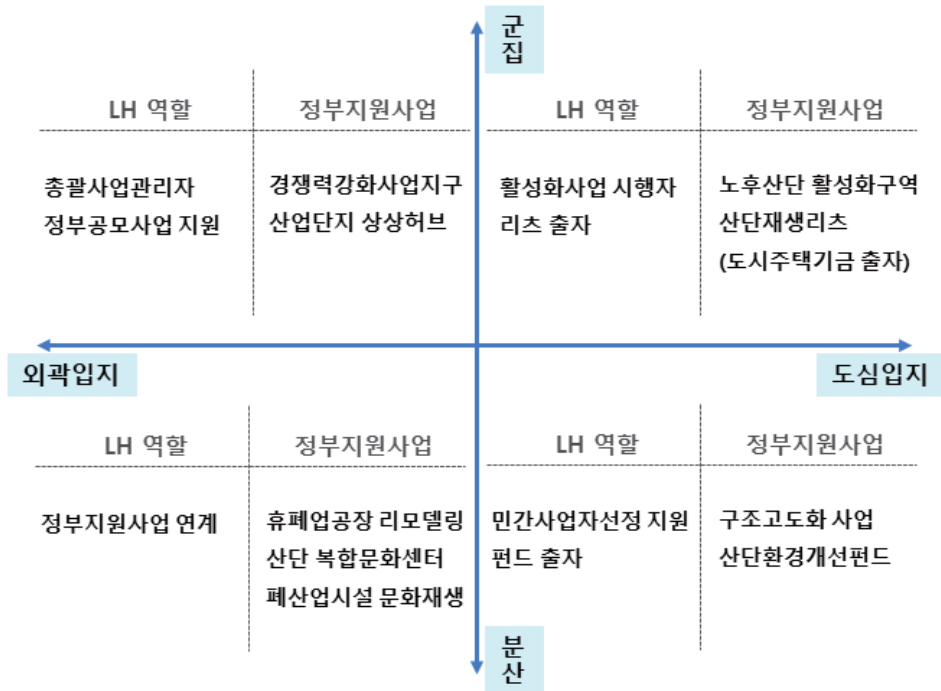
첫 번째 기준은 이전부지의 입지로, 크게 도심형(기존 시가지형) 입지, 외곽형 입지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 휴·폐업 또는 유휴부지에 가장 많이 도입되는 시설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상업시설이며, 이 중 지식산업센터의 개발은 여타 일반 공장시설과는 달리 입지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기존 지식산업센터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지식산업센터의 총 개수는 1,235개이며, 이 중 90.7%인 1,121개²⁶⁾가 수도권 및 광역시에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도시에 가까운 입지일수록 지식산업센터로의 개발 잠재력이 높으며, 시·군 등 외곽에 입지할수록 지식산업센터로의 개발 잠재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기준은 이전부지의 분산 형태이다. 이전부지가 산업단지 내 일정 범위에 군집되어 있다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통해 LH의 시행자 참여가 가능하다.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의 경우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므로, 국공유지 매입 또는 토지비축 등 제도를 활용하여 사전에 토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전부지가 점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LH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여 토지매수를 할 수 없고 개별적으로 기업주와 협의하여 토지매수를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가 아닌 공업지역에서는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LH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나 산업단지 내에서는 아직까지 근거법이 없는 실정이다.

3) 활용방안 및 LH 역할

이전부지 입지와 분포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그룹은 ‘도심입자-군집’으로 이전부지가 도시에 입지하면서 산업단지 내 일정 범위내에 군집되어 있는 경우이다. 둘째 그룹은 ‘외곽입자-군집’으로 이전부지가 도시 외곽에 입지하면서 산업단지 내 일정 범위내에 군집되어 있는 경우이다. 셋째 및 넷째 그룹은 각각 ‘도심입자-분산’ 및 ‘외곽입자-분산’이다. 아래에서는 각 그룹별 LH 역할과 활용가능한 정부지원사업을 제시하였다.

26) 서울 362개, 경기 556개, 인천 78개, 부산 46개, 대구 33개, 광주 23개, 대전 15개, 울산 6개, 세종 2개(국토연구원, 2022.1.3, ‘국내 지식산업센터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국토정책 Brief)



[그림 4-35] 이전부지 입지 및 분포에 따른 활용방안

(1) 도심입지-군집

기업 이전부지가 군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1/2 이상이 확보가 필요하며, LH는 협의매수 및 토지비축 또는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토지확보가 가능하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LH는 산업단지재생리츠 등의 사업방식을 활용하여 이전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산업단지재생리츠 제1호 사례인 서대구일반산업단의 경우, 총 사업비 673억 원 중 LH가 24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330억 원의 융자를 받았다. 이를 통해 LH의 사업리스크를 저감하고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활성화구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산업단지의 개발이익 재투자를 적용받지 않으며, 기반시설 비용지원, 주택법·주차장법 등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

[사업방식]

- 공동출자 : 대구시(24억원), HUG(131억원), LH(24억원), (주)서한(22억원)
- 용자 : 주택도시기금(330억원)

[지식산업센터]

토지면적 : 5,433㎡
 건축연면적 : 33,361㎡
 총사업비 : 673억원



산업단지재생리츠 사업개요

지식산업센터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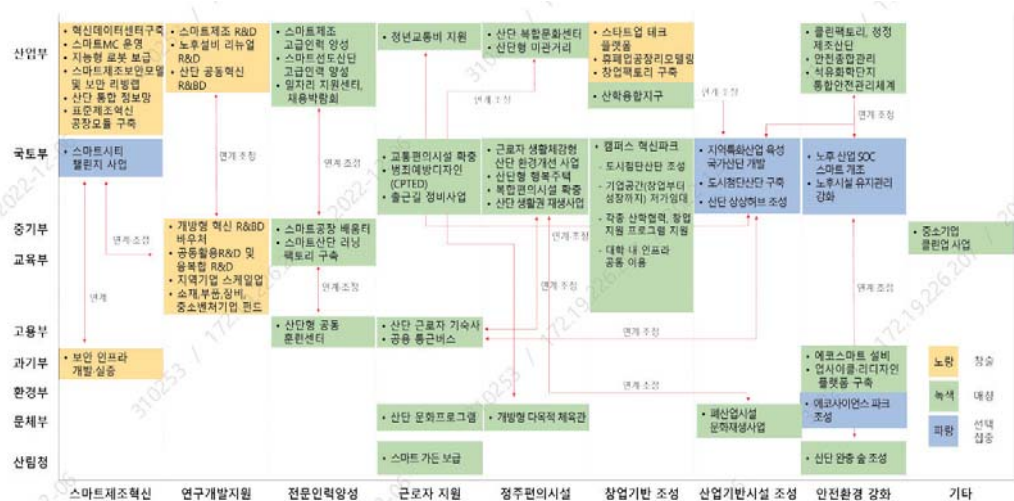
[그림 4-36] 서대구일반산단 활성화구역 산업단지재생리츠 개발 사례

[표 4-39] 산업단지재생리츠 참여자별 역할

LH	HUG	민간사업자	리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전부지 토지확보 • 현금출자 • 자산관리자(AMC) • 매입확약(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 출·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시공(책임준공) • 상가 임대 및 운영 • 매입확약(상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조달, 자금관리 • 사업관리 → LH 위탁

(2) 외곽입자-군집

기업 이전부지가 군집되어 있으나 도시외곽에 입지하여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시행에 참여하기보다는 재생사업의 관리역할(총괄관리자)을 수행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공모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 노후산업단지 내에서 이전부지 또는 휴·폐업부지가 군집하여 다수 발생할 경우에는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되면,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받을 수 있다.



[그림 4-37]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지정에 따른 범부처 지원패키지

<출처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 2019.1.19,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보도자료>

정부지원사업 중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업단지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사업이다. 2020년 첫 공모가 시행되었으며,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가 가능한 사업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개발이익 재투자 면제의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LH는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 이전부지가 '산업단지 상상허브' 등 정부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LH가 직접 사업에 참여도 가능하다.

(3) 도심입자·분산

기업 이전부지가 점적으로 분산되어 있다면, 재생사업지구를 통해 면적개발을 추진하기보다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 경우 도심입지 기업 이전부지에 대해 LH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공이 민간주도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별 이전부지 단위로 민간 또는 민관합동 개발

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조고도화 대형 사업과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가 있다.

구조고도화 대형사업 및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해외 이전기업의 경우 원활히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공모기준을 살펴보면, 사업계획서 평가 외에 산업단지 특성 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현행 가점기준에는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비수도권 단지, 부지확보 여부가 제시되어 있는 바, 해외 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을 신설하여 가점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표 4-40]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공모사업 가점항목 개선

항목 (현행)	→	항목 (개선)
정책방향 정합성 (스마트산단, 청년친화형산단, 혁신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정책방향 정합성 (스마트산단, 청년친화형산단, 혁신산단, 경쟁력강화사업지구)
비수도권 단지		비수도권 단지
부지 확보 여부		부지 확보 여부
		해외 이전기업 부지

(4) 외곽입자 분산

기업 이전부지가 도시외곽에 위치하고 점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 LH는 기업 이전부지가 정부의 다양한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도시 외곽지역에 입지한 산업단지에 적용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지자체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와 마찬가지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도 공모사업 시 평가항목을 개선하여 해외 이전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가점기준에는 정책방향과의 정합성, 비수도권 단지,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위기지역이 제시되어 있는 바, ‘해외 이전기업 부지’ 항목을 가점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제 5 장 결 론

LAND
HOUSING
INSTITUTE

&

제5장 결 론

1. 연구요약 및 시사점

최근, 미·중 무역분쟁, 4차 산업혁명, 글로벌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및 ESG 경영 본격화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의 가속화가 전망된다. 이러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른 대응방안으로서 리쇼어링 정책의 필요성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은 수출유발효과와 수입전환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선별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에서의 성장한계는 뚜렷하나 해외 진출시 성장이 기대되는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L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단지에 입주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글로벌 가치사슬 변화에 대응한 한국과 중점협력국가 간의 개발협력 방안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제조업의 해외진출과 투자는 일정 부분 국내투자 및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제조업의 성장한계를 고려할 때 해외진출이 바람직한 기업 및 업종은 그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이들 기업이 이전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구조 고도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분석, 중점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간 연계를 통해 LH의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제조업 부문 산업현황 및 해외진출현황을 분석하고, 글로벌 산업구조·공급망 변화 및 주요국 정책현황을 검토하였다.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성장의 토대가 되었던 전통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기술개발 투자,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산업이 성장하게 되면서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지속적인 감소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며, 제조업 부문 성장률도 1999년(20.7%) 정점 이후 하락과 반등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관찰할 수 있다.

제조업 부문의 질적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부가가치율은 1991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의약·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 고위기술산업군에서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들 산업군의 부가가치 증대방안을 통해 전체적인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상승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현황으로 현지 신규법인수와 투자금액을 살펴보았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제조업 부문 현지 신규법인수는 총 34,510개로, 2006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 제조업 업종중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난 30년 동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에 가장 많은 신규법인(5,510개)이 진출하였으며,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3,832개)’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3,214개)’이 뒤를 잇고 있다. 신규법인수와는 달리, 동기간 제조업 부문 현지법인 투자금액은 총 176,823백만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30년간 제조업 부문의 해외투자 목적을 살펴보면, ‘수출촉진’을 목적으로 한 신규법인이 9,78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현지시장 진출(9,526개), 저임활용(9,154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한국 제조업 부문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는 중국으로 신규법인수 약 1.8만 개에 달하며, 다음으로는 베트남(4,217개), 미국(2,948개), 인도네시아(1,16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5년 이후 중국은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베트남도 2010년대 이후 단기간 증가 양상을 보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 필요성에 대해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를 살펴본 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은 국부창출과 해당 산업의 발전 등 기본적인 효과부터 생산성 및 고용증가 등 국내 경제에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경쟁우위 산업이 국내에 충분한 투자기회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해외투자를 과도하게 늘릴 경우,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시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산업구조·공급망 변화 및 주요국 정책현황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생산과정을 분절화하여 제품기획, 제조, 유통에 이르는 과정이 세계 각국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

격탄을 맞으며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전 세계적인 공급망 확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각국 정부의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한 생산시설 폐쇄, 지역봉쇄 조치에 따른 산업활동 마비로 인한 물적·인적교류 위축, 글로벌 공급망 훼손 등을 초래하였다. 미·중 갈등,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중 85.5% 이상이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문제를 경험하였고, 그 중 물류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글로벌 생산거점 중 하나인 중국을 비롯하여 신흥국의 임금 상승, 중국에서의 외국기업 인센티브 철회,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에서 누렸던 각종 혜택을 다수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기업의 성격에 따라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보다 저렴한 곳으로의 이동, 거대 소비시장 역내로 이동, 본국으로의 회귀를 고민하게 되었으며, 중국·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 정부에서는 공급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리쇼어링 등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제조업과 첨단기술이 결합된 3D프린터, 스마트 팩토리 등이 도입되면서 제품의 생산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생산환경의 변화로 인해 생산기지의 중요요소는 인건비에서 판매전략 위주로의 변화가 예상되고, 이는 곧 생산거점의 이동으로 나타나 기존의 글로벌 공급망은 약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둘째, 미얀마, 베트남, 러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LH의 해외산업단지 중점 추진 국가들에 대해 제조업 부문의 한국기업 진출현황과 자국의 투자유치 분야를 분석하였다. 미얀마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한국에서 미얀마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157개이며, 201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최근에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기준으로 미얀마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52개가 진출해있으며, 이들을 제조업 중분류별로 세분해 보면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25건으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2021년 국가 비상사태 이후 투자유치 실적이 악화되자

2021년 11월 미얀마 투자위원회(MIC)에서는 농업, 식품가공업과 자급자족체계 구축을 위한 제조업, 그 외에 전기차 및 헬스케어 산업이 포함된 8대 투자유치 우선순위 분야를 발표하였다. 베트남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4,219개이며, 201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대폭 증가하다가 최근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기준으로 베트남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1,320개가 진출해있으며, 제조업 중분류로는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330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2020년 개정된 베트남 투자법에서는 조건부 투자분야에서 다수의 사업을 제외시킴으로써 투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분야로 첨단기술, 신소재,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기술들을 포함하여 전자제품,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한국에서 러시아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167개이며,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기준으로 러시아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18개가 진출해있으며, 제조업 중분류로는 주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에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연해주 투자청(Primorsky Territory Investment Agency)에서는 연해주를 북동부, 서부 및 중부, 남부의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며, 상기 지역을 중심으로 연해주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산업은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제작 산업, 탄화수소의 운송 및 처리, 관광 여행, 농업·어류 가공·양식업, 주택건설·건축자재 생산, 고급 교통 프로젝트(고속도로, 고속철도, 지역항공) 등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한국에서 태국으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507개이며,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최근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기준으로 태국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66개가 진출해있으며, 제조업 중분류로는 전기장비 제조업(11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0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0건)에 주로 진출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국가의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인 Thailand 4.0의 일환으로 1, 2, 3차산업 전반에 ICT를 접목·육성을 위해 단·중기적으로 자동차, 전자, 의료 및 관광, 농업, 식품 등 5개 산업을 육성하는 First S-Curve를, 장기적으로 디지털, 로봇, 바이오 및 화학, 의료허브, 항공 및 물류, 방산, 교육 등 7개 산업군의 신규 육성을 추진하는 New S-Curve를 구상하고 있으며, 상기 12대 미래산업에 투자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난 30년 동안(1990년~2020년)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제조업 부문의 신규법인수는 총 1,162개이며, 2000년 이후 신규법인수가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다. 2020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는 제조업 부문에 현지법인 191개가 진출해 있으며, 제조업 중분류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6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3건), 섬유제품 제조업(21건)에 주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부문 투자유치 분야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는 식음료, 섬유 및 봉제, 자동차, 화학, 전자의 5대 중점분야 제조업 육성을 통한 2030년까지 세계 10대 산업국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국가차원의 산업 로드맵인 Making Indonesia 4.0을 발표하여 해당 부문들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셋째,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의 해외진출 의향을 조사하고, 이를 중점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와 연계하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L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단지에 입주의향이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해외이전 및 확장 의향이 있는 기업 15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전 또는 확장 의향이 있는 진출대상 국가로는 ‘베트남’이 68개 업체(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인도네시아(27개 업체), 미얀마(15개 업체), 태국(9개 업체), 러시아(6개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이전 또는 확장을 원하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 결과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87건(56.9%)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75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41건), 저렴한 토지사용료(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형태는 ‘현지 공장신설’이 115개 업체(75.2%)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국내공장 이전(12개 업체), 국외공장 이전 또는

확장(9개 업체) 순으로 나타났다. 해외산업단지 입주형태는 ‘토지분양 또는 50년 장기임대’에 대한 수요가 70개 업체(45.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임대형 공장에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가 47개, 10년 미만 단기임대를 희망하는 업체가 23개로 조사되었다. 한편, 입주시 선호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세금 감면 등 금융 및 세제지원’이 106건(6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장설립 등에 대한 인허가 지원(100건), 토지사용료 감면(95건), 법률·노무·세제 등 현지화 컨설팅(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입주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산업인프라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 ‘전력’이 117개 업체(76.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물류시설(83개 업체), 통신(66개 업체) 등으로 나타났다.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희망업종과 진출국가의 유치업종 및 기진출한 업종간 연계를 고려한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으로 ①기진출 업종과의 연계, ②고위 및 중고위산업 관련 기업진출 지원, ③미진출 업종 진출시 정부 지원방안 마련, ④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유치분야 진출, ⑤국가별 특화전략 도출 등 다섯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기진출 업종과의 연계방안으로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제조업 업종이 기진출해 있음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유치를 희망하는 업종 외에 다양한 업종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특히, 전자 및 섬유 등과 같은 전통업종을 중심으로 유치함으로써 기진출한 업체들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다. 중점대상국들은 저위기술 뿐만 아니라 고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업종의 유치 또한 희망하고 있어 고위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과 연계될 수 있는 희망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한편, 미얀마와 러시아처럼 해당 국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진출 경험이 없는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진출하고자 할 경우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더불어 최근 많은 국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한국이 기술적 강점을 갖는 정보통신업 부문에 대한 진출을 도모하고,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로 대표되는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분야의 진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이상으로 살펴본 중점국가별 특성을 바탕으로 L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단지의 국가별 특화전략을 도출하였다. 미얀마의 경우, ‘1차 금속 제조업’과 ‘식료품 제조업’은 기진출 업체가 있는 미얀마 정부의

유치희망 업종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진출하고자 하여 이를 위한 물류 및 오염방지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과 ‘가구 제조업’은 미안마에서 유치를 희망하면서 국내에서도 진출을 희망하는 업종으로, 유사 업종간 상호연계를 위한 용지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베트남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분야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진출을 희망하는 업종과 기진출한 업종 또한 전 분야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종합적 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 중 고위산업군을 위한 첨단시설 도입방안과 유관 업종간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 내 블록화 등 조성전략이 요구된다. 러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산업분야를 유치하고자 하나 국내에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적은 특성을 보인다.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과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기진출업체가 있는 러시아 정부의 유치희망 업종으로, 국내에서 추가로 진출하고자 하여 이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식료품 제조업’과 ‘음료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과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 상호연계 가능한 업종들이 집적할 수 있도록 용지를 블록화 할 필요가 있다. 태국의 경우, 중저위 및 저위산업보다는 고위 및 중고위산업에 대한 유치의지가 강하므로 이들 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같은 첨단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과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의 입주를 위한 오염방지 및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고위 및 중고위 그리고 저위산업을 중심으로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정부에서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국내에서도 진출을 희망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의 경우 화학물질 등을 다루는 특성을 감안하여 오염방지 및 재해예방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등 중후장대한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용지규모 및 물류시설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L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

시행 중인 해외진출지원제도를 소개하는 '경제외교 활용포털'에서는 해외진출지원사업을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기업 역량별 맞춤형 수출 지원, 신성장분야 해외진출 지원, 해외투자 진출 지원, 해외 프로젝트 수주 지원, FTA 활용 지원, 무역·투자 금융 지원, 해외현장 지원 인프라 활용, 해외 취·창업 지원, 해외진출 애로해소 등 10개 분야로 분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지원사업은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수출입은행, 법무부, 외교부, 해외건설협회 등의 전문기관이 맡아 추진 중이다. 현재 경제외교 활용포털에는 총 142개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이 소개되어 있으며, 이 중 46개 사업이 기업의 해외진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6개 사업은 분야에 따라 교육, 금융, 법률, 인력, 인증, 정보제공, 컨설팅, 행정, 인프라, 종합지원, 기타 등 11개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외교부, 법무부, 관세청 등 정부부처 3곳과 정부산하기관 등 총 14개 기관에서 각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LH에서 추진하는 해외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①해외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 구축, ②진출 희망기업 수요를 반영한 해외산업단지 계획 수립, ③해외진출 관련 정보제공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지원, ④(가칭)해외산단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⑤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활용한 진출 희망기업 홍보 등 다섯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KIND,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금융·인프라·산업단지운영 전문 공공기관이 사업 파트너로 참여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민관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단지 관리·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입주기업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다음으로, 해외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 특성과 지원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마스터플랜에 반영함으로써 수요 맞춤형 해외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이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진출대상국 및 인접 국가에 기진출한 기업들을 포함하여 입주의향과 지원사항

등을 조사함으로써 산업단지 입주수요도 확보하고, 기진출 기업들과 신규 진출희망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내에서 해외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경제외교 활용포털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의 제공처가 너무 산재되어 있고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 역시 상이함에 따라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검색·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LH 차원에서 민간기업이 해외진출시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부터 특정 국가로 진출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한다면 수요자 입장에서 통일된 채널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보다 용이하게 구득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원활한 해외이전 과정뿐만 아니라 진출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해외산업단지 내에 입주기업들의 운영·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창구의 개설이 필요하며, 「(가칭)해외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와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각종 정보제공 및 행정절차 지원, 국내외 금융 및 보증 지원, 현지화 및 법제도 관련 전문 컨설팅, 현지 전문 인력풀 제공 등 산업단지 입주와 관련된 원스톱 행정지원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워크센터와 회의실, 홍보관을 운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은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자체를 지원하는 것과 함께 해외진출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에 해외 주요 진출대상국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초청 연수 프로그램을 보다 다각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러한 초청 연수 과정에 국내의 선진 산업단지를 견학하고 더불어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홍보 프로그램을 추가·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등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사례를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기업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활용사례를 우선 살펴보면,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는 노후산업단지 내 공장이전 또는 유휴부지에 정부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민관 공동으로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을 건축하는 사업이다. 2021년 12월 말까지 55개 사업에 정부예산 약 8천 6백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이를 통해 약 4조 6천억 원의 민간투자가 유치되었다. 환경개선

펀드를 통해 건축된 주요 건축시설은 지식산업센터, 호텔·컨벤션, 업종집적화시설, 복합문화센터, 오피스텔, 근로자주택, 업무시설, 저장시설 등이다.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휴폐업 공장 등을 매입하여 재개발하고, 이를 창업·중소기업에게 저렴하게 임대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현재까지 15개소가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리모델링 유형은 일반공장과 지식산업센터로 구분되며, 유치업종은 일반공장의 경우 기계조립, 금속가공 등이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전기전자,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이다. 한편,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은 정부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민간투자를 통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2021년 말까지 38개 사업에 2조 7천억원의 민간투자가 유치되었다. 구조고도화 대행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주요 건축물은 지식산업센터, 근로자주택(기숙사), 오피스텔, 연구시설, 문화·컨벤션시설 등이다.

다음으로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으로서, 이전부지 입지와 분포 유형에 따라 ‘도심입자-군집’, ‘외곽입자-군집’, ‘도심입자-분산’, ‘외곽입자-분산’ 등 네 가지 유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심입자-군집’ 유형의 경우, 기업 이전부지가 군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면적의 1/2 이상 확보가 필요하며, LH는 협의매수 및 토지비축 또는 국공유지 활용을 통해 토지확보가 가능하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LH는 산업단지재생리츠 등의 사업방식을 활용하여 이전부지를 개발함으로써 사업리스크를 저감하고 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외곽입자-군집’ 유형의 경우에는 직접 사업시행에 참여하기보다는 재생사업 총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정부지원사업 공모에 지원하는 것이 적합하다.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총괄사업관리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업 이전부지가 산업단지 상상허브 등 정부지원사업에 공모·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민간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LH가 직접 사업에 참여도 가능하다. ‘도심입자-분산’ 유형의 경우,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통한 면적개발 보다는 개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며, LH가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민간주도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별 이전부지 단위로 민간 또는 민관합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조고

도화 대행사업과 산업단지 환경개선펀드 검토가 가능하다. 위 사업들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해외 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을 가점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곽입자-분산’ 유형의 경우, LH는 기업 이전부지가 정부의 다양한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적용가능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며, 이 사업도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해외 이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항목을 가점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제조업 부문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 분석, 중점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간 연계를 통해 LH의 해외산업단지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제시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희망업종과 진출국가의 유치업종 및 기진출한 업종간 연계를 고려한 국가별 특화전략은 중점국가에 대한 해외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시 국내·외 니즈를 반영한 유치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단지내 기업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개념적인 수준으로, 향후 해외진출 희망기업들의 입지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활용방안 또는 산업단지 재생과 연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국내 제조업체들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한 LH 차원의 다섯 가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202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강내영(2021), “한국형 가치사슬의 구조변화와 우리의 과제”, 『TRADE FOCUS』, 2021년 37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강내영·양지원(2022), “글로벌 공급망의 뉴노멀과 우리의 대응”, 『TRADE FOCUS』, 2022년 5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구양미(2020), “코로나19와 한국의 글로벌가치사슬(GVC) 변화”, 『한국경제지리학 회지』, 23(3): 209-228.
- 글로벌공급망분석센터(2022), 「글로벌 공급망 인사이트」, 2022년 제3호, 한국무역협회.
- 김동수·사공목·신운성·한정민(2021), 「베트남 진출기업 경영환경 실태조사 보고서」, 산업연구원.
- 김종규(2020),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문진영·한형민·류한별·박나연·윤지현·김미림·오윤아(2019), 「한국의 아세안 투자 특성과 시사점: 해외 자회사 활동과 모기업 자료를 연계한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민혁기·문종철·강지현·안유나(2021), 「리쇼어링 추진전략과 과제」, 산업연구원.
- 박가현(2022),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우리 기업의 대응현황”, 『TRADE BRIEF』, 2022년 5호,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사공목(2019),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의 투자활성화 정책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 성장환·정연우·장인석·김영숙·주정현(2010), 「미개척 유망지역 해외산업단지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지식경제부.
- 성장환·정연우·장인석·주정현(2011), 「중소기업 해외산업단지 수요실태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 이경희·박문수·김인철(2010), 「오프쇼어링이 생산성 및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과제-업조별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이부형(2016), “국내 산업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경제주평」, 통권 699호, 현대경제연구원.
- 이수영·최혜린·김혁항·박민숙·남시훈(2018), 「리쇼어링의 결정요인과 정책 효과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재운·정만태·고대영·김재덕·유이선(2017), 「한국기업의 오프쇼어링 성과분석 및 시사점-주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 이준·조철·경희권·이성경·남상욱·김바우·김민지·김양평·김정현·이고은·맹지은(2021), 「미국의 공급망 조사 행정명령에 따른 시나리오별 영향 분석과 대응 전략」, 산업연구원.
- 이지평(2003), “산업공동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 장영욱(2021), “EU의 리쇼어링,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등에 우리 기업의 선제적 대응 필요”, 「나라경제」, 2021년 7월호, 한국개발연구원.
- 정연우·성장환·최대식·유종훈(2018), 「베트남 산업단지개발 진출전략 수립」, 토지주택연구원.
- 정형곤·이홍배·이형근·박민숙(2021), 「한·중·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GVC 연계성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정희철·강내영·김건우·정귀일·유서경·문명기·강성은·도현우·이항구·정해식(2020),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무역의 미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 조혜영·박종배·강혜정·공보경(2013), 「제조업의 해외투자 특성변화와 국내 투자환경 개선방안」, 한국산업단지공단.
- 최정환(2022),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주요 내용과 우리의 역할”, 「i-KIET 산업경제이슈」, 제140호, 산업연구원.
- 황경인(2021), 「한국의 GVC 참여구조와 코로나19 이후 수출회복 영향 분석」, 산업연구원.

Deloitte(2020), 「Chain reaction: The China link in global supply chains」, Deloitte Insights.

Eurofound(2019), 「Reshoring in Europe: Overview 2015-2018」.

Mankiw, N. Gregory and Phillip Swagel(2006), 「The Politics and Economics of Offshore Outsourcing」, NBER Working Paper.

Mckinsey Global Institute(2020), 「Risk, resilience, and rebalancing in global value chains: Executive summary」.

경제산업부(2018), 「ものづくり白書」, 2018年版.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KOTRA 「2018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19년 2월 19일자.

연합뉴스, “美 주도 ‘중국 견제’ IPEF 출범…한국 등 13개국 동참”, 2022년 5월 2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23039700071?input=1195m>

중앙일보, “해외 불안해” 집 나간 기업들 유턴 하나”, 2022년 4월 27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6651>

한국경제, “매출 80억 사장→일용직 전략…”대한민국에 사기 당했다”, 2022년 6월 8일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08909>

한국경제, “엔화가격 떨어지니…日 기업들 “집으로 돌아가자””, 2022년 5월 16일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05167724i>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리쇼어링 이니셔티브 <https://www.reshorenow.org/blog/>

미얀마 투자회사관리총국 <https://www.dica.gov.mm/en/>

산업연구원 ISTANS <https://www.istans.or.kr/mainMenu.do>

연해주 투자청 <https://invest.primorsky.ru/en/>

인도네시아 투자부 <https://www7.bkpm.go.id/home>

트어티엔후에성 포털 <https://thuathienhue.gov.vn/en-us/>

태국 투자위원회 <https://www.boi.go.th/ko/index/>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https://stats.koreaexim.go.kr/main.do>

홍옌성 포털 <https://en.hungyen.gov.vn/>

AT Kearney

<https://www.kearney.com/operations-performance-transformation/us-reshoring-index>

KOTRA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DB

<https://www.data.go.kr/data/15003297/fileData.do>



&

L	A	N	D					
H	O	U	S	I	N	G		
I	N	S	T	I	T	U	T	E

부
파

부 록

1. 설문지

<p>통계법 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ID</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d style="width: 15%;"></td> </tr> </table>	ID				
ID						

중소기업의 해외산업단지 입주수요 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글로벌 생산거점 마련을 희망하는 한국기업에게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산업단지에 대한 개발과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LH 토지주택연구원에서는 제조업 부문의 해외진출 및 글로벌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중점국가별 투자유치 분야와 해외진출 희망업종간 연계를 모색하는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구의 일환으로 국내 산업단지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NH에서 조성하는 해외산업단지 입주의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거하여 실시·관리 되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하여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본 연구의 귀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오니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 7월

- [문0] 귀사의 업종은 ()이 맞습니까?(복수선택 가능) (☞ 자료에 적시된 업종 확인)**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식료품 제조업 ③ 담배 제조업 ⑤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⑦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⑨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⑪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⑬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⑮ 1차 금속 제조업 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⑲ 전기 장비 제조업 ㉑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㉓ 가구 제조업 ㉕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㉗ 정보통신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② 음료 제조업 ④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⑥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⑧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⑩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⑫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⑭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⑯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㉑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㉒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㉔ 기타 제품 제조업 ㉕ 건설업 ㉘ 기타() |
|--|--|

I. 사업장 해외 이전 및 확장 의향

【문1】 귀사의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해외로 이전 또는 확장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음 ② 없음 (☞ 조사 중단) ③ 미정 (☞ 조사 중단)

【문1-1】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할 의향이 있다면, 어느 지역으로 이전 또는 확장을 원하십니까?

※ LH는 현재 아래 5개 국가에서 해외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① 미얀마 ② 베트남 ③ 러시아
④ 태국 ⑤ 인도네시아 ⑥ 기타()

□ 미얀마 양곤 경험산단(KMIC)

위 치	미얀마 양곤주 야웅니핀 지역 * 양곤시 북쪽 10km, 양곤국제공항 25km, 양곤항구 40km 거리 위치		
면 적	2,249천㎡ (약 680천평)	진행단계	사전계약 및 조성공사 중
사업기간	2019년 ~ 2026년 (법인설립 ~ 공사 준공) ※ 법인청산 : 2069년		
사업주체	현지 합작법인(JV) : LH 40%, 미얀마건설부 40%, 글로벌세아 20%		

□ 베트남 흥옌성 경험산단(VTK) 1단계

위 치	베트남 북부지역 흥옌성 리트엡캣 산업도시구역 내 * 하노이시 중심부로부터 약 30KM지점 * 노이바이 국제공항 50km(50분), 하이퐁 항만 75km(70분)		
면 적	1,431천㎡ (약 433천평)	진행단계	토지공급 및 공사착공(예정)
사업기간	2021년 ~ 2024년 (법인설립 ~ 공사 준공) ※ 법인청산 : 2071년(예정)		
사업주체	현지 합작법인(JV) : LH 35%, 베)에코랜드 25%, KIND 25%, KBI건설 10%, 신한은행 5%		

* 베트남 흥옌성 경험산단 2단계(2,638천㎡) 타당성 검토 중

□ 러시아 연해주 경험산단(KICP)

위 치	러시아 연해주 나데진스카야 선도개발구역(ASEZ) 2차 지구 내 * 블라디보스톡 국제공항 17km(15분), 블라디보스톡 항 29km(30분)		
면 적	500천㎡ (약 15만평)	진행단계	현지법인 설립 완료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법인설립 ~ 공사 준공) ※ 법인청산 : 2030년(예정)		
사업주체	LH Primorye LLC(유한책임회사) (LH 지분 100%)		

□ 태국 촌부리 아마타-한국 스마트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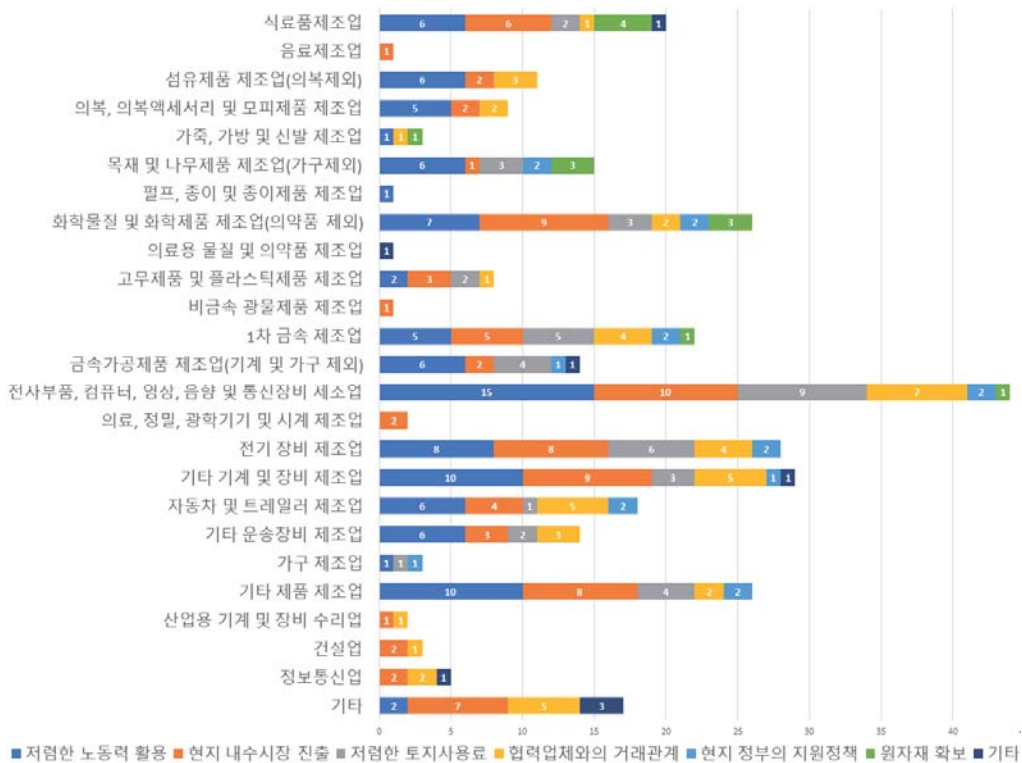
위 치	태국 촌부리주 판통구역 * 방콕 동남측 57km(1시간) 지점 * 수완나폼 국제공항 40km(40분), 램차방 항만 56km(45분)		
면 적	1,310천㎡ (약 396천평)	진행단계	타당성 검토 중
사업기간	2023년 ~ 2028년 (법인설립 ~ 공사 준공)		
사업주체	LH컨소시엄 + 현지회사 (사업구조 협의 중)		

2. 제조업 세부 업종별 해외이전 또는 확장 이유

○ 해외이전 또는 확장의 이유는 제조업 세부 업종별로 차이를 보임

[제조업 세부 업종별 해외이전 또는 확장 이유]

구분	저렴한 노동력 활용	현지 내수시장 진출	저렴한 토지 사용료	협력 업체와의 거래관계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	원자재 확보	기타
식료품 제조업	6	6	2	1		4	1
음료 제조업		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외)	6	2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	2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			1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6	1	3		2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7	9	3	2	2	3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	3	2	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					
1차 금속 제조업	5	5	5	4	2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6	2	4		1		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	10	9	7	2	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					
전기 장비 제조업	8	8	6	4	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	9	3	5	1		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	4	1	5	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	3	2	3			
가구 제조업	1		1		1		
기타 제품 제조업	10	8	4	2	2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		1			
건설업		2		1			
정보통신업		2		2			1
기타	2	7		5			3



[제조업 세부 업종별 해외이전 또는 확장 이유]

- ‘식품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활용과 현지 내수시장 진출 목적이 각각 6건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원자재 확보(4건), 저렴한 토지사용료(2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1건), 기타(1건, 원활한 배송) 순으로 나타났음
- ‘음료 제조업’의 경우, 해외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가 단 1곳으로, 이전 또는 확장의 이유는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들고 있음
- ‘섬유제품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활용을 위해 이전 또는 확장하는 응답이 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3건, 현지 내수시장 진출 2건 순으로 응답하였음
- 섬유제품 제조업과 유사한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의 경우에도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2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2건)로 섬유제품 제조업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은 저렴한 노동력 활용과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가 각각 1건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나, 추가로 원자재 확보로 응답한 경우도 1건 있음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은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6건으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저렴한 토지사용료(3건), 원자재 확보(3건),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2건), 현지 내수시장 진출(1건) 순으로 나타났음
- 이와 유사하게 목재를 원료로 활용하는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활용 1건으로 응답하였으며, ‘가구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활용, 저렴한 토지사용료,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이 각각 1건으로 응답하였음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 경우, 현지 내수시장 진출이 총 9건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이외에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7건으로 높게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 저렴한 토지사용료(3건), 원자재 확보(3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2건),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2건) 순으로 나타났음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경우 기타 사유(현지 영업사무소 개설)로 이전 또는 확장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1건 있었으며,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은 현지 내수시장 진출(3건), 저렴한 노동력 활용(2건), 저렴한 토지사용료(2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1건) 순으로 응답하였음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은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이전 또는 확장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1건 있었으며, ‘1차 금속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활용, 현지 내수시장 진출, 저렴한 토지사용료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4건),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2건), 원자재 확보(1건) 순으로 나타났음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확보가 총 6건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저렴한 토지사용료(4건), 현지 내수시장 진출(2건),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1건), 기타(1건, 운송료 절감) 순으로 응답하였음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15건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현지 내수시장 진출(10건)과 저렴한 토지사용료

- (9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7건) 또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은 현지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이전 또는 확장을 하려는 응답이 2건 있었으며, ‘전기 장비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활용(8건), 현지 내수시장 진출(8건), 저렴한 토지사용료(6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4건),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2건) 순으로 나타났음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10건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9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5건), 저렴한 토지사용료(3건),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1건), 기타(1건, 고객 요구사항) 순으로 응답하였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활용(6건)에 이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5건), 현지 내수시장 진출(4건),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2건), 저렴한 토지사용료(1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저렴한 노동력 활용(6건), 현지 내수시장 진출(3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3건), 저렴한 토지사용료(2건) 순으로 응답하였음
 - ‘기타 제품 제조업’의 경우, 저렴한 노동력 활용이 10건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현지 내수시장 진출 8건, 저렴한 토지사용료 4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 2건, 현지 정부의 지원정책 2건 순으로 나타났음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의 경우, 현지 내수시장 진출과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를 각각 1건으로 응답하였음
 - 제조업 이외에 추가로 조사한 ‘건설업’의 경우, 현지 내수시장 진출(2건)과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1건)로 이전한다는 응답이 있었으며,
 - 정보통신업은 현지 내수시장 진출(2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2건), 기타(1건, 유관업체가 많은 곳으로 이전)로 나타났음
 - 기타 업종의 경우, 현지 내수시장 진출(7건), 협력업체와의 거래관계(5건), 기타(3건, 물류 거점으로 이동, 글로벌 거점 확장, 신규사업 개발), 저렴한 노동력 활용(2건) 순으로 응답하였음